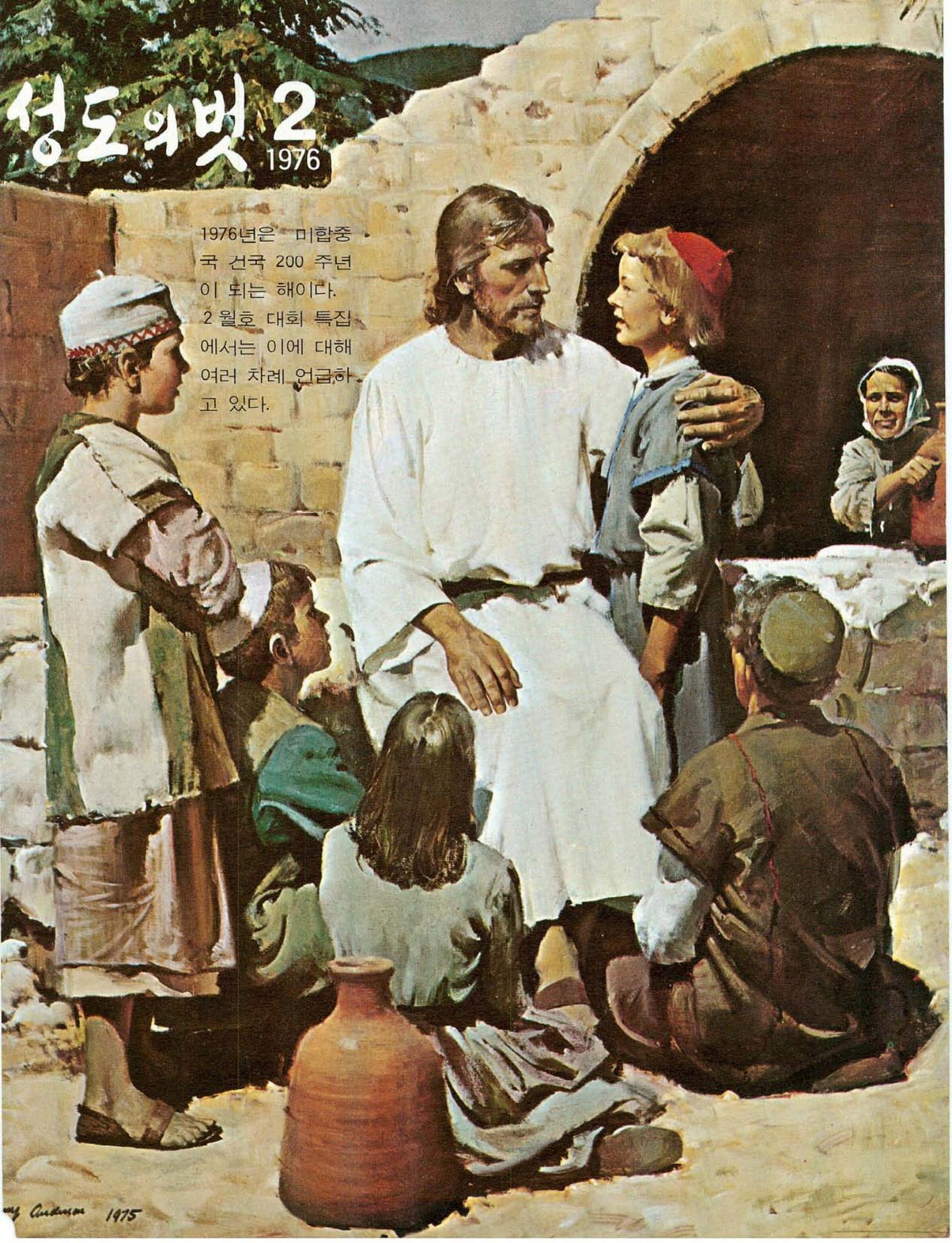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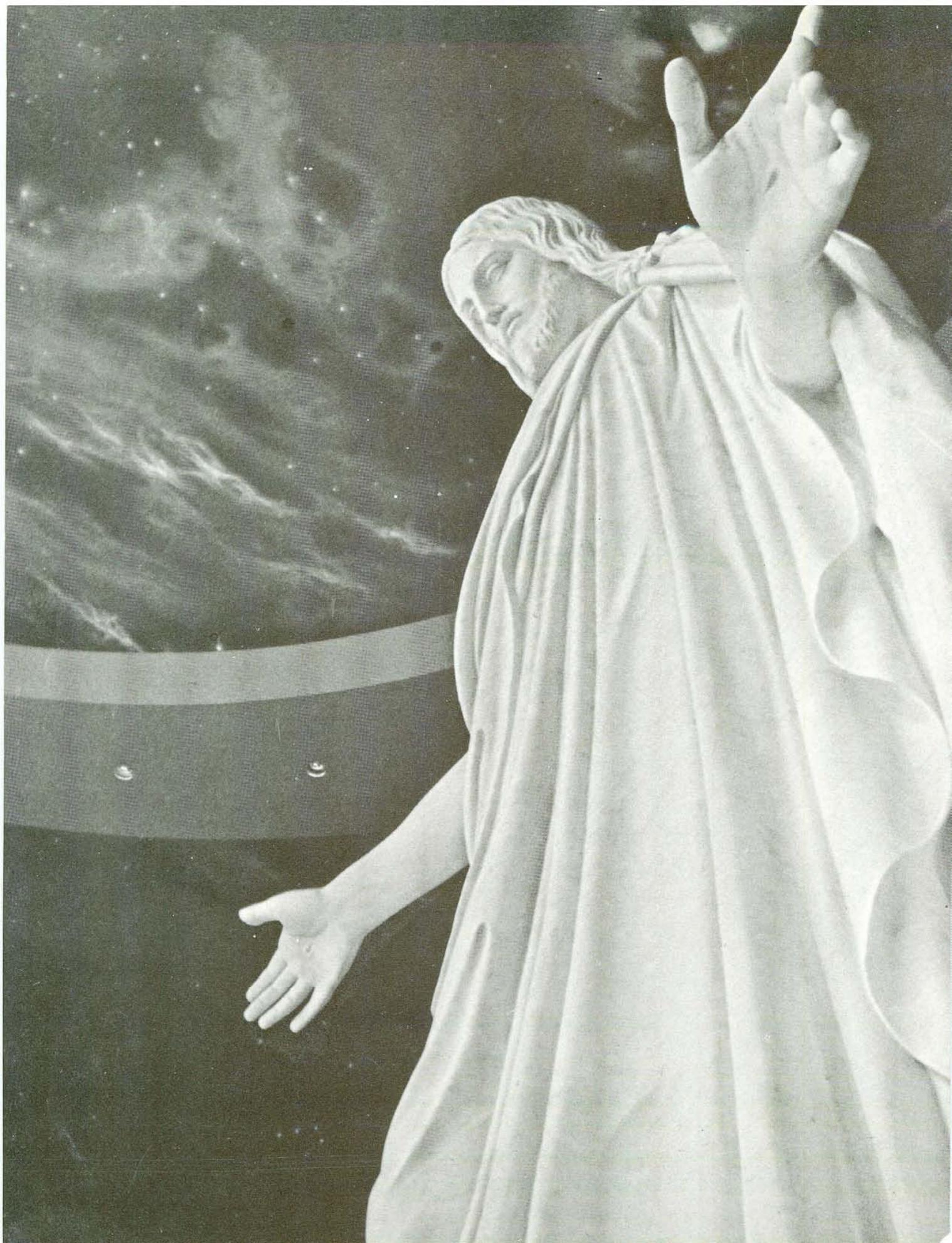


성도의 벗 2

1976

1976년은 미합중
국 건국 200 주년
이 되는 해이다.
2 월호 대회 특집
에서는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
고 있다.





색인

월간 성도의 벗 제12권 제2호 1976년 2월호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든 태너
매리온 지 룸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넬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힙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トン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베이비드 비 헤이트
등록번호 라—932
1976년 10월 4일
발행일 : 1976년 2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127호
발행인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4—6832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건수
- 성도의 벗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 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 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주 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성도 의 벗 사로 연락을 바랍니다.
- 다음은 명시된 페이지에서 시작되는 말씀의 주제를 가나다순으로 찾기 쉽 게 열거해 놓은 목록이다.
- 가정의 밤 21
개심 71
결혼 86
경고 27, 110
계보 105
교회의 성장 62
구원 97
극동 88
낙태 3
남미 48
미국 29
보호 107
복음의 이상 62
봉사 65
사랑 90, 107
상파울루 신전 48
상호 의존 90
선교 사업 16, 26, 60, 101, 103
성공 23
성약 40, 71
성품 35
세속적 74
솔트레이크 태버나클 94
순결 3
순종 7, 74
신권 68, 71, 78
신앙 14, 16
신앙 개조 78
아론 신권 65
아버지 19
어린이 14
언어 103
영적인 지침 7, 60
예언 42, 45
용기 74
우정 증진 68
의료움 60
율법 83
이백주년 86
인봉 105
일치성 86
재림 42
정결 37
지침 33
청소년 19
축복 40
충성심 3
침례 97
활동 9
회개 27, 33
회복 10
희생 65, 101

순 서

3 3 3 3 3 3 3	지금은 일하는 시기	스펜서 더블류 킴볼
7 7 7 7 7 7 7	실천하라	로버트 엘 심슨
10 10 10 10 10 10 10	천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외에는	브루스 알 맥콩키
14 14 14 14 14 14 14	어린이의 신앙	토마스 에스 몬슨
16 16 16 16 16 16 16	예언자의 신앙	에이 디어도어 터틀
19 19 19 19 19 19 19	너희도 알아야 하리니	메리온 더 행스
21 21 21 21 21 21 21	가정의 밤	제임즈 에이 컬리모어
23 23 23 23 23 23 23	성공담	스터얼링 더블류 실
26 26 26 26 26 26 26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이 주께 합당하게 하라	진 알 쿡
27 27 27 27 27 27 27	전세계에 고하는 경고의 말씀	에즈라 태프트 벤슨
29 29 29 29 29 29 29	미국의 앞날	메리온 지 롬니
33 33 33 33 33 33 33	악에 맞설	고든 비 힙클리
35 35 35 35 35 35 35	훌륭한 평판의 중요성	오 레스리 스토큰
37 37 37 37 37 37 37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함	존 에이치 반벤버그
40 40 40 40 40 40 40	성약과 축복	윌리엄 에이치 베넷
42 42 42 42 42 42 42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함	로버트 엘 스테이플리
45 45 45 45 45 45 45	예언자와 예언	리그랜드 리차즈
48 48 48 48 48 48 48	천국의 열쇠	제임즈 이 파우스트
51 51 51 51 51 51 51	감사의 말씀	찰즈 에이 디데이
52 52 52 52 52 52 52	우리는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 파송된 자입니다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53 53 53 53 53 53 53	왜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데이비드 비 헤이트
56 56 56 56 56 56 56	총관리 역원 소개	헨리 디 테일러
60 60 60 60 60 60 60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크 이 피터슨
62 62 62 62 62 62 62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빅터 엘 브라운
65 65 65 65 65 65 65	아론 신권 사업의 참된 목적	더블류 그랜드 뱅거터
68 68 68 68 68 68 68	신권의 권능	메리온 지 롬니
71 71 71 71 71 71 71	성약에 따라	엔 엘돈 태너
74 74 74 74 74 74 74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78 78 78 78 78 78 78	신권 소유자의 특권	엔 엘돈 태너
83 83 83 83 83 83 83	하나님의 율법	엘 톰 페리
86 86 86 86 86 86 86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애드니 와이 고마쓰
88 88 88 88 88 88 88	극동 지방의 신앙과 사업	로버트 디 헤일즈
90 90 90 90 90 90 90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혼터
94 94 94 94 94 94 94	태버나를	보이드 케이 페커
97 97 97 97 97 97 97	죽은 자들의 구원	조지 피 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나의 유산은 선택된 것	렉스 더 피네가
101 101 101 101 101 101 101	선교사 정신	조셉 비 워스린
103 103 103 103 103 103 103	영의 언어	엘드리드 지 스미스
105 105 105 105 105 105 105	계보 탐구	마빈 제이 애쉬튼
107 107 107 107 107 107 107	사랑은 시간을 요한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110 110 110 110 110 110 110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	선교부장단메시지 : 우리는 지금 선교사가 되어있습니까? 한 인상

지금은 일하는 시기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주변을 청결케 하고, 채소와 나무를 심고, 안식일을 지키며, 선교 사업을 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라는 권고의 말씀.

이 곳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전파를 통해서 이 연차 대회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의 축복과 사랑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 특히 선교 분야에서 봉사하실 총관리 역원 네분을 새로이 여러분 앞에 발표해 드립니다.

전 칠십인 제일 평의회 집행 서기로 계시던 바운티풀시 출신의 진 알록 장로를 칠십인 제일 평의회의 회원으로 임명합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는 점차적으로 칠십인의 정원이 채워질 것이며, 회장단은 칠인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세 사람의 형제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임명되겠습니다. 벨기에 태생으로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찰즈 에이디레이 형제를 정원회 회원으로, 텍사스주 웨인 앤토니오 출신이며, 현재 칠레의 샌디아고 선교부장인 윌리엄 러슬 브래드포드 형제를 정원회 회원으로 콜로라도주 토와우파 뉴멕시코주 써도록 출신으로 현재 아리조나 홀부룩 선교부장인 조지 패트릭 리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 회원으로 임명합니다. 이 네 분의 형제는 총관리 역원의 책임을 맡아 수행할 것입니다. 이 네 분의 총관리 역원들은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함께 잠시 후 이 총회에서 여러분의 지지를 끝낼 것입니다.

금년 2월과 3월, 우리는 브라질의 상파울루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지역 대회를 가졌습니다. 8월에는 대만, 홍콩, 필리핀 군도, 한국 및 일본에서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졌던 지역 대회에 참석한 약 114,000명의 회원을 솔트레이크의 연차 대회에 참석하게 할 수



는 없으므로 따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대회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남미의 성도들에게 남미 주민을 위한 신전을 상파울루에 건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는 동양인을 위해 일본에 신전을 세운다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전의 표적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두 신전이 건립되어 현납되면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이 성스러운 의식을 행하기 위해 신전에 가는 데 크게 거리가 단축되며 시간과 경비가 절약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 곳에서부터 자동차, 버스, 기차, 비행기, 또는 배를 타고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대회에 참석하고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많은 회생이 따랐습니다. 어느 자매의 편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집회는 특별한 모임이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셨을 때 회중은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을 합창했습니다. 저와 저의 동반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껴안았습니다.

“저는 회원이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자매의 편지를 인용하겠습니다. “이제 지역 대회도 모두 끝났어요! 저는 그 분들이 좀 더 오래 여기 계시기를 무척 원했지요. 안 믿어지실지 모르지만, 며칠 동안 비가 얹수로 왔는데 예언자께서 타신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에 하늘은 맑게 겠어요. 태풍 예보가 있었지만 그 형제님들이 이 나라를 떠나실 때 까지 태풍은 오지 않았답니다. 저는 킴볼 자매님을 부축하며 함께 걸었어요. 저는 자매님에게 자신이 자매님과 함께 걸고 있다는 것이 꿈만 같다고 말했읍니다. 자매님의 대답이 어떠했는지 아시겠어요? 자매님은 저와 아무 다를 바가 없다고 하셨어요. 빨래도 하고 설것이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야채도 심으며 제가 하는 일과 똑 같은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 대회는 너무나 훌륭했어요. 필리핀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감격적인 경험이었읍니다. 대관장님이 먼저 집회소로 들어오시고 회중들이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불렀을 때 나는 그만 울어버렸어요.

“우리는 마닐라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요. 하루 집회가 끝날 때마다 밤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지난 월요일은 집회가 오후 10시쯤 끝났어요. 12시 통금 시간 전에 집에 가려고 날아가듯 차를 몰았으나 도중에 뒷차 바퀴에 빙구가 났습니다. 오도 가도 못한데다 교통 경찰은 오늘 밤은 그 이상 여행할 수 없다 하여 통금이 해제되는 새벽 4시까지 부득이 주유소에서 밤을 새웠어



요. 우리는 다시 다음날의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닐라로 되돌아 갔어요.”

민속 고유 의상을 입은 1,200명의 젊은 청소년들이 “캐리 온”을 불렀을 때는, 그들이 작곡자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잘 불렀습니다. 우리는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는 영광을 얻어, 그들에게 우리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달려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그들이 봉사하는 나라에 사절단으로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애국심과 충성심을 가르치고 또 새 회원에게는 국가에 충성하고 정직하며 고결하라고 가르칩니다. 동양에는 약 62,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이번 모임이나 다른 여러 모임을 통하여 총판리 역원들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하실 것 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는 정원에 나무와 채소를 심을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해 들어 정원수가 많이 불어 난 것을 축 하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로 가든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채소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줄지어 서있는 옥수수, 붉은 토마토, 당근, 양파, 호박 등등 여러 가지의 채소가 눈에 띠 이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와드 채소밭, 지역 사회의 이웃의 공동 채소밭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가꾸신 채소를 사용함으로써 비싼 생활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본에 있는 한 형제는 이렇게 써 보였습니다. “저는 이곳 일본에서 채소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제가 심은 고구마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전 동산을 만드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곧 인간이 이용할 것을 마련해 주려고... 사람이 보매 이는 식물로 좋은 것이더라.”(모세서 3:8-9)

“나 주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예전 동산을 손질하며 지키게 하니라”(모세서 3:15)

현대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한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요,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참으로 음식이나 의복이나 집이나 곳간이나 과수원이나 채소밭이나 포도원 그 어느 것이나 땅에서 나오는 풀이나 좋은 것은,

“참으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니니,

“참으로... 음식이나 의복이나 맛이나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졌느니라”(교성 59:16-19)

어느 어린 소녀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채소 가꾸시는 것을 돋고 있습니다. 동생은 마당을 청소한답니다.”

“메저넷 뉴스”사와 유타주 미술 협회는 유타주 지사, 캠빈 엘 램프톤씨의 후원을 받아 독립 이백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백만인의 백만수 나무 심기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아름다움을 더하고 축복을 더해 줍니다. 또 유실수는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느 교외에 사는 분의 편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대관장님의 권고를 따라, 우리가 가진 땅을 돌아 보았습니다. 몹시 부끄럽더군요. 보통으로 헛간과 닭장과 가축 우리 가 있는 개척 시대의 농가였습니다. 울타리는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낡은 헛간을 헐었습니다. 울타리도 다시 세우고 칠하며 다른 건물들도 깨끗하게 칠했습니다. 헛간이 있던 곳을 일구어 채소를 심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행정관이 폭풍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는 서양 삼나무가 뿌리채 뽑혀 넘어져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는 그 지역을 관찰하고 있는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삼나무를 심어야겠군요.” 그 지역 관리는 대답했습니다. “삼나무가 전에 있던 것만큼 크려면 2,000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50

년 이상이 되어야 겨우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심어야 하지 않소.”라고 행정관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께 드리는 권고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집 문앞을 쓸게 하여라. 그러면 온 세상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고 꾀테는 말하였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성스러운 안식일에 공공연히 상행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일요일에 물건을 사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가게문을 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정의 밤에서 취급하여 자녀들과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이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는 일은 참으로 훌륭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 6:46)

에스겔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겔 33:31)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왜 주님의 법을 깨뜨립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상거래를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천의 선교사가 증가하여 거의 21,000명이 되었으며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사의 집단입니다.

가장 즐거운 일은 남미, 유럽, 동양, 남태평양 지역에서 수천의 선교사가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혼신과 그들이 이루는 성과를 보고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태생의 선교사들은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

며, 여권 수속의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자기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전세계를 통해서 여러 단체에서 지방 지도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충성스럽고 능률적이며 헌신적인 지도자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에 대해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란 서글픈 생활, 깨어진 맹세, 소홀히 저버려진 자녀, 깨어진 가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혼을 반대합니다. 정당한 이혼의 경우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결속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결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혼은 대부분 이기심과 다른 죄로 인하여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려면 부부가 경제면의 예산을 신중하게 세우고 그 예산대로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계획성 없이 물건을 사들임으로써 결혼 생활에까지 비참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은 쌍방의 협조이며,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가정은 가족이 함께 계획하고 함께 서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일반 사회의 결혼은 너무도 쉬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전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훨씬 올바른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시 슬픈 마음으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라 하리라”(마 7:21-23)

가정의 안전도란 그 사회의 이혼율로 능히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많은 중요한 이유로써,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결혼과 성스러운 의식을 행하기 위해 신전에 가는 일을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커다란 범법을 저지르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이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명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낙태를 전적으로 반대하며, 회원에게 낙태 행위를 금하도록 강력히 권합니다…

“낙태는 성적 부도덕으로 인도하는 경악할 만한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날 낙태는 가장 혐오적이고 죄스러운 행위의 하나로 여겨야 합니다.

“낙태의 죄를 범한 교회 회원은 그 정상에 따라 교회 평의회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교성 5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떤 일도 하지 말라’(엔사인, 1973, 3월호 64페이지)

최근에 어떤 잡지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대중 생활의 도덕관이 이처럼 땅에 떨어졌던 때는 역사상 없었던 것 같다.”

폭력과 성의 물결이 높아감을 볼 때 우리의 안방까지 이러한 행위가 생생하게 침입해 들어오려는 가능성 크다는 것에 위협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초저녁 동안만은 자녀들에게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시간을 할애해 놓은 텔레비전 방송국의 행정에 약간의 용기를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대되기를 열렬히 희망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귀한 가족들을 악에서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의로운 노력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월남인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왔을 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첫번째 피난민단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낯선

땅의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가진 것 없이 이 새로운 땅을 찾아왔던 포장마차나 손수레 부대가 기억났습니다. 수백 명의 월남 형제 자매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새 생활을 이루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중에는 회원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의 원조없이 우리는 그들을 정착시켰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중에 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이 선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과 의복과 거주할 곳을 마련해 준 신권 소유자와 상호부조회 자매님들과 기타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직한 성품의 일면은 정당한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하려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나 상인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주저하나 관세를 기피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정직하게 장부에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정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규칙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면에서 고결하며, 문제나 기타 다른 거래에도 역시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도덕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거듭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옛날 그분이 세우셨던 도덕율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변경하거나 현대식 견해로 바꾸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는 여전히 죄이며,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생활을 지지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무덤에 이르기까지, 결혼전의 어떤 성적 관계를 사악하다고 선언하며 결혼중인 남자나 여자 어느 누구든지 성약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번번히 교회의 견해를 밝힌 것 처

럼, 바꾸어 말하면, 모든 회원은 결혼 전에는 완전히 순결한 생활을 해야 하며, 결혼한 후에는 성실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개혁자들이 질서를 혼란시키고 현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에게는 불쾌한 일입니다. 도덕 영화물이나 이른바 성해방을 우리는 혐오합니다. 이러한 자유분방한 것들을 지지하고 가르치고, 고무시켰던 사람들이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표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두려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구세주의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

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 6:46)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 사람에게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교성 6:9)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진지지 못할 것이며 이 은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니라”(습 1:17-18)

우리는 파수대의 파수꾼으로 우리 손에 들려진 나팔을 크게 불어, 경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백성들을 경고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사 60:12)

이 총회의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실 총관리 역원 여러분들과 들으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합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금요일 오전 모임 말씀

실천하라

로버트 엘 심슨 장로
십이사도 보조

“실천하라”: 대관장님 책상 위에 있는 이 표어를 우리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랫만에 교회 연차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재차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의 런던에서나 뉴질랜드의 오크랜드에서나 통가의 누팔로파에서나 또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나 복음은 어디에서나 참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곳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김불 대관장님, 지난 여러 달 동안 저는 해외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대관장님의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남태평양 지역의 1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의 성실한 사랑과 끊임없는 충성심을 대관장님께 전합니다. 그들은 대관장님이 내년 2월에 그곳에 오셔서 종래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이고 광범위한 대회를 주재하실 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기 다른 아홉 개 지역에서 17일간에 걸쳐 44회의 대회를 가졌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닐까요. 게다가 서로 다른 표준시에 맞추기 위해 시계를 18회나 고치면서 28,000마일의 비행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결음의 폭을 넓히자” 고성도들에게 크게 목표를 주시는 분의 일정표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라”가 아닌 “내가 실천하는 대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일정표입니다.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분명한 소리로 모범을 보여 줄 때는 대답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김불 대관장님의 책상 위에서 현저하게 눈에 뜨이는 표어는 “실천하라”입니다. 이 영감받은 지도자에게는 개인의 편익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주님의 편익에 맞추어 행하십니다. 일에 임하는 그 분의 모범은 전설적이며 뒤따르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제가 와이오밍 주에 있는 어느 공군 기지에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부 대회가 있을 것이며, 선교부장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오는 순회 총관리

역원을 모시고 오실 가능성이 있다고 성찬식 모임에서 광고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아침 지부 대회에 참석했을 때 우리는 그 순회 총판리 역원과 만나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읍니다. 그 분이 바로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였으며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으로 새로이 부름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친절하고 그의 간증은 진실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높은 부름이 과연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내려져야 했던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후 그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를 부르셨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내세울 만한 재능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만약 일꾼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응할 수 있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일꾼을 이용하실 줄 압니다. 사실 주님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부지런한 일꾼이 필요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일하는 방법을 아시는 예언자가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말일의 사업은 예언자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걸어가는 예언자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경륜의 시대이든 부지런히 일하고 능력있는 제자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부지런한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언자와 함께 걸어갈 준비를 위한 세 가지 목표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보다 기꺼운 마음으로 “행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째, 성령의 은사를 받을 준비를 보다 잘 해야 합니다.

어느 위대한 교사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지 않으려는 사람이 읽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문화가 발달되고 현대적인 교육 기술이 개발된 현 시대에서 복음에 무지하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침례를 받고 매주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성약을 새롭게 하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그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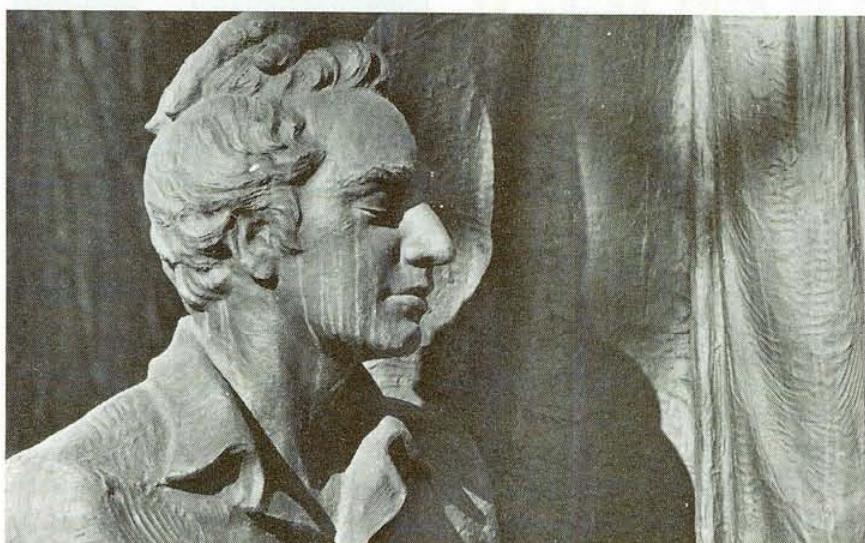
두 번째 문제는 기꺼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와 만날 때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언자의 부름을 받기 위해 2년 동안 학교나 기술 습득을 뒤로 미루고 가족과 친구를 떠나고 개인적 관심도 저버리는 것이 과연 편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의 만족을 위해서일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믿으면 바로 실천하십시오.

두 주일 전에 참석했던 남태평양의 한 역원회에서 기록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자로부터 받았던 조언은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누팔노파 통가 스테이크는 모든 와드나 지부에 합창대를 조직하고, 이웃 사람도 합창대에 가입하도록 권하라는 킴볼 대관장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바로 지난 달 심프슨 자매와 저는 이 스테이크의 합창제에 참가하여 참으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모든 와드와 지부가 다 참가하였습니다. 어느 조그만 지부는 지부 회원 전체가 참가하였습니다. 각 합창대마다 많은

수의 비회원이 있었습니다. 한 합창대의 최소 삼분의 일이 구도자였습니다. 모든 합창대에는 최근에 침례받은 회원들이 노래하고 있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이 합창에 참여한 것이 직접 원인이 되어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흰 옷으로 단장하고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고조된 훌륭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것은 예언자의 지도를 따름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축복의 훌륭한 본보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는 합창대가 있습니까? 비회원을 참가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까? 실천합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교회에는 7,000여개의 와드와 지부가 있습니다. 이 와드나 지부의 회원 자자가 내년—12개월 동안에 한 가족을 교회에 데려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마 그들에게는 둘 내지 셋의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다섯 명의 가족을 우리와 함께 노래부르도록 초대하여서 그들을 개종시킬 수 있다면 7,000개의 와드나 지부에서 1년에 35,000명의 개종자를 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언자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한 결과로 얻는 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모두 상속받을 후보자가 될 사람은 가정 교육이 어떠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올리버 카우드리,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물론 경을 번역할 때 서기로 일함; 아바드 페어뱅크의 세 목격자 기념비, 텁풀 스케어.

이나 어떤 다른 세속적 관심 거리 보다도 중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아야 합니다. 고요한 조그마한 음성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영적인 은사는 기꺼이 최선을 다하려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첫 발을 내디디려는 불굴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막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구세주는 매우 간결하고 매우 아름답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현대 문명은 우리 생활에 너무나 많은 좌절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의 사회 환경은 복잡한 생활 양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 양식이 더욱 중요한 영원한 목적과 모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심프슨 자매와 저는 뉴질랜드 오크랜드시의 낮으막한 퀸스트리트를 따라 걷다가 부두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잠깐 그곳에 멈춰서서 저는 제가 첫번째 선교 사업을 하던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어떤 일을 자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마오리 부대에게 수천의 사람들과 함께 손을 흔드는 늙은 마오리 노부부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보이는 듯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늙은 부부는 한 젊은 병사가 그들에게 크게 웃음짓자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마오리 사람들의 대화로 미루어 보아 병정은 그들의 증손자임에 분명했습니다.

그가 가담하는 전쟁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현대적 복잡한 장비가 있는 원자 전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늙은 노부부가 젊은 용사로서 전쟁에 참가했던 지난 1,800년 대의 마오리족의 전쟁과는 너무나 틀릴 것입니다.

곧 청년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노인은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마 약간은 냉소적으로) “카타히 카우아 파케하 타토우” 즉 이 말은 “자



이제 우리도 문명되었지요”

문명이란 무엇입니까? 진보란 무엇입니까? 확실히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경전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 55: 8) 이 경전보다 더 참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한 진실로 참된 유일하고 간결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젊은 몇 해를 살기 위해 지상에 온 모든 사람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모세 1: 39 참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불사불멸의 첫번째 부분은 구세주의 구속의 회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민족이나 피부나, 신조나, 행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무덤을 이기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은사를 받아 살 것입니다.

영생과 승영을 얻기 위하여는 각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신권의 원리를 생활에 옮겨 실천해야 합니다. 불사불멸파는 달리 영생을 얻기 위하여는 각자가 영원으로 향한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배우고 생활해야 하는 규율이나 생활 양식을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는 정직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자신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밀어 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구세주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보스톤의 한 은행가는 다음 월요일에 가정의 밤을 하기 위해 굽히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매주 월요일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 폐루의 산속에 조그만 농장을 가진 선량한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통가의 바바우섬에 사는 젊은 아버지는 가정 복음 교육을 그의 캐누에서 합니다. 그의 믿음은, 자기 일을 사랑하고 가정 복음 교육을 충실히 행하는 런던의 한 젊은 회사 중역의 믿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 두 사람이 다 실천하려고 합니다.

증손을 둔 그 늙은 마오리족은 그에게 밀어 닦친 이른바 문명의 가치에 대해 무어든지 질문할 권리가 있었읍니다. 원자력이 발명되고 무엇이나 자동화된 오늘날의 젯트 시대에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쓰이기만 하면 유익합니다.

만약 복잡한 방법이나 자동화된 장비들을 사용하여 좀더 많은 시간동안 인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악의 방향으로 우리의 “걸음의 폭을 넓히”게 하는 것이라면 사탄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따르고, 살아 있는 예언자의 모범을 따를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단지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천년에 한번이나 두 번 외에는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천 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외에는—흙으로 된 인간이 살아 있는 영혼을 갖게 된 후 아마 열 두 번쯤—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그 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스무 번 거쳐 가는 동안 한 번이나 두 번 하늘로부터의 손이 지상의 손과 완전히 영합되어 악수합니다. 성스러운 드라마는 열리고 죽음의 과정이 바뀝니다.

때때로 고요한 동산에서, 혹은 시나이 산의 불이나 천둥 가운데서, 아니면 인봉할 수 없었던 무덤 안에서, 아니면 다락방에서—거의 모두가 사람들 눈에서 벗어난, 몇몇 사람에게만 알려졌던 것처럼—주님은 인간 사에 관여하셔서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명시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육천년 전에 예멘의 동쪽에 이룩된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 아담과 여자 이브가 인간을 낳게 하려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니히 2:25 참조) 역사상 획기적인 또 다른 사건은 고대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방주를 만들어 지상의 모든 주민 중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일곱 사람만을 태워 물의 무덤에서 구제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중 가장 훌륭한 일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쟁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구라는 유성의 최고 시민이던 분은 회개해야 할 모든 인간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땀 구멍마다 큰 핏방울이 맷히는 고통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살아 있는 자의 인생과 영혼의 존재에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일이 아리마대의 새 무덤에서 일



어났습니다. 한 완전했던 인간의 죄 없는 영혼이 하나님의 낙원으로 갔다가 다시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한때는 창에 절리고 살해되었던 몸이 영광스런 불멸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건 즉 위대한 진리의 대열에 선 사건 하나는 뉴욕주 팔마이라 근교 숲속에서, 1820년 어느 화창하고 맑게 개봄날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4월 6일에 일어났던가요? 하영든 이 때 일어났던 일은 그 날로부터 독생자가 흡없이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때까지 지상에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비교해 봅시다. 모리엔쿠며에 살던 사람이 저린 산을 향하여 “옮겨지라” 명한 즉 산이 옮겨졌다는 것, 또는 모세가 홍해 더러 “갈라져라”고 명한 즉 바다가 좌우로 갈라졌다는 것, 또는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

리 할지어다”고 명한 즉 그리 되었다는 것 등을 봄날 아침에 뉴욕주 서부의 숲에서 일어 났던 일과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일은 사소한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밝은 아침에 하늘에서 보내 주신 기적을 경배와 감사의 마음으로 경전하게 고찰해 보면서 먼저 하늘이 기적을 열어 주신 상황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온혜로운 1820년은 1400년 전과 같이 암흑이 지상을 뒤덮고 심한 어둠이 사람의 마음을 흐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벅구름이 산을 뒤덮듯이 영적인 암흑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천사는 더 이상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잠잠했으며, 인간은 창조주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했으며, 고대 민족이 받았던 은사나 표적이나 기적이나 특별한 은총은 더 이상 신앙인들의 상속이 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시현도 계시도 하늘의 열림도 없었고, 옛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비처럼 내리셨던 공의도 멈추었던 때였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았고 눈먼 자의 눈이 뜨이지 않았으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맷는 일을 수행하는 합법적인 수행자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했고, 베드로가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복음은 기독교의 설교단에서 다시는 선포되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배도가 득세하여 범세계적으로 완전히 만연하였던 것입니다. 겸손한 나사렛 사람의 종교는 아무 데서도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파와 붕당과 종파가 빛

나갔습니다. 사탄은 기뻐하며 그의 천사가 웃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상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주의 지혜로 약속된 회복의 시간은 왔습니다. 1820년은 위대하신 여호와가 세상이 시작된 이래 성스런 예언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되는 해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들 자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려던 때였습니다.

심고, 거둬들일 계절이 오면 과수원 주인은 필요한 농부를 보내십니다.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때가 이르자, 요셉 스미스 이세가 선택되어 지명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 거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교성 135 : 3) 이 예임된 예언자는 여호와의 위대한 말일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안내자가 되기 위해 지상에 온 것입니다.

주가 거룩한 도시 곧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에녹같은 사람이 필요하셨을 때 에녹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할 모세같은 사람이 필요하셨을 때 모세가 계셨습니다. 인류에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약속된 메시야가 필요하셨을 때 위대한 구조자가 계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안내자가 필요하셨을 때 말일의 강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에 있는 자도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도 너를 조롱하며 지옥도 네게 향하여 분노하리라.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네께서 끊임없이 권고와 권위와 축복을 구하리라”(교성 122 : 1-2)

그 사람과 그 시간이 일치된 것이 1820년이었습니다. 계시가 곧 있을 것이었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복음의

진리가 주의 포도원을 방해하면 분파 주의의 절레와 가라지를 불태우려고 하였습니다.

불의 날에 대비키 위해, 종교적 관습과 혼란이 평화롭고 아늑한 곳에서 살고 있던 주님의 미래의 예언자의 거처를 염습했습니다. 퇴폐적인 기독교 목사들은 광신적인 용기로써 저들의 교리를 외쳤습니다. “여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있다” 또는 “저기를 보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요셉 스미스 2서 : 5)

종교 교사마다 자기의 특별한 구원 제도로 개종시키기 위해 지혜와 궤변을 다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가슴에는 쓰라림이 샘물처럼 솟아 올랐습니다. “이러한 언쟁과 의견의 혼돈 속에서” 증오와 분열은 극심해졌습니다. (요셉 스미스 2서 : 10) 이 분쟁의 한가운데서 미래의 하나님의 예언자는 종종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종파들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 모두가 그른 것인가, 만약 그들 중에서 옳은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요셉 스미스 2서 : 10)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빛이 고뇌에 찬 진리 탐구자의 마음을 밝게 비추게 한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경전을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 보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영원한 영광을爭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자의 모든 기록을 읽고 숙고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성스런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젊은 요셉이 시작과 끝을 아시고 그의 자녀 모두를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시는 섭리의 손으로 인도되어 갔던, 발전과 계발로 향하는 길입니다.

당시 15세의 소년 요셉—24년 후에는 그가 본 것과 그가 간증하는 것으로 인하여 순교자의 죽음을 당해야 했던 요셉은 예언자의 봇에서 나온 가장 영향력 있는 성구의 하나님 야고보서의 한 귀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선언을 하였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중의 가장 유품되는 귀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 : 4-5) 우리 주 예수는 사랑과 봉사의 말씀을 더하여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신약 전서에서 가장 위대한 성구는 다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멀망치 않



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요 3:16) 이 성구와 이와 비슷한 성구가 인간의 생애에 기친 영향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시현에 길을 열어 주었고, 또 말일에 하나님께 행하시는 역사를 인간이 이해하는 방법이 기록된 단순한 야고보의 말씀은 예언자의 입에서 나온 가장 영향력 있는 표현입니다. 이 성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역사 즉 언젠가는 이 세상이 개종자로 덮여지리라는 것을 알려 준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간결하고 평이하고 순수한 말씀—그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신약의 최후의 예언자의 한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일의 첫번째 예언자의 마음 속 깊이 파고 들어 가장 위대한 복음의 경륜을 안내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어느 교회가 참되며,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기 위해 지금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벽을 깨고 영원의 시현을 보시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모습을 찾고 여러분의 창조주께 의지하십시오. 진리의 원천이며 모든 의의 셈인 그 분을 바라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는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했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 1:6-7)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암흑을 내리 덮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들이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젊

은 요셉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빛과 진리의 시대로 이끄는 이 말씀들을 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 때의 이 글처럼 나의 마음속에 힘있게 임한 일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강한 힘이 나의 가슴을 파고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요셉 스미스 2서 : 12)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의미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이외에는 결코 알 수 없는 힘으로 야고보의 말씀은 말일의 위대한 예언자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 들었었습니다.

전시대를 통해 극심한 혼란을 빚었던 종교적 논쟁에 대해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여러 교파의 교사들이 같은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로 각각 다르게 해석하여 그 결과 성경에 의해서 의문을 해결하려는 신념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요셉 스미스 2서 : 12)

그는 다른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의 시골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속 은밀한 곳으로 걸어 갔습니다. 거기서 홀로 그는 무릎을 끊고 온 영혼을 다하여 마음속의 소망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운명의 시간이요,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배도의 어둠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의 명령, 위대한 선언인—“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새롭게 제시되었습니다. 복음의 빛, 영원한 말씀의 빛은 멀지 않아 온 세상을 비추려 하였습니다.

위대한 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혼들었던 사건들은 저항의 산에 크게 부딪치게 됩니다. 범사에 서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참 교회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세상적 방법과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악마의 힘은 크게 그를 누르려 했습니다. “나

는 어떤 힘에 의하여 완전히 사로잡혔으며 놀라운 힘에 압도되어 저항력을 잃고 혀가 굳어버려서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침착한 어두움이 나를 둘러싸았으며 한 동안은 내가 이대로 곧 죽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 15)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대한 빛을 세상에 보내려고 하실 때, 악마는 이와 같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힘은 그들의 어두운 왕국의 가장 깊은 어둠과 사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적인 루시퍼는 지금 이미 성취된 회복에 대항하여 투쟁을 계속하고 있듯이, 그때에는 약속된 행복과 대항하려 온갖 힘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사로잡은 이 원수의 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간구하면서도 거의 실망하여 상상의 세계에서의 파멸이 아니라 나를 결박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어떤 실체에 의하여 나의 몸을 파멸 속에 내던지려는 순간, 바로 이 매우 놀라운 순간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 16)

그 다음에 하늘이 갈라지고 장막이 걸렸습니다. 오래 단혔던 하늘에서는 축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빛과, 진리와, 계시와, 기사 이적파,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장소, 시간 필연성,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죽명, 이 모두가 일치하여 하나님의 말일의 역사의 안내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이 혼들리거나 땅이 혼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내 산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천둥과 구름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무덤이 열리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께 “맙오니여”하고 경건하게 부르짖기 전의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기록으로 남긴 어떠한 시현보다도 가장 위대한 시현이 어두운 암흑을 깨친 사건이었습니다. 고대의 여러 하나님들이 스스로를 다

시 나타내 보이신 것이었읍니다.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읍니다.”라고 예언자는 말씀하셨읍니다. (요셉 스미스 2서 : 16)

“이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결박했던 힘으로부터 풀려났음을 깨달았으며 그 빛이 내 위에 머무렸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읍니다. (요셉 스미스 2서 : 17)

하늘 위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장막이 걷혔읍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내려 오셨읍니다.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

셨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다시 들립니다.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은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옛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주님께 묻고자 한 것은 내가 어디에 가입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려는 것이었읍니다. 그래서 나는 정신이 들자 곧 빛 가운데 계신 그분들께 어느 교파가 옳으며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할 것인가를 물었읍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는 대답을 받았으며 나에게 말씀하신 그 분은 모든 교파가 다 그르며 그들의 신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며 그들의 교사는 부패하였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심히 멀도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요셉 스미스 2서 : 17)

스 2서 : 18-19)

지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앞으로 올 왕국에서 영생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인간이 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문은 천 번에 한두 번 열립니다.

스무 번의 세대가 거치는 사이 한 두 번 새 시대는 동틀니다. 동쪽으로부터 오는 빛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지상의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에서 멀리 떨어진 평화스런 숲에서 때때로 하늘과 땅이 마주치는 긴밀한 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아름답고 청명한 1820년 어느 봄날 아침 뉴욕주 팔마이라 마을 가까이 있는 숲속에서 일어났읍니다.

인간이 간구할 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았읍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의 머리 위에 얹은 침례 요한의 손, 아바드 페어뱅크의 아론 신권 회복 기념비, 텁플 스퀘어

어린이의 신앙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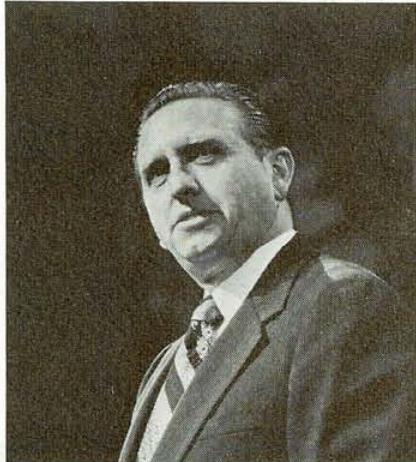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총회가 개최되는 기간은 일년 중 참으로 영광스런 기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로 모여 듭니다. 오늘 태버나클은 많은 사람으로 입주의 여지가 없도록 가득 차 있습니다. 다정한 대화는 합창대의 합창 소리와 기도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건한 분위기가 이곳을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진리에 대한 혼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결과로 다소는 불편해진 역사적인 의자에 끝까지 인내로 써 앉아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왼편쪽 발코니에 아마 10세 가량되어 보이는 예쁜 소녀가 보입니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입니다. 저는 저 소녀의 이름도 모르고, 고향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 소녀의 순진스러운 미소와 부드러운 눈동자의 정기에서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원고를 잠시 미루고 어린이에게 몇 가지 이야기해 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저 소녀의 나이쯤의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제게도 역시 주일학교 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분은 성경에서 이 세상의 구속주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 종종 읽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교사님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그에게로 데려오게 하시고 어린 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테리고 온 자들을 나



부렸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막 10:14)

그 공과는 결코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삼 개월 전 저는 이 성구의 의미를 제삼 깨닫고 그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교사는 주님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멀리 떨어지고 루이지애나주 슈레브포트에서 80마일 떨어진 곳에 잭 매드빈씨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들은 모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그 댁에는 사랑스런 딸이 있어 그 가정에 축복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탈이었습니다. 겨우 10세의 나이로 크리스탈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탈은 가족들이 살고 있던 넓은 목장에서 뛰어 놀며 지냈습니다.

크리스탈은 말을 썩 잘 탔고, 4-H 운동에도 뛰어나서 그 지방과 주의 경진 대회에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보내는 크리스탈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리에 이상한 통우리가 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뉴올리昂즈에 있는 전문의사들은 증상을 검토하고 칼시노마라는 암의 일종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는 수술에서 잘 회복되었고 종전처럼 활기있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때에 의사들은 암 세포가 크리스탈의 조그만 폐에 번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드빈가는 실망하지 않고 솔트레이크시티에 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크리스탈이 총판리 역원의 한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매드빈가 사람들은 역원 중 아무와도 안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앞에 총판리 역원의 사진을 펼쳐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상하게 저의 이름이 선택되었습니다.

크리스탈은 솔트레이크시티로 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병세가 중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종말은 가까워 오고 있었으나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스테이크 대회가 가까와 오지 않아요? 총판리 역원 한 분이 지명되지 않아요? 왜 몬슨 형제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에게 갈 수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저에게 보내실텐데요.”

한편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슈레브포트의 긴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이상한

상황이 진전되고 있었읍니다. 슈레브포트 루이지아나 스테이크 대회가 있는 주말에 저는 텍사스주 엘파소에 가기로 지명이 되어 있었읍니다. 애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러 다른 총판리 역원의 한분이 엘파소에서 있을 스테이크 분리에 관해서 준비 작업을 했다고 설명하셨읍니다. 그는 엘파소에 다른 사람을 지명하고 제게는 다른 곳으로 지명하여도 좋겠느냐고 물었읍니다. 물론 아무 문제가 없었읍니다. 저는 아무데라도 좋았읍니다. “몬슨 형제. 나는 형제님이 슈레브포트 루이지아나 스테이크를 방문하게 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읍니다.” 그 지명을 받아들여 저는 슈레브포트에 도착했읍니다.

그날 토요일 저녁은 집회의 연속이었읍니다. 스테이크부장단과의 모임, 신권지도자들과의 모임, 축복사와, 또 스테이크의 일반지도자들과의 모임이 있었읍니다. 차즈 에프 케이글 스테이크부장은 암에 고통받는 열 살된 소녀에게 축복을 줄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느냐고 미안한 듯이 물었읍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탈 메드빈이었읍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며 그 소녀가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슈레브포트의 병원에 있는지 물어 보았읍니다. 모임 일정이 꽉 짜여 있음을 알고 있는 케이글부장은 거의 속삭이는 듯한 음성으로 크리스탈이 전혀 거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게다가 집이 슈레브포트에서 129킬로미터나 더 멀어져 있는 곳이라고 말했읍니다.

저는 그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의 집회와 제가 돌아가야 할 비행기 시간까지 훑어 보았읍니다. 아무리 훑어 보아야 시간을 낼 수 있는 틈이 없었읍니다. 대안이 떠 올랐읍니다. 대회의 기도에서 이 어린이를 위해 기도할 수 없을까? 분명히 주님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집회를 진행시켰읍니다.

이 말이 메드빈가에 전달되었을 때, 메드빈 가족은 이해는 하였으나 실망도 그만큼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으시는가?

주님은 몬슨 형제가 슈레브포트에 오도록 섭리하시지 않으셨는가? 다시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사랑스런 크리스탈의 소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기도드렸읍니다.

메드빈가 식구들이 무릎을 끊고 기도하는 그 순간, 스테이크센터에 있는 시계는 일곱 시 사십 오분을 가리켰읍니다. 역원회 모임은 영적인 모임이었읍니다. 저는 저의 말씀 순서가 가까와 오자 노트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짧고도 귀에 익은 말이었읍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막 10:14) 저의 노트가 흐려 보였읍니다. 나의 생각은 축복을 필요로 하는 작은 소녀에게 돌아갔읍니다. 결정은 내려졌읍니다. 일정이 수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집회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제임스 세라 감독에게 모임 중이나 메드빈가에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읍니다.

메드빈 가족들이 기도를 끝내고 일어섰을 때, 전화가 울리고, 주일 아침에 금식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크리스탈의 병상으로 가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읍니다.

저는 그날 메드빈 가족들이 가정을 일컫는 천국을 향해 가던 여행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신성한 곳, 성스런 집에도 여러 번 다녔읍니다. 그러나 메드빈가에서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느껴보기는 처음이었읍니다. 크리스탈은 큰 침대에 평화롭게 누워 아주 작게 보였읍니다. 그 방은 밝고 즐거운 방이었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웠듯이 동창으로 들어 오는 햇빛은 침실을 가득 채웠읍니다.

가족은 크리스탈의 침대곁에 둘러섰읍니다. 병약하여 일어날 수도 없고 말할 기력조차 없는 어린 아이를 내려다 보았읍니다. 소녀의 병은 시력 마저 빼앗았읍니다. 강한 영을 느낀 저는 무릎을 끊고 그의 허약한 손을 쥐고는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읍니다. “크리스탈, 내가 여기 왔



미래의 가정이 될 계곡을 바라다 보는 자매 마흔리 영의 ‘바로 이곳이다’ 기념비

어” 소녀는 입술을 열고 속삭였읍니다. “몬슨 형제님,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방을 둘러 보았읍니다. 서 있는 사람은 없었읍니다. 모두가 무릎을 끊고 있었습니다. 축복이 주어졌읍니다. 가냘픈 미소가 크리스탈의 얼굴에 떠 올랐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의 속삭이는 말은 적절한 폐회 순서와 같았읍니다. 조용히 모두가 방을 떠났읍니다.

나흘 후, 목요일, 슈레브포트의 교회 회원들이 메드빈가와 믿음을 나누고, 크리스탈의 이름을 특별한 기도로써 친절하고 사랑에 넘친 하나님아버지에게 기억하게 하는 가운데 크리스탈 메드빈은 병든 육체를 떠나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갔읍니다.

그날 주일 날에 햇빛이 가득한 침실에서 무릎을 끊던 우리들에게, 특히 크리스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매일 그 방에 들어가 크리스탈의 떠남을 기억할 때, 유린 필드(미국 시인 언론가, 1850-1895)의 불멸의 시는 귀중한 추억을 되살려 줄 것입니다.

먼지에 덮인 조그만 장난감 장아지 충실하고 견장하게 서 있다.

충실하게 서 있네

발갛게 녹이 슬은 병정,
소총을 든 채 서 있다.

조그만 장난감 장아지가 세 것이었을 때

그 병정이 행진을 했을 때,
그때 어린 소년 리틀 보이 블루 장난감에 키스를 하고 그곳에 두었었다.

“자, 내가 올 때까지 가면 안돼”
“그리고, 시끄럽게 하지 마”
그는 바퀴 달린 침대로 아장아장 걸
어가

예쁜 장난감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천사의 노래 소리가
어린 소년 리틀 보이 블루를 깨웠다.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었지만
조그만 장난감 친구들은 진실하다!

어린 소년 리틀 보이 블루에게 충
실히 이 장난감 친구들,
바로 옛 그 자리에서
조그만 손길을 기다리며 조그만 얼
굴의 미소를 기다리며 서 있다.
그 조그만 의자의 먼지 속에서
이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장난감 친구들은 소년이 키스만 하
고 이곳에 놓아둔 뒤

소년은 어찌 된 것일까 생각하고
있다.
("리틀 보이 블루" 유명시 101선,
시카고 레이리 앤드리 출판사, 1958
년, 15페이지)

우리들은 의심하거나 기다릴 필요
가 없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 25-26) 두 분, 제크
와 벤시 메드빈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1:
27) 그리고 두 분의 사랑스런 크리스
탈은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

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
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 2-3)

윗 층 발코니에 있는 나의 어린 친
구에게,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성도
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어린이를 사랑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
답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가 이런 자의 것이다”(요 10: 14)

저는 이 말씀이 루이지아나주 슈레
브포트에서 일하던 한 사도에게 주신
말씀으로 압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
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진실하다
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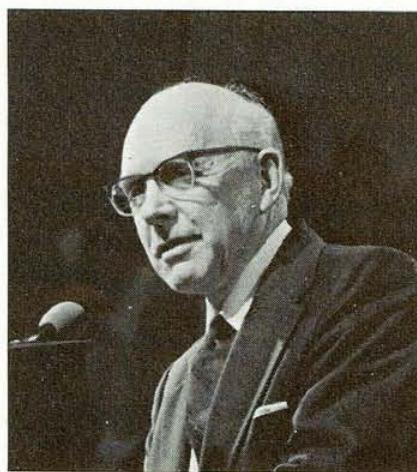
10월 연차 대회, 금요일 오후 모임 말씀

예언자의 신앙

에이 디어도어 터틀 장로
칠십인 제일 평의회

1974년, 김볼 대관장님이 선교 사업을 강조하신 이후 많은 일이 일
어났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

오늘 우리는 밀튼 알 혼터 장로를
추모합니다. 그는 위대하고 유능
한 봉사자였고 충실한 친구였습니다.
에스 딜위스 영 회장과 칠십인 제일
평의회를 대신하여 저는 전 알 쿡 장로
를 제일 평의회의 회원으로 맞아들이
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훌륭한 자격에 많은 훈련을
쌓은 유능한 분이십니다. 그는 주님
을 사랑하고, 맡은 직책을 잘 알고
있으며 대단히 헌신적인 분이십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조직된다는 발
표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기
쁘게 생각합니다. 이 정원회의 첫 회
원인 찰스 디레이 장로, 윌리엄 브래
드포드 장로, 조지 리 장로를 전심으
로 환영합니다. 이 형제님들은 훌륭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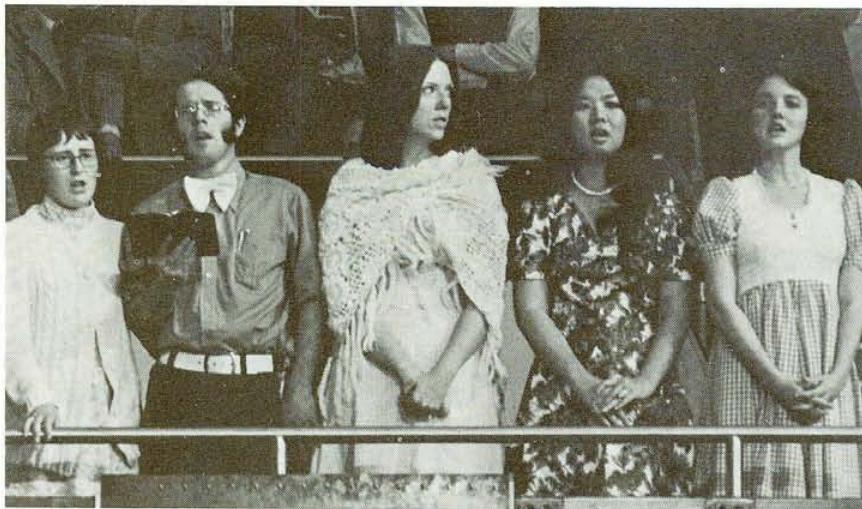
성품을 갖고 계시며 그 능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선교

사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일하
는 특권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
다.

신앙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신앙은 모든 행위의 동인이 됩니다
…”(요셉 스미스, 신앙 강화, 8페이지)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지구는 신앙으로 형
성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자,
흔돈은 그 말씀을 들었으며, 또 하나님
의 뜻이 지닌 신앙에 의해 세계는
질서가 잡혔습니다. 인간 역시 마찬
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말을 하자, 해가 멈추
었고, 달이 순종했으며, 산이 움직이
고, 감옥이 열렸습니다.

“인간에게 신앙이 없었더라면 해와



달과 산과 감옥에게 명한 것은 헛 것
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권세와 지배
와 권능을 가진, 첫째되는 위대한 통
제 원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없이
는 권세가 없고 권세 없이는 창조나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으로 일할 때는 신체적 힘이
아닌 정신적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
입니다. 그것은 신체적 능력이 아닌
말씀에 의한 것이며, 사람이 신앙으
로 움직일 때 모든 존재가 말씀에 따
라 움직입니다.”(신앙 강화 9-10, 61
페이지)

신앙에는 근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
씀드린 신앙 즉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천국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신앙은
생활에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
니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
지 않고 인내하게 하고 우리 모두에
게 흔히 있는 시련을 견디게 합니다.
이 신앙은 이 백성들 모두의 생활을
특징짓고 있음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위대한 유산입니다.

또 다른 신앙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며 쉽게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우리의 의로운 소망을 성취하
는 능력을 키워 줍니다. 이것은 창조
적이며 동인이 되는 신앙입니다. 이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인간 생활에 위
대한 동기를 만들어 주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움직이는 신앙
입니다.

경전은 하늘 나라의 어떤 권세는
인간의 신앙의 지배를 맡고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
하도록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에게 신
앙이 없을진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게 기적을 행하여 보이시지 못하실 것
이라. 저들이 신앙을 갖기까지 친히
나타내어 보이지도 아니 하시느니라.

“어느 때를 막론하고 사람이 신앙
을 갖지 아니하고 기적을 행한 자가
없으니, 저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
을 믿었더라”(이데 12:12, 18)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마
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소망을 실
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
로 되라 하시니”(마 9:29)

지난 18개월 동안 저는 이러한 신앙
이 일을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
을 유의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언
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언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잠자고
있는 영적인 힘을 행동화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회개
했습니다. 그들은 변화했습니다. 사
태도 따라서 변화했습니다.

예언자는 일어날 일을 예언한 뿐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일을 일어나
게도 합니다.

예언자가 말씀하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보겠습니다.

그는 더 많은 선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선교사가 왔습니다!
전에는 선교사가 배출되지 않았던,
세계 각처에서 더 많은 수의 선
교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씩, 다음에는 몇십 명씩, 다음에는
수백 명, 지금은 수천 명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 감화를 받았
습니다. 생활이 변했습니다. 젊은이
들이 호응합니다. 회생이 증대합니다.
부모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언자는 기뻐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통계 숫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만 그 통계 숫자는
놀랍습니다. 즉 18개월 전 브라질에서
는 불과 40명의 브라질인 선교사가
있었을 뿐입니다만 현재는 100명이
넘습니다. 남미, 멕시코, 아시아, 바
다의 섬들, 구라파 그리고 세계의 기
타 지역에서도 역시 같은 반응을 보
이고 있습니다.

18개월 전 세계의 선교부에서 봉
사하고 있는 선교사의 총수는 17,600
명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
리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19,000명
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미 21,000
명이 되었을 뿐더러 금년 말까지는
22,000명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선교사로 봉사할 때 일어나는 일의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의 이웃에 한 소년이 있는데 그
는 선교사 부름의 편지를 애타게 기
다리며 매일 우리집 앞을 지나 우편
함까지 가보곤 했습니다. 그의 추천
서가 송부된 뒤 담장이 여느때와 달
리 늦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담장이
온 날의 광경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
는 우편함이 있는 자리에서 즉시 봉
투를 뜯어보고는 곧장 친구에게 달려
가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
리기 위해 골목길을 넘어질 듯이 달
려 내려 갔습니다. 몇 분 후, 그의
옆 여섯 살 된 여동생이 집으로 걸어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인사 말
조로 그의 오빠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
더니 동생은 오면 걸음 속도를 갑자

기 변하여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읍니다. 오빠의 부름을 기뻐할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수백의 가정에서, 수천의 가슴이 느끼는 기대와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왜냐하면 이는 온 가족의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봉사는 선교사를 배출한 가정에 축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봉사하는 곳의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줍니다. 인디안 마을에서 선교사 생활을 한 한 젊은 자매는 이렇게 기록했읍니다. “나바호족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향한 저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바호족들은 백인 소녀인 저를 그네들의 딸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저를 그들의 백인 딸이라고 불렀읍니다. 언어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공과를 읽으며 가르칠 수 있었읍니다. 다행히도 나바호족 동반자와 함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동반자가 자세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었읍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교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사랑이 상호 이해를 위한 가장 위대한 언어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사랑했고 저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미소와 웃음과 때로는 눈물로 얘기했답니다. 그네들은 저의 서투른 나바호 어를 참을성 있게 들어 주었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저를 도와 주었읍니다. 저는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감동과 간증을 가지고 떠났읍니다…”

그녀는 이렇게 끝맺고 있읍니다. “12월에 저는 귀환 선교사를 만나, 사랑을 하고 신전에서 결혼했읍니다”

우리가 남미에서 살았을 때 저의 장남이 선교사의 부름을 받을 나이가 되었읍니다. 그는 주로 개종자로 구성된 조그만 우리 지부에서 나온 최초의 선교사였읍니다. 환송회에서의 폐회 기도는 새 개종자 중 한 사람이 맡았읍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선교사를 만날 수 있었읍니다. 그들은 우리 생활에 축복을 주었읍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아들들을 봉사할 수 있게 키우도록 저희를 도와 줍소서”

그 신앙의 기도는 응답되었읍니다. 그 사람의 아들의 나이가 열 아홉이 되었을 때, 그는 이태리로 부름을 받았읍니다. 그가 봉사했던 지부의 지부장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제게 보냈읍니다.

“라부오노라 장로는 6개월 전에 이곳에 도착했읍니다… 이곳에 있던 짧은 동안 그는 아홉 사람을 침례주었읍니다.

“형제님께서 그를 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저의 조그만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입원하고 있는 회원들을 방문했읍니다. 약 20명 가량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동에는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모친으로부터 버림받은 세 살된 소년이 있었읍니다. 그에게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그는 코를 흘리면서 침대에서 놀고 있었읍니다. 라부오노라 장로는 마치 친아버지 같은 부드러움으로 그의 코를 닦아 주고, 그를 팔에 안고, 입을 맞추더니 그를 침대에 내려 놓았읍니다. 그 어린이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놀라움과 안정감의 혼합이었읍니다. 우리는 이 젊은이가,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믿습니다. 그는 우리 지부와 선교부에 큰 축복입니다.”

아들을 봉사할 수 있도록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라부오노라 부장이 그후 둘째 아들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은 신앙의 더 큰 증거입니다.

최근 어느 비행기를 탔을 때 어느 젊은 숙녀가 저와 터틀 자매 옆에 앉았읍니다. 그는 우리 옆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할 때까지 우리가 누구인 줄 몰랐읍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알자 그는 실망해서 소리쳤읍니다. “어머나, 그러면 물문경을 드릴 수가 없게 되었네요. 저는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까지 물문경 3권을 구도자에게 나눠 드리려고 했거든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목표를 받고 있읍니다. 우리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이 일에는 선교사를 배출하는 일에서처럼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곧 신앙의 둘째 유형

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과 가족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해서 성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8개월 전 킴볼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스테이크와 지방부 선교 사업에서… 우리는 거의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읍니다. 눈을 돌려 우리의 목표를 세울시다.” (엔사이드 1974, 10월호, 14페이지)

스테이크 선교 사업이라는 잡자는 거대한 거인은 움직이기 시작했읍니다. 전 스테이크 부장들이 이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서 다음 세 가지를 행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1) 스테이크의 목표를 추진한다. (2) 각 칠십인 정원회를 올바르게 조직하고 질서있게 운영하여 (3) 모든 가족으로 하여금 이웃과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협조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지도자들이 해 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의 걸음의 폭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가정에서나 혹은 외국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선교 사업을 해야 합니다.

18개월 전 한 분이 선교 사업이 더 개선되고, 더 효과적이며, 더 생산적이 될 수 있다는 신앙을 피력하셨읍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읍니다. 그러나 곧 그의 보좌들은 그의 신앙과 일치가 되어 그 믿음은 삼배가 되었읍니다. 그 다음에는 십이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에 가담하였고 많은 회원들도 그 믿음에 더욱더 합치게 되었읍니다. 신앙이 신앙을 불러내어 거대한 사업은 진전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은 살아있는 예언자의 교훈에 순종함으로써 결정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향한 보다 큰 신앙을 실천에 옮겨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참되고 킴볼 대관장은 살아 있는 예언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너희도 알아야 하리니

매리온 디 햄스 장로
십이사도 보조

청 소년은 부모나 성인이 일부러 가르치는 교훈에서보다 오히려 부모나 성인의 행동에서 더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청소년은 말로 듣는 교훈에서보다 고결한 성품을 자신의 행동 규범으로 삼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보고 그들과 접함으로써 더 많이 고결한 성품을 배우고 얻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말한다고 해서, 또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모방하지는 않습니다. 고결함, 정직성, 책임감 등은 실제로 모범을 보여 줄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읍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혹은 성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특권,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깊은 확신을 우리의 자녀나 기타 젊은 세대들과 대화를 통해 나눠야 한다는 특권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특권을 행사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자 하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배운 교훈은 아직도 뚜렷이 그리고 소중하게 남아 있읍니다. 아버님이 가르쳐 준 지혜는 아직도 마음 속 깊이 스며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로든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선한 것의 근본을 형성하고 있는 원칙들을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경전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신성한 기록에 포함된 거의 모든 중대하고 도움을 주는 교훈들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대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해져 내려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저의 부친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



가셨기 때문에 부모들, 특히 아버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고심하였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읍니다. 또한 아주 중대한 일들을 그들의 자녀에게 생각과 느낌으로 이해시키고자 하는 열의를 느끼는 것도 특별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는 힘 있고 고무적인 한 예가 앤마서에 나옵니다. 앤마는 자신의 인생에서 얻은 심오한 교훈을 아들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악간의 그의 경험(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앤마도 이 두 부류의 경험을 모두 가졌던 것입니다) 중에는 그가 아들들에게 가르치고자 고심하는 중대한 몇 가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신에 관하여 짐손한 앤마는 그의 아들 헬라멘에게 힘 있고 부드러운 소리로 간증을 하고 (앤 36장) 다른 자녀들에게도 그 간증을 되풀이합니다.

“보라 나의 아들 헬라멘이여, 네가 아직 젊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서 모두를 배우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

면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요. 마지막 날에 높이 들어 올리시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이라.

“그러나 이러한 일을 내 스스로 알아낸 것이라고 네가 생각지 않기를 바라노니,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하여 알게 되었고 속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알게 되었느니라.” (앨마서 36: 3-4)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어 이 모든 것을 알려 주셨느니라. 내가 주께로 거듭 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것을 모두 알지 못했으리라.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를 간구할 때까지 죄사함을 얻지 못했었나니, 보라 주께 간청함에 영육의 평안을 느끼게 되었느니라.” (앨마서 38: 6, 8)

“내가 온갖 재난과 괴로움과 갖가지 고통에 처했을 때 위로받았으며... 참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서는 늘 나를 구원하시리라” (앨마서 36: 27)

“나의 아들아, 내가 이미 네게 이른 대로 너희가 배워야 할 바는 바로 이것이니, 너는 진리를 배우라. 또한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게서 배우라. 보라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며, 의와 진리의 말씀이시니라.” (앨마서 38: 9)

그것은 아들에게 주는 앤마의 최초의 위대한 간증이었읍니다. 오직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그를 통해서만 회개하는 자가 거듭 날 수 있다는 그의 간증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위대한 간증이었읍니다.

또한 앤마가 그의 아들에게 준 두 번째의 간증은 그가 주님을 본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내가 맛본 무한한 기쁨을 저들이 또한 맛보게 하여, 저들도 역시 하나님께로 태어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쉬지 않고 일해왔느니라.

“보라 내 아들아 주님께서는 나의 수고의 결실로 무한히 큰 기쁨을 내게 주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내게 내려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나 내가 맛본 것을 맛보며 내가 본대로 대면하여 본지라. 내가 이야기한 바를 나처럼 알며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음이라.”(엘마서 36:24-26)

그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똑 같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강한 간증을 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려하듯이, 앤마 역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으로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세 번째의 중요한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아, 이것이 또한 모두는 아닙니다. 내가 아는 대로 너희도 알아야 하리니,”(엘마서 36:30)

물론입니다! 자애로운 아버지라면 자기만이 간증을 가지는 것으로 족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것으로도 족하지 못합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한 진실한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 야곱이 그랬듯이 모든 진실한 부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창 43:14) 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 갈 수 있으리이까”(창세기 44:34)

이것이 바로 앤마가 아들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했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많은 진리와 놀라운 원리들을 가르쳤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앤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죽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역시 알아야 했습니다! 그와 똑 같은 간증을 오늘 저는 저의 아들과 딸에게 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은 그것을 배울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되시는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앤마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짚었을 때 그 땅에는 불신앙과 영적인 암흑 상태가 만연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대가 장성함에, 저들이 그 조상들의 전언을 믿지 아니하여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강림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같이 저들이 믿지 아니함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저들의 마음은 강퍅하여졌으며

“침례를 받으려 하거나 교회에 속 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 주 저들의 하나님께 간구하려 하지 않았음이라”(모사이야서 26:1-4)

예언자의 아들 앤마는 의로운 왕의 아들인 그의 친구들과 함께 분란을 일으키고 저들의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신앙을 파멸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백성들간에 불화를 일게 하며, 하나님의 원수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 잡을 기회를 열어 주어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하는 데 이를 크게 방해하는 자가 되었으며”(모사이야서 27:9)

그들은 이러한 과정에는 으레 따르기 마련인 고통과 슬픔을 후에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또한 그들의 부친과 신권 지도자와 백성들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거의 생명을 잊어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이 따른 회개 후에 그들 역시 회개와 용서의 축복과 신앙의 병고치는 은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

은 그들의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켜 용서를 받은 후 온 힘을 다하여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선을 행하는데 전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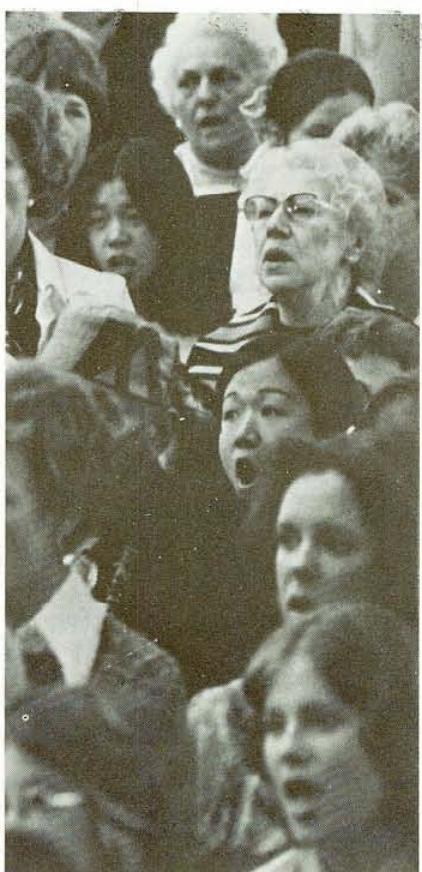
악의 길을 걸던 그들의 변해진 모습을 경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인지라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더욱 강하게 뭉쳐졌더라.

“그 뿐 아니라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느니라”(엘마서 17:2-3)

모든 사람이 자기 의지로 행동하며 “의를 손에 들고 충실로 허리를 둥어 매고 땅의 주민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일지어다”(교성 63:37) 한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합니다.

“…이웃 각 사람에게 전하는 너희 말은 온유하고 겸허한 경고의 말이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38:41)

우리 이웃 가운데는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우리 가족들도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 각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마의 부친은 간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했읍니다.

이노스의 부친은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이노스에게 가르쳤으나, 이노스가 “영으로 굽주림을 느껴” 창조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어 구했을 때 비로소 간증을 얻었던 것입니다.

과거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간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이란 뜻에서 볼 때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며 공의로운 판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기쁨 안에서나 고통안에서나 보호하고 계

십니다. 이를 알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역시 이 지식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알아야 합니다.

알므로써, 여러분은 보다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부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600년 전에 누군가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참된 인간애를 가지고, 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강론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뉘우침을 정의하기보다 뉘우침을 느끼게”될 것입니다. (도마스 아 챔피스 : 예수의 모방, 밀워키, 브루스 출판사 1940, 2페이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

가 봉사와 성스럽고 현신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하고 순수한 사랑을 주며,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제자되는 과정을 택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자신 이외에는 아무 것도 우리를 그것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는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종사하도록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말 아래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찾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바라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업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금요일 오후 모임 말씀

가정의 밤

제임즈 에이 컬리모어 장로
십이사도 보조

가족을 사랑과 이해로 결속시키는 이 특별한 교회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찬사를 받고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가정의 밤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키플 대관장님은 스토흘름 지역 대회에서 사회의 여러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가정 교육 프로그램과 가정의 밤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시대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무법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명문 가문의 선량한 청년이라고 생각되는 젊은이들이 파괴적인 행위로써 반항심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관리를 무시하고 반항합니다. 권위, 세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은 저속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도덕, 환각제 복용, 일반의 도덕적 정신적 타락을 점점 더해가고 있고



초월한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곧 모든 가족에게 성실한 생활, 참된 가족 생활, 가족 상호 의존하는 가정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버지가 가장이라는 올바른 위치로, 어머니가 사회 생활과 직장에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는 무제한의 환락이나 쾌락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더 할 나위없이 훌륭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부모들의 가정 교육 프로그램인 이 가정의 밤은 사람들이 그 차료법을 응용하기만 하면 나쁜 영향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엔사이언 1975, 1월호 3-4페이지)

1964년 10월 대회에서 데이비드 오麦카이 대관장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데 도움을

세상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주기 위해 계획된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다시 소개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교회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월요일 저녁은 모든 교회 회원이 가정의 밤을 갖도록 특별히 지정되었습니다. 훌륭한 공과책이 전문 집필가에 의해 해마다 준비되어 왔습니다.

가정의 밤 교재는 해마다 907,000부 이상이 인쇄되어 그중 830,000부는 영어로 77,000부는 기타 17개국어로 인쇄되어 48개국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1974-75년도 가정의 밤 교재에서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전반에 걸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라는 조직은 가족이 승영에 이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일성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가족이 완전을 향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는 자녀의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이상의 시간과 정력을 바치는 혼신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제어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가족의 승영을 얻기 위하여 가정에서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밤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조직과 단체와 개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교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브라스카주 링컨시 임마뉴엘 루터 교회 : “본인은 최근 귀교회의 가정의 밤 교재를 보았습니다. 본인은 그 프로그램의 의의와 방법에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디어필드시 삼위일체성서 연구 신학교 : “본인은 최근 귀교회의 가정의 밤 교재를 보았습니다. 특히 가정의 밤 교재를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얻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니다.”

오크라호마주 보건국 : “우리는 귀교회에서 ‘가정의 밤’이라고 부르는 가족 유대를 강조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향상의 주요 원천은 좋은 가정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 본국과 정보를 나눌 수 있으면 기쁘겠습니다.” 전국 또는 지방의 언론계에서 우리의 노력을 칭찬하는 기사가 많이 실렸습니다. 유 피아이 통신사의 고 루이스 캐슬씨는 어느 가정의 밤에 참석한 뒤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녀는 가정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교육을 받는다. 가정 생활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촉하지 못한 소년 소녀에게 주일학교나 다른 교회 조직에서 그것을 주입시키기는 어렵다.

“모든 교파가 이 프로그램에 동의하고 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자녀에게 종교적인 교육을 주어야 하는 가족의 중요한 역할을 가

정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세계 각처에 있는 350,000 물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다 함께 ‘가정의 밤’을 가진다…

“제 삼자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 물론의 가정의 밤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십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태도였다.

“말일성도의 해롤드 비 리 대관장께서는 가정의 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최근 일단의 물론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우리 자신의 가정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리 대관장은 가정의 밤은 자녀에게 종교적인 교육에 좋을 뿐 아니라 가족의 결속을 도모해 주고, 세대차를 좁히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를 지속하게 해 준다고 말씀하셨다.

“‘가정이 올바른 제 기능을 갖출 때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고 물론교 대관장은 유 피아이 기자에게 말하였다. ‘세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은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이 가족 모두에게 힘의 원천이 되고 악의 영향에서 지켜 주며 강한 가족의 유대를 지킬 수 있도록 부모에게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

많은 시의 시장들과 주지사들은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 가정을 견고하게 하고 전전하게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합” 강조 주간 또는 강조의 달을 갖자는 제의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블니다 :

“미연방 전역의 행정 당국은 가족 단합의 침체 현상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광범위한 인정을 얻은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시도했습니다. 그 주요 목적은 매주 가족이 함께 모여 놀이와 휴식과 공부를 통하여 가족의 단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원만한 가족 관계는 강한 지역 사회를 이루는 주요 원천입니다.

“이에 휴스턴 시장인 나 프레드 호프하인즈는 12월을 가족 단합 강조의 달로 선언합니다.”

또 다른 홀륭한 선언문을 아리조나 주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가 가정의 밤을 통해 자녀를 가르치는 이 프로그램을 인정하였읍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자기 주의 모든 주민들에게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가족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며 빼놓을 수 없는 단위입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히 자녀들의 복지와 미국의 유일하고 가장 위대한 힘의 약화라는 중대한 결과와 반응을 낳으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비율로 가정 생활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식자들간에는 가정 생활의 파탄과 국가의 파멸을 예고하는 그 결과에 대해 우려가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명한 종교계 지도자는 이렇게 말 하였습니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리조나 주지사인 나 쟈 월리엄즈는 1974년 6월 2일 일요일부터 일주간을 가정의 주간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실하고 직결이 바른 미국인들로 하여금 가정 생활의 의미를 그들 자신이,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국가가 살기하도록 합시다…”

또한 교회는 미국 상원 의원에게… 그들의 개척자 정신과 그들의 전전한 생활과 자기 이웃에 대한 염려와, 그들의 많은 업적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제93차 국회에서 받았읍니다.

김볼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

셨습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정부, 주, 시의 지도자들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은 것은 몹시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국가를 창조하며 정부를 창조하는가를 압니다. 그들은 무엇이 시와 주와 정부를 파괴하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의 붕괴가 곧 정부의 몰락의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직, 부도덕, 이혼과 불성실로 인한 가정의 파괴, 가족주의 제한, 폐락과 성에 대한 성인들의 몰두가 정부의 부패의 전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엔사이언 1975, 1월호 9페이지)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제도화한 이들 형제님들은 크게 영감을 받았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또한 이 가정의 밤 교재를 준비한 분들에게 큰 영감이 주어졌다는 것도 잘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금요일 오후 모임 말씀

성공담

스터얼링 더블류 실 장로
십이사도 보조

간 스테이크 대회와 관련하여 개최된 1966년도 역원회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두 분이 삼 분간씩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순서가 있었읍니다. 성공담이란 특정한 한 사람의 성공의 경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적용이 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인간은 거의 누구나 무엇인가를 수집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고 쌓아 놓듯이 우리는 우표, 나비, 동전을 수집하거나 주식, 증권, 보험증서, 부동산, 은행 예금 등을 모읍니다. 또한 태도, 기능, 습관, 개성의 특질도 모아 쌓고 있읍니다.

1966년 이래 저는 일흔 두 가지의



성공담을 모았읍니다. 이 성공담은 모두 다른 사람의 생활에서 얻은 단

편들로서, 내가 꿀로 매끄럽게 잘고 불감을 칠하고, 광택을 내고, 기억에 새기고, 기록하여 필요할 때 즉시 영구히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오후 저에게 허용된 여러분의 귀중한 12분 동안 네 가지의 성공담을 각 3분간씩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로 말씀드릴 성공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된 후, 세상은 이대진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는 부루터스가 이끄는 모반자의 무리요, 다른 하나는 옥타비우스 시저와 시저의 친구 마크 안토니가 이끄는 무리였습니다. 그 후 길고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마크 안토니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무사로 품하게 되었읍니다. 아마 우

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해냈을까?” 만약 그의 성공의 비결을 알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의 성공의 비결을 응용하여 우리 자신도 성공하고자 할 것입니다.

마크 안토니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실마리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신에 찬 용변, 논리 정연함, 용기 있는 지도력, 자기 절제의 힘으로 무장한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는 가장 힘든 일을 자신이 맡아서 가장 놀라운 원기로써 그것을 처리하였읍니다. 그는 곤충과 나무껍질로만 몇 주일을 연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부하들로부터의 의심할 수 없는 충성과 국민들로부터의 갈채와 옥타비우스로부터의 지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혼신과 능력에 맞섰던 적장들은 하나씩 차례로 싸움에서 패배해 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마크 안토니는 위대한 줄리어스 시저가 한때 세계의 지배자로서 차지했던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전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자 안토니는 나태해졌습니다. 이 나태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비극적인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마크 안토니는 이집트로 전너가 요염한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집트 궁중의 사치와 우아함과 부도덕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마음은 술향기에 흐려졌으며, 푸르타크가 말한 바 “썩은 생선 장군”이 되었습니다. 마크 안토니가 자기의 좋은 면을 소홀히 했을 때 그는 부하로부터의 충성, 국민들로부터의 갈채, 옥타비우스로부터의 지지, 스스로의 자존심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크 안토니를 사슬에 묶어 로마에 호송하기 위하여 병정 몇 명이 보내졌습니다.

이제 마크 안토니를 이기는 데에는 많은 군대가 필요없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몇 명의 병정으로도 죽혔습니다. 그러나 마크 안토니는 자기 가슴에 칼을 끊음으로써 체포를 피했습니다. 그는 죽어 가면서 자기 자신을

넘어 뛸 수 있는 힘은 오직 자기 자신의 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클레오파트라에게 말했습니다. “오직 안토니만이 안토니를 지배할 수 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의 도착을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국가에 끼친 엄청난 불명예와 자기 가족에게 끼친 수치와 굴욕을 생각하며, 최후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중에서 안토니가 클레오파트라에게 한 말을 윌리엄스 헤인즈 라이틀은 시로 번역했습니다.

시저의 비굴한 충신들이
이처럼 누운 사자를 비웃지 말게 하라,

그를 넘어뜨린 것은 적공장의 무기가 아니요,

그 자신의 칼이라.

그대 가슴에 머리를 묻은 그는
세상의 영광의 빛에 등을 돌리고,
그대의 애무에 취하여 미친듯
세상을 던졌노라.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미국 애송시 헤이즐 필더맨 편, 가든시티, 뉴욕 더블데이 앤드 사, 1936년, 203페이지.

한때 마크 안토니는 전세계를 좌우 할 힘을 그의 수중에 쥐고 있었으며, 그 자신외에는 아무도 그에게서 그 힘을 뺏을 충분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가 도달할 수 있는 세계는 마크 안토니에게 속해 있던 세계보다는 훨씬 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해의 영광의 왕국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의 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안토니 만이 안토니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의 이야기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에서 나옵니다. 저자는 갈쿠리를 가지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쓸데없는 것을 긁어 모으는 평생을 바친 남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천국의 왕관을 들고 그의 머리 위에 서서 그 갈쿠리와 왕관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아래를 보는 것만을 훈련했기 때문에 계속 세상의 더러운 것과 먼지만 긁어 모으면서 천사의 제

의를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과 신앙과 의로움과 이해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천국의 왕관을 들고 우리 머리 바로 위에 서서 천국의 왕관과 우리가 들고 있는 갈쿠리와 바꾸자고 하는 천사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짐승은 네 발로 걸어 다니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늘 아래만 바라보게 되어 있으나 인간은 그의 창조주의 형상과 같이 곧게 설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영혼 보살피사
버리지는 마옵소서
세상 장애 부수시고
나의 영혼 받으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찬송가 241장

누군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시로 옮겼습니다 :

눈을 들어 높은 곳을 바라다 보며,
천사의 날개를 타고 헛빛이 오는
그 꼭대기로 오를 수 있기를
내 영혼은 갈망하며 노래한다.
비록 나는 계곡의 시내가 굽이치는
이 곁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하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 눈을 둘 때마다
나는 더욱 더 강해진다.

세 번째 성공의 이야기는 희랍 신화에 있는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아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피그말리온은 사이프러스의 조각가로,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작품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 일대의 위대한 조각을 만드는 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상아로 아름다운 여인을 새겨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개성을 불어 넣는 것 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서 마침내 그는 조각을 완성하였습니다. 피그말리온이 자기 작품에 쏟아 넣었던 혼신과 사랑이 너무나 지극했기 때문에 신은 그 조각이 숨

쉬고 움직이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자고 결정했습니다. 그 여자가 주춧대에서 내려섰을 때 피그말리온은 그 여자의 이름을 갈라테아로 지어 주고 그의 작품과 결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근거없는 신화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피그말리온의 이야기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작품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공의 이야기는 12세기 후반에 영국을 통치했던 사자왕 리차드의 이야기입니다. 리차드 왕은 십자군을 편성하여 성지를 점령하고 있던 터키군을 추방하려 했습니다. 원정은 성공하지 못하고 대왕 자신도 포로가 되어 적국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가 없는 사이 모반자들이 정부를 그들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왕은 결국 탈출에 성공하여 영국으로 도망쳐 와 그는 문장없는 갑옷을 입고 변장을 하여 신변의 안전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조용히 충실한 몇몇 부하들을 불러 모아, 영국을 올바른 통치자에게 돌아가게 하려 했습니다. 이 조그만 무리가 규합되자 그가 한 최초의 일은 톨킬스톤성을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톨킬스톤은 적의 요새였으며 그 안에는 왕의 충실한 친구요 부하인 아이반호가 부상당하여 갇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처와 심한 출혈로 침대에서 일어설 수 없는 아이반호는 성밖에서 공격 소리가 들리자, 잔호원인 레삐카에게 창가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알고 싶었던 것은 그 지휘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 났을 때 누구라도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는 레삐카에게 대장의 갑옷의 휘장이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갑옷의 휘장이나 특별한 표시로써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구조될 기회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삐카는 대장은 훈장이 없는 보통 갑옷을 입고 싸우고 있으며

신분을 알 만한 휘장이나 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반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말해 주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요” 그 말은 즉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지문을 지니고 있듯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행위가 그를 증명하는 열쇠가 된다는 말입니다. 레삐카는 이 훌륭한 기사—문장없는 검은 갑옷에 무거운 도끼를 휘두르며 거의 한 손으로 이 요새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 기사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레삐카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벽에서 돌멩이와 대들보같은 나무가 그에게 쏟아지지만 그는 마치 영경퀴위에 떨어지는 깃털이나 날개털같이 다루고 있어요. 마치 한 팔에 스무 명의 장사의 힘이 있는 듯이 싸우고 있어요. 한 사람의 팔과 심장이 저와 같이 수백 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는 것을 보니 두렵기도 하고 장엄하기 조차 하군요.”

리차드 왕의 팔이 다른 보통 무사의 팔보다 특별히 더 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힘이 생긴 곳은 팔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팔과 심장”이라고 레삐카는 말했습니다. 리차드 왕은 심장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영국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정신을 쓸기 시작하면 일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반호는 레삐카의 설명을 듣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리차드 왕 이외에는 그와 같이 싸우는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반호는 왕이 지금쯤은



외국의 옥에 갇혀 있다고 믿었으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그 지휘자에게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그의 위대한 성품을 깨닫고는 레삐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거나와, 이같은 싸움터에서 저 위대한 사람옆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싸울 수 있다면 십년이라도 포로 생활을 참아내겠다.” 갇혀 있다는 것은 아이반호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었으나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대의를 갖고 위대한 사람의 것발 아래서 싸울 수 있는 특권을 얻기 위해서라면 지하 감옥에서 십년이라도 견디겠다.”

우리는 위대한 대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의입니다. 해답받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질문이란 “어떻게 싸울 것인가?”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흄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교성 4:2)

이제 특별 보너스로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성공의 이야기 하나를 30초 동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최초의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리,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의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라”(교리와 성약 76:22-24)

우리가 해의 영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리워 올려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이 주께 합당하도록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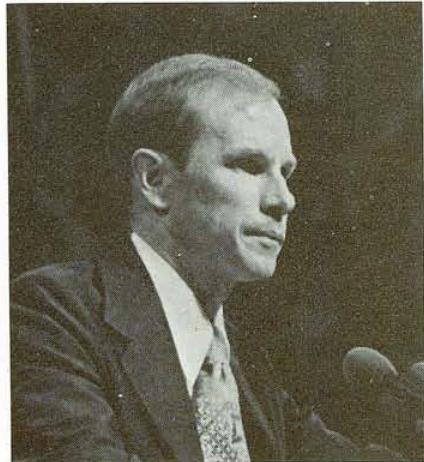
진 알 쿡 장로
칠십인 제일 평의회

이 단에 서기까지에는 참으로 긴 여정을 거쳐 왔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의 가슴은 벅찹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저의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전에 “오늘 준비는 다 되셨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내의 이 말은 종일 저의 마음에 울리면서 저 자신이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너무 늦은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난 34년은 오늘을 위한 준비가 아닌 이미 지나간, 많은 어제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는 저와 저의 가족에게 가까운 분들—신권 지도자, 선교부장들, 제가 여러 해 동안 일해 왔던 칠십인 제일 평의회의 훌륭하신 형제님들에게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제, 수많은 이론 아침, 수많은 진 시간에, 대부분의 투쟁을 싸워 이겼다고 느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실 형제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스쳐 갑니다. 그것은 앤마가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앤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회개를 가르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르칩니다. 가르쳐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고 마음을 낮추도록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모든 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도움을 구하고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이 주께 합당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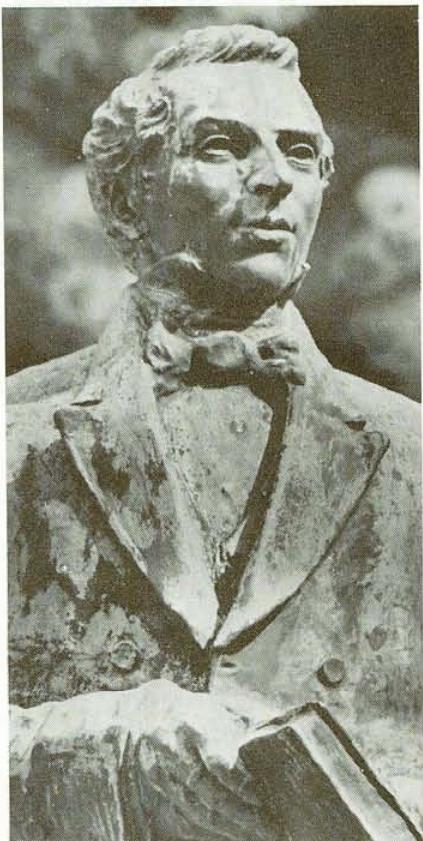


도록 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뜻대로 하며 너의 생각하는 것도 주의 뜻을 따르게 해야 할지니, 너의 마음의 사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지니, 주께서 너희를 선으로 인도하시겠음이라, 네가 밤에 누울 때 주님과 함께 하면 잠자고 있을 동안 주께서 너를 살펴 주실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너희 마음이 가득차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할진대 마지막 날에 높이 들리우리라.”(암마서 37:33, 36-37)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증드리노니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 이의의 것에 둔다면 마지막 날에 들리워 지리라는 약속을 성취할 수 없음을 저는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 지구 상의 유일한 교회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킴볼 대관장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간증합니다. 또 저의 노력과 시간과 능력과 재력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나 이를 전한 형제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예언자 요셉 스미스,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그의 교회를 회복하셨다; 마흔리 영의 요셉 스미스상, 텁풀스웨어.

전세계에 고하는 경고의 말씀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 사도 평의회 회장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진멸당하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모든 백성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겸 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단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힘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일에 그의 복음을 회복하시고,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습니다.

“들으라, 오 너희 내 교회의 백성들아 높은 데 거하여 모든 사람을 굽어 보시는 이의 음성이 말하노라.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다.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교리와 성약 1:1-2, 4)

오늘 나는 온 세상의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책임을 받은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경고와 간증의 말로 교리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이사도 평의회를 구성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온 세상 사람 앞에서 간증하고 온 세상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똑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역을 끝낼 무렵에 주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나의 복음을 즉시 엄숙하게 선포하라... 세상의 네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과... 널리 흩어진 세상의 모든 국민에게 향하여 선포할지어다.”(교성 124:2-3) 그는 사람



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야 했고, 그들과 함께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1845년 4월 6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것과 똑 같은 심적 상태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그의 형 하이람과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피를 흘린 후, 곧 십이사도 평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에게
미합중국의 대통령 각하에게

여러 주의 지사에게
그리고 모든 국가의 통치자와 국민에게 고함 :

그들은 그 선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는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왔음을. 고대 예언자가 예언하고 예나 이제나 기도하였던 바와 같이 하나님 왕국이 온 세상을 채우고 영원히 서리라는 것을.

“위대한 엘로힘은... 다시 한 번 기뻐하며 하늘에서 말씀하셨으며, 시현

을 보여 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가르침으로써 기쁘게 지상의 인간과 교통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위대하고 영원한 대신권과 사도의 직분이 회복되었느니다.

“이 대신권과 사도의 직분이란 하나님 왕국의 열쇠와, 지상에서 매번 하늘에서 배고, 지상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관리, 의식, 조직, 행정 등에 관한 모든 것을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여러 예언자들이 말했던 모든 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또 인자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말일에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 왔음을 간증합니다. 이제부터 멀지 않은 미래에 모든 백성과 통치자는 영광과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구세주를 볼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절대자 앞에서의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회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한 심령과 죄를 깊이 뉘우친 마음으로 예수께 와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 침례를 받으십시오. (침례란 땅에 묻힐 같이 물 안에 묻히어, 부활처럼 새로운 생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비의 위대한 마지막 경륜인 성신의 은사를 사도와 장로의 암수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에게 우리 간증

이 진실함을 간증해 주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주어, 예언과 계시의 영을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이해와 기억에서 사라진 것들을 돌이켜 오게 하여 앞으로 있을 일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의식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성령의 빛과 신성한 사도의 직분과 신권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은 이해의 눈이 밝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피해, 인자 앞에 설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술한 교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요 복음임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하고 영원하며 불변의 복음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지상에 계시된 유일한 계획임을 간증합니다.”(대관장단 메시지 1: 252-54)

우리는 이 선언문에 선포된 위대한 진리를 재확인하고 다시금 세상에 그 것을 선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의 국민과 통치자에게 우리는 엄숙하게 다시 선언하거나와 하나님 아버지가 지상에 말일의 왕국을 세우시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천사가 다시 지상의 인간과 교통하였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친히 나타나시어 그의 자녀들이 승영에 이를 수 있도록 필요한 신성한 의식을 행할 권능, 즉 신권을 지상에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의 교회는 고대인이 가졌던 영적 은사를 가진 채 다시 백성들 가운데서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무서운 날이 가까왔습니다. 이 큰 날을 예비하고 또 내리 닦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영감의 말씀은 예로부터 지금도 땅 위의 온 백성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온 국가에 간증과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땅 위의 나라들은 죄많고 불의한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지식은 처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사람의 자녀를 축복하는 데에 사용되는 대신 파멸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계속하려는 노력도 헛되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인간의

사악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지상에서 없어졌다는 엄숙한 증거가 되었읍니다. 죄 안에서 국가는 존립할 수가 없고 붕괴되고 말 것이나 오직 하나님 왕국만은 영원히 존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서 우리는 여러 국가의 지도자에게 말하거나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그의 영감과 인도를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통치자와 국민이 함께 그룹의 악한 길을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의 용서를 구하고, 그의 왕국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는 셧기고, 마음의 화평을 얻게 되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영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간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거절한다면 악인에게 언약된 무서운 심판과 재난이 우리의 것 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로우심으로 그것을 피하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의 종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집니다. 만약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멸망의 천사는 그 힘을 뻗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벌의 손이 이들 백성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 황폐, 무수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통치자와 국민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악한 길에서 되돌아 서지 않을진대 마지막 대전쟁보다 더 무섭고 더 강력한 파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직 부도덕, 비밀 살인 결사단, 낙태, 계명과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에 대하여 엄한 벌을 내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죄 안에서 견딜 수는 없습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명백합니다.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 나라에서 확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과 국가가 그 율법대로 살기를 거부하면 정벌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들은 셧기워 버려질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릅니다.

경고의 말씀에는 항상 간증이 함께 따르게 됩니다. 1845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선포한 위대한 선언문에도 간증이 밝혀졌으며, 오늘날의 사도인 우리들도 그것을 우리의 간증으로 새롭게 합니다.

“살거나 죽거나, 속박의 몸이 되거나 자유의 몸이 되거나, 우리는 말하노니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신권과 사도직과 하늘 나라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어, 고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메리카 민족의 기원과 기록, 그리고 그들의 미래의 운명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과 그에 따른 은사와 축복과 의식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로 이방인에게,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잔류민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진리를 알지 않으며… 모든 살인, 거짓, 오만함,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 배춘, 음란 등을 버리지 않는다면 지상에서 소멸되어 지옥으로 던지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복음이 간증으로 모든 국민에게 전파될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예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이 지상을 통치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는 영광속에 오셔서 악인들을 멸하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

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우리는 만 백 성에게 말하거니와,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받고 진리를 알고 이스라엘 지파로 헤아려질 것입니다.”(대관장단 메시지 1: 263-64)

마지막으로 나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시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의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두 축복해주시고 싶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만형이시며, 바로 세상의 창조자요, 구세주이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님은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상에 그의 나라를 세우시며 그나라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지상을 통치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의 왕으로 임하게 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으로 하늘로부터 나타나시어 요셉 스미스에게 왕국-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을 세우도록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 사업을 성취하였고, 기초를 놓았으며, 말일의 위대한 사업을 계속할 열쇠와 능력을 교회에 주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비록 진리의 순교자로서 살해되었으나 아직도 모든 복음의 경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 말일의 경륜의 머리되시는 분으로 영원히 살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의 모든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감이 오늘날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권능을 느끼고 있읍니다. 나는 대관장단과 다른 총판리 역원들이 그들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녀들의 승영에 두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모두에게 닥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내가 궁극에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모든 사람과 함께 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일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간증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모든 사람이 이에 유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 말씀

미국의 앞날

매리온 지 룰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무한한 노고를 무릅쓰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독립 200년 기념이 가까워 오자 이러한 질문이 자주 제기되곤 합니다. “앞으로 200년 동안도 기본적인 자유, 평화, 번영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긍정입니다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법 중에서 기초적인 사항을 이미 십계명, 산상수훈, 두 가지 큰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읍



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 37, 39)

수천년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지 아니할진대 아무도 이 땅에 [그는 미대륙을 말한 것입니다] 이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땅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오실 자를 위해 성별된 땅이라. 주께서 내리신 계명대로 주를 섬길진대 자유의 땅이 될 것임에 아무도 속박되지 아니하리라...”(니이 1: 6-7)

고대 예언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땅은 복된 땅이라 이 땅을 어느 백성이 차지하게 되든지 이 땅의 하나님 곧 그 나타나심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진대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것이요, 종된 것에

서 자유롭게 될 것이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자유롭게 되리라.”(이더 2:12)

저는 고대 미대륙의 거주했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미리 선포된 하늘의 뜻이 그대로 실행되어 온 사실을 지적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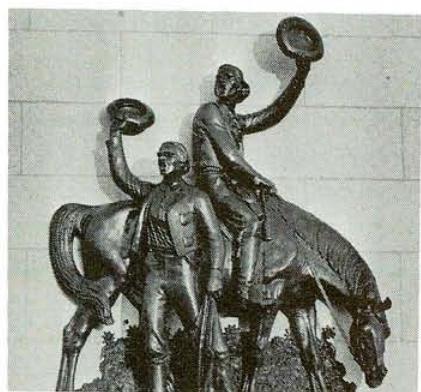
뉴욕주 팔마이라 부근 서쪽에 “구모라 언덕”(몰 6:6)이라고 불리우는 산이 하나 뚜렷이 보입니다. 지난 7월 25일에 그 산 봉우리에 서서 사방에 뻗친 기막힌 전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25세기 전 쯤에 이 근방에서 대야벳 국가에 종말을 가져온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상기했습니다.

물본경을 아시는 여러분께서는 시즈가 이끄는 군대와 코리엔툼오어가 이끄는 군대 사이에 마지막으로 형제간의 혈육 전쟁을 하여 코리엔툼오어의 백성이 “이백만 명”이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참으로 이백만 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죽임으며 저들의 처자가 또한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더 15:2)

싸움이 격화되자 살아남은 백성들—군사들은 “아내와 자녀들”(이더 15:15)까지 합하여 구모라 언덕에 모였습니다. (이더 15:11 참조)

“...코리엔툼오어의 편을 드는 백성들은 코리엔툼오어에게로, 시즈의 편을 드는 백성들은 시즈에게로 각각 모여 드는 것을 보았느니라.

“...남자나 여자나 어린 아이들까지



솔트레이크 제곡으로 들어 가면서 주님께 호산나를 외치는 을슨 프랫과 에라스터스 스노우; 마흔리 영의 ‘바로 이곳이다’ 기념비.

도...온갖 전쟁 무기로 무장을 갖추게 한 후에 서로 적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 온종일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하였으며

“밤이 되어 피로하매 저들이 각기 진영으로 돌아갔고 진영에 돌아가서는 잃은 백성을 찾고자 하며 올부짖으며 애통했”던 것입니다(이더 15:13, 15-16)

똑같은 일이 날마다 반복되었으며 마침내, “코리엔툼오어와 시즈만을 남기고는 모두 칼에 맞아 쓰러졌다”입니다. 시즈는 “피를 많이 흘려 기진”하였습니다.

“이에 코리엔툼오어는 칼을 칪고 잠시 쉰 후에 시즈의 머리를 잘랐느니라.

“코리엔툼오어가 시즈의 머리를 자르고 나자 시즈가 팔을 칪고 일어나더니 다시 쓰러졌고 잠시 숨을 쉬려고 죽었고,

“코리엔툼오어도 땅에 쓰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느니라.” (이더 15:29-32)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 “내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세우는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이 땅 위에 없을지라...” (이더 1:43)고 하셨으며 한때 부강했던 야벳 백성의 잔류자가 구모라 언덕의 기슭에서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구모라의 봉우리에서 이 비극적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아름다운 땅으로 복구된 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의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곧 해답을 얻게 되었는데 그들이 멸망하기 1500년 내지 20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은 바벨탑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의로운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땅으로, 다른 어느 땅보다도 복된 땅이었더라.

“또한 주는 진노로써 야벳 형제[그 백성의 지도적 예언자]에게 맹세하신 그 때부터 영원토록 반드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가득한 주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하여 저들을 쓸어 없애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이 땅이 약속의 땅임이라. 어느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가 임할 때 저들을 쓸어 없앨 것이요, 저들의 죄악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가 임하리라.

“보라 이 땅이 모든 땅 가운데서 으뜸되는 땅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을 차지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쓸려 없어지리니,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이라.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해 질 때에 쓸려 없어지리라.” (이더 2:7-10)

미국 땅에 관한 이러한 명령에 따라 야벳 백성은 지상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불응하여 “죄악이 무르익”었으므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고대에 의롭게 발전하여 위대한 국가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셨으나 사악함으로 타락하여 마침내 죄에 무르익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쓸려 없어진 백성은 이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적한 대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점을 말씀하셨고 경전에도 이렇게 써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실진대 아무도 이 땅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땅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오실 자를 위해 성별된 땅이라 주께서 내리신 계명대로 주를 섬길진대 자유의 땅이 될 것임에 아무도 속박되지 아니하리라. 만일 속박된다고 하면 이는 저들의 완악함이니, 완악한 것이 일 때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나, 의인은 영원토록 축복을 받으리라.”(네이 1:6-7)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에

거한 두 번째 백성은 B.C. 600년 경부터 A.D. 400년까지 미대륙에서 번성한 니파이 백성입니다. 이 백성도 애인과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고통을 겪은 기사에서 다음 귀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니파이 백성의 역사가였던 몰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인 니파이인들의 멸망에 관한 기사를 끝마치노라. 우리가 레이맨인들에게로 진군하여 나아가… 구모라 땅으로 진군하여… 남은 백성들이 모두 구모라 땅에 모였고… 나의 백성들은 처자들과 더불어 레이맨인의 군사들이 저들을 향하여 진군하여 음을 보고, 모든 간악한 자들의 가슴을 채우는 끔찍한 죽음의 공포를 안고 적과 마주칠 때를 기다렸으며,

“드디어 저들이 칼과 활, 화살, 도끼 등 온갖 무기를 들고 나의 백성들에게 덤벼들어,

“내가 거느린 만 명을 베어 넘겼고 나도 부상을 입고 그 가운데 쓰러졌으나, 저들이 미처 내 목숨을 끊을 새도 없이 지나쳐 갔으며,

“이와 같이 저들은 스물 넷을 제외한(이들 가운데 나의 아들 모로나이가 있었느니라) 나의 모든 백성들을 베어 넘기고 지나간 후, 죽은 자 중에 살아 남은 우리들은… 구모라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니 [230, 000]명의 나의 백성들이 베어져 넘어진 것이 보였고

“…나와 함께 하던 스물 넷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남방 땅으로 피한 자가 몇몇 있으며 레이맨에게로 모반하여 간 자가 몇 있었더라…

“…나의 심령은 찢기는듯 비통하였던지라 나는 부르짖어 이르기를,

“오 너희 아름다운 백성들아, 어찌 너희가 주의 길을 떠났더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들 가운데 서시어 팔을 빌려 너희를 맞으시려 하던 예수를 거절하였더냐!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던들 폐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

“오 너희 사랑스런 아들과 딸, 아비와 어미, 남편과 아내들아, …너희

가 어찌 폐망하였느냐!

“오, 너희가 이 커다란 폐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였더라면 얼마나 다행하였으라”(골 6:1, 4, 5, 7, 9-11, 15-19, 22)

모로나이는 얼마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나 모로나이는 나의 부친 몰본의 기록을 끝맺노니…

“구모라의 대격전 이후에, 보라 남방 땅으로 피해 달아난 니파이인들은 레이맨인들에게 탐색되어 결국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나의 부친 역시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내가 다만 홀로 남아 나의 백성들의 슬픈 멸망의 기사를 기록하노라”(골 8:1-3)

애인과 니파이 백성들의 비참한 최후로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증명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임이라. 어느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가 임할 때 저들을 쓸어 없앨 것이요, 저들의 죄악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가 임하리라”(이데 2:9)

모로나이는 이러한 지식을 적고,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 너희 이방인들아(몰본경의 예언자는 이방인이라는 말로 오늘날 미대륙에 사는 사람과 그들이 이땅에 오기 전에 살던 땅의 백성들을 일컬었읍니다) 이 기록이 너희에게 전하여 짐은 너희로 하나님의 명하심을 알게 하려 합이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 짓기를 그쳐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게 하여 이 땅에 거하는 너희 주민들이 행한 바로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 합이라.

“보라 이 땅은 복된 땅이라 이 땅을 어느 백성이 차지하게 되든지 이 땅의 하나님 끈 그 나타나심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진대,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것이요, 종된 것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자유롭게 되리라.”(이데 2:11-12)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실 진대 아무도 이 땅에 이르지 못하리라”(이이 1:6)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첼럼버스는 1492년에 주님의 인도로 미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B.C. 590년에서 600년 사이에 니파이는 시간의 흐름을 시현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한 사람이 이방인들 [여기서는 유럽 국가를 말합니다] 가운데 썼는데 큰 물로 인하여 [이 약속된 땅에서] 떨어져 나와 썼더라,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심에 저 큰 물을 가로질러 약속의 땅에…나아 가니라.

“내가 또 보니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임하심에 저들도…바다를 건너 가더라.

“이방인의 무리가 약속의 땅에 있음을 보았고”(니일 13: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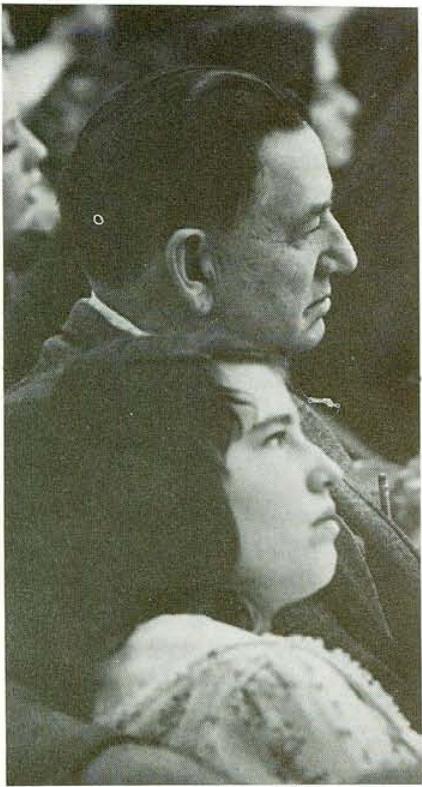
첼럼버스 자신도 자기가 주님의 인도를 받았었다는 사실을 확증했답니다.

“이사벨라 여왕의 어전에서 어빙(그의 전기 작가)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는 자기도 놀랄 만한 능변으로 열성을 기울여 자기의 계획을 밝혔으며 후에 그는 자기가 ‘높은 곳에서 보내어진 불로 타올라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늘이 택한 자’라고 생각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버지의 자서전에서 그의 아들 페르난도는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념을 주셨고 나중에는 용기를 주셔서 기꺼이 탐험을 맡아 하게 되었읍



예언의 계곡을 들여다 보는 어린 소년; 마흔 리 영의 '바로 이곳이다' 기념비.



니다.’

“쥘럼버스의 의지는 이러했었습니다.

“거룩한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내가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면 스페인에서 인도까지 항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영감받았고 후에는 그 생각이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나파이 로엘 모리스 저, 요셉 스미스의 예언과 그 성취, 데저트 출판사, 1945년판 289, 294-95 페이지, 꼬딕체 참가됨)

쥘럼버스가 하나님의 인도로 이 대륙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선택된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독립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의로운 노력이면 무엇이든지 성공시켜 주셨습니다. 미합중국의 헌법은 “실로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세운 [주님] 혁명한 자의 손을 빌어” (교성 101 : 80) 제정된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땅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니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지상의 구석구석까지 교회의 대리자를 보내 왔으며,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새로이 계시하셨으며 고대에 주신 명령을 몇 번이고 반복하셨습니다. “이 땅이 모든 땅 가운데서 유품되는 땅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을 차지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쓸려 없어지리니,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이라.” (이더 2 : 10)

이 지식이 계시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심을 알게 하려 합이요, [우리가] 회개하여 죄 짓기를 그쳐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게 하며 이 땅에 거하는 [우리가] 행한 바로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이더 2 : 11)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절정을 맞게 되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가까와 오는 일파, 지금부터 그때까지 지상에 거하는 자를 위해 계획된 바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144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없이 악인에게 쏟아지는 그 날,

“주의 음성은 땅 끝까지 미치리니,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들을 수 있느

리라.

그분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준비하여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십이다.

“또한 주께서 진노하시고 주의 검이 하늘에 셧기웠은즉 땅의 주민 위에 떨어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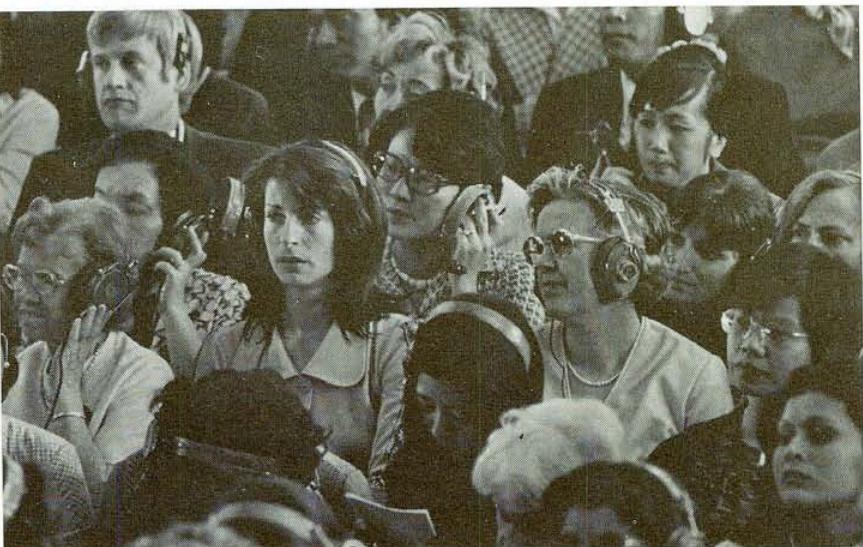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작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때가 임박하였도다.

“그러나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교성 1 : 9, 11-13, 35-36)

그러므로 전 세계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회원이거나 비회원이거나를 막론하고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다가 올 일이거나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명백하여 잘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여 지상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죄악에 무르익을 때까지 율법을 거스릴 것인가 하는 것 만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이 땅에서의로운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합니다. 아멘.



악에 맞섬

고든 비 헝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 연단에 서서 말씀드리는 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성신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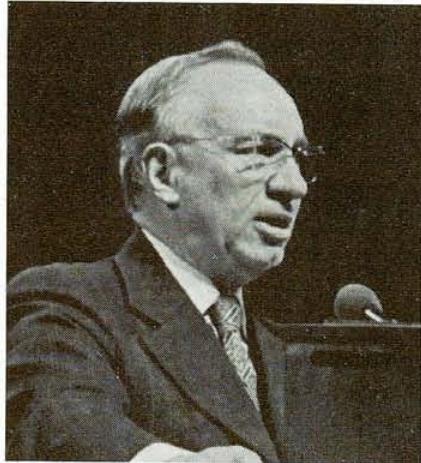
최근에 청년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용모가 수려하고 훌륭한 학생이었으며 태도도 품위있었는데, 내적으로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비도덕적 생활에 물들해 왔으나 지금은 그 점에 대해서 무척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라고 나는 물었습니다.

그는 새끼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가 아주 자랑스럽게 보여 준 그 반지는 다이아몬드 반지였는데 금으로 가장자리를 아름답게 장식한 것이었습니다. “이 반지는 할아버지 반지입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늙으시자, 장남이었던 아버지에게 물려 주셨고 다시 그것을 아버지께서 장남인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느날 이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제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 반지를 누구에게 물려 줄려고 하니? 아마 물려 줄 사람이 없으니 네가 마지막 임자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의 동요를 느꼈습니다”라고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라고 자문했습니다. 빛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환경과 그가 자라난 가정과 그가 사귀는 친구들과 그가 읽는 책이



나 잡지와, 그가 보는 영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비슷하거나 더 나쁜 환경에 처해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집으로 걸어 오면서 저는 현재의 생활 태도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 조부의 반지를 물려 줄 자신의 아들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 그 청년의 불쌍한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암담함을 느꼈기 때문에 도움을 호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나는 아직 읽지 않았던 조간 신문을 집어 들었습니다. 죽 읽어 내려가다가 영화 광고가 눈에 띄었는데 그 대부분은 퇴폐적이고 폭력과 성을 유발시키는 공공연한 장면을 실고 있었습니다.

내게 도달된 우편물 중에서 다음주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조그마한 잡지를 보았는데 대부분이 영화 광고와 똑같은 목적으로 마련된 쇼의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밖에도 새로 발간된 잡지가 나의 책상 위에 놓여 있

었습니다. 특집물은 1963년부터 1973년 사이에 인구 증가율이 11 퍼센트인 데 반하여 폭력 범죄가 놀랍게도 174퍼센트 증가한 것을 그래프로 표시함으로써 급증하는 범죄율을 특별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경찰력을 증가시키고 감옥을 보다 확대하는 데 수십억불을 투입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음화가 범람하고 성과 폭력이 과도히 강조되고 있는 현상은 비단 이 나라에만 특유한 것은 아닙니다. 유럽과 그 외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생에 관하여 텐마아크에서 제작한 음탕하고 에로틱하며 불경스러운 영화가 뉴스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암담한 현상은 사회 조직 자체의 부패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입법부와 사법부도 이러한 물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도덕적 문란에 대한 법적 규제는 국회의 입법과 입법부가 제정한 사법부의 견해의 번철에 의해 점차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소위 말하는 사생활에 있어서의 선택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이와 같은 자유는 파멸로 이끄는 타락된 행동과 습관에 사로잡히게 하는 슬픈 결과만을 초래해 왔습니다. 오래 전에 어느 예언자는 그 과정을 이와 같이 적절하게 표시했읍니다.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니이 28:21)

반면에 세계 방방곡곡에 훌륭한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매우 민족스럽습니다. 대체로 남편은 아내에게 충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충실히 합니다. 자녀들은 온전,

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운데서 키워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 세상에 희망이 없지는 않다고 믿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폭력과 추악함이 우리를 압도하게 하거나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지금 힘차게 일하고 있는 의로운 소수의 힘에다가 내가 언급한 사실들이 충분히 힘을 합친다면 악의 파도가 아무리 높고 거세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말일정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은 이러한 악과 맞서는 싸움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작이 있다면 지금 그 시작을 합시다.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합시다. 세계의 개혁은 자신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 개조에도 이러한 기본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신앙개조 13조)

우리가 덕있는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유덕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실제의 생활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일삼기 쉬운 설교에 치중하는 것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더 높은 단계에 서 있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끌어 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은 덕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위대하고 신적인 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주하고 음란한 요소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뒤아 나갈 수 있습니다. 앤마는 그의 아들 헬라멘에게 “하나님을 바라 보아 살도록 하라.”(마 37:47)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에서 군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은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마 5:8)

“어느 현자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스스로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인이 한 사람 줄어드는 것입니다.”

세익스피어는 그의 작품의 인물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 자신에게 참되시오. 그리하면 밤이 지난 후 낮이 오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될 수 없을 것입니다.”(햄릿 1막 3장 78-80)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음란한 생각을 정화시키고 덜 있는 행동을 모범으로 보이며, 순화되고 향상되는 말만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홀륭한 미래는 홀륭한 세대를 키움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이행할 책임이 부모에게 놓여 있습니다. 가정은 덕이 짱트는 요람이며, 성품이 형성되고 습관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가정의 밤은 주님의 길을 가르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독서를 할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잡지, 신문 등을 읽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좋은 책을 읽는 취미를 갖게 하십시오. 자녀가 어렸을 때에 위대한 이야기를 읽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영원토록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좋은 책을 보이십시오. 아무리 작더라도 집안 한 구석에 자리를 마련하여 자녀들에게 위대한 마음을 키워 주는 양서를 몇 권 놓아 두십시오.

교회에서 발간한 잡지를 집안에 놓아 두면 자녀가 기품있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면에 온통 인격을 저하시키는 광고나 기사가 없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알리는 절좋은 가족 신문을 자녀에게 읽히십시오. 극장에서 좋은 연극이나 영화를 상연하면 가족이 함께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오락물을 제작하려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결과도 가져옵니다. 생활을 재미있고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유력한 대중 전달 매체인 텔레비전도 이용하십시오. 텔레비전은 좋은 프로가 매우

많지만 역시 선택해서 시청하여야 합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어제 텔레비전 프로 구성에 관하여 중요한 저녁 시간에는 적합한 가족 오락물을 방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좋은 프로에 대한 여러분의 갈채와, 나쁜 프로에 대한 불만을 깨닫게 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이 요청하는 일조차 소홀히 하며 더구나 좋은 점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음악이 들리게 하십시오. 실패 자녀가 음반을 갖고 있는 경우에, 여러분은 그들의 음악은 아예 음악도 아닌 어떤 것으로 간주해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종종 더 좋은 음악을 들려 주십시오. 그들이 홀륭한 음악을 감상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 보다 더 큰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로씨가 아니라 느낌으로 알게 될 것이며 그 영향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세째는, “사회의 여론은 소수의 진지한 사람의 주장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면전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도전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신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진지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우리의 확신을 표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슬픈 사실은 보다 많은 자유를 부르짖고 음화에 탐닉하며 음탕한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을 활발히 표현한 결과 결국은 입법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다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믿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표현합시다. 커다란 목소리가 아니라 진지한 노력과 강한 느낌을 알리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감동깊게 쓴 편지나 우표 한 장으로 팔목한 만한

결과를 얻는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중책을 맡은 사람과 조용히 대화를 나눔으로써 훌륭한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고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적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교성 64 : 33-34)

무슨 일에든지 요점이 되는 것은,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세로 학교의 행정 책임을 맡은 분이나, 시, 도, 중앙 정부의 관리나, 법률과 법령과 규칙을 제정하는 분들에게 전의하십시오. 물론 문을 쟁 달아 버리거나 비웃어 버리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실망하기가 일쑤입니다. 늘 그런 일은 있었읍니다. 1783년에 에드먼드 버크는 하원에서 연설중에 인기없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읍니다.

“그는 자기 길목 여기 저기에 어떤 덫이 놓여 있는지 알고 있읍니다. 그는 자기가 제안한 의제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했읍니다. 참된 영광을 구

성하는 필요불가결한 요소는 육설과 비방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비방과 비난만이 최후 승리를 얻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존 에프 케네디’ 서문에서 인용 “용기있는 인물들” 뉴욕 : 하퍼 및 로우 저 1964년 18페이지)

사도 바울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 항거할 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님과 기적적으로 나눈 대화 중에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일어나 네 발로 서라”고 명령하신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행 26 : 16)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네 발로 서서 참됨, 선함, 품위, 덕성을 옹호하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싸울 힘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참된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읍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농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

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에 6 : 10-13)

형제, 자매 여러분, 악의 조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조류는 점점 홍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세파에서 어느 정도 멀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라가 춘화나, 음란한 것을 취급하는 사람, 성과 폭력에 도착된 사람, 비정상적 성욕을 다루는 사람에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류에 대항하여 서서 외칠 시민이 될 용기와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과거에 이러한 용기를 실천한 백성과 국가는 튼튼하여졌으며, 소홀히 한쪽은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며 우리의 조력자 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함에 따라 선한 남녀의 무리가 우리의 편이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 그 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 말씀

훌륭한 평판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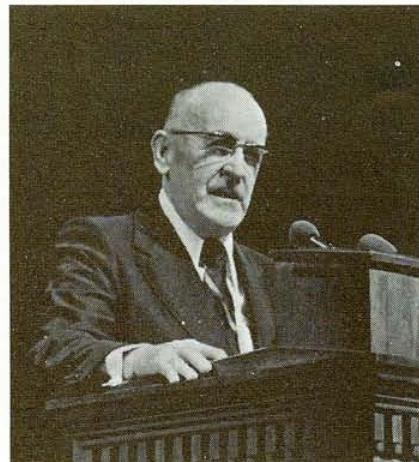
오 레스리 스토크 장로
십이사도 보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는 훌륭한 평판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단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삶을 개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많이 들었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는 일 왜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지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영



생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막 8 : 35)

우리는 자신을 위해 봉사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그의 사업과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가장 효과있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질서있게 영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실천할 때

우리는 생활에서 의와 덕의 빛을 발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을 강력하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의로와야 하는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우리의 선행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되게 하여야 하며, 우리의 모범과 좋은 평판으로 다른 사람이 삶을 개선하고 구세주의 모범대로 따르려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 이웃으로부터 자주 비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비판은 정당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비판하도록 조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전달되는 메시지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평판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평판이 그지없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열쇠가 되고, 그들의 생활에 복음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평판이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수년 전에 대설업가 한 분과 사업 관계를 맺었을 때 나는 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새로 도매업을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본을 대었고 나는 경영을 맡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그는 막대한 금액의 수표를 끊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당신은 공로를 인정받게 되고,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공로를 인정받을 것이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는 당신이 나보다 훨씬 손해를 볼 것입니다. 나는 다만 돈을 잃게 되고 그 돈보다 더 많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 괜찮지만 당신은 돈보다 더 귀한 명예를 잃게 된단 말이오.”

나는 이 대설업가가 명예를 그처럼 높이 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운이 좋아서 사업은 성공하였습니다.

경박함만 있으면서 중후함을 가장 하려 하고, 기만이 있으면서 정직을 가장하려 하며, 불의가 있으면서 덕성을 가장하려 하는 피상적인 명예로서의 평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맑게 비춰 보여 주는 창문과도 같은 평판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되려면 이처럼 고결한 생각과 성실한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에도 이런 상태에서야 우리는 가장 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기심 없이 타인 중심의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은밀히 복음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점도 역시 중요합니다. 참으로 유능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장점을 알아 모든 면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는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늘 거래를 할 때 정직하고 올바르며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알려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는 금전 문제를 정해진 날짜나 그 이전에 해결하고 말 한 마디가 계약 증서나 마찬가지인 신용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고자 하였습니다. 믿을 만하고 충실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었습니다. 진실로 나는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고자 했습니다.

때때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무슨 상관이오? 내 인생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 행동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란 서로 다른 사람과 얹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고립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홀자만을 대표한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몇몇 다른 사람이나 어느 그룹에 속해 있으므로 그들 전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을 대표하게 되며 가문에 대한 평판은 가족 각

자의 행동으로 결정됩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 대관장은 몹시 앓고 있었을 때 건강을 회복하려고 유타주 세인트 조지군에 여행했을 때의 이야기를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쇠약해져서 움직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는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나는 의식을 잃었고 저 세상에 간 것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뒤에는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고 앞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지상에서 나의 일을 마치고 되돌아 왔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나 하고 주위를 둘러 보았습니다. 내 뒤에 있는 호수와 눈 앞의 울창하고 아름다운 나무들 이외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곧 헤매기 시작하여, 거의 인적이 없고 잡초 째문에 분간하기 어려운 오솔길 하나를 숲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 길을 따라 얼마간 걸었으며 숲을 지나 상당히 멀리까지 갔을 때 마주 걸어 오는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나는 그가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가까이 가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 오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내 이름은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기 때문에 늘 그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몇 걸음을 사이에 두고 할아버지 는 멈춰 서셨습니다. 그분이 멈춰 서시니까 나도 자연히 멈추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이점이 청년들과 청소년에게 주지시키고 싶은 점입니다.— 그분은 매우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지니고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구나.”

“그러자 영사막 위에 흘러 가는 영상처럼 내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이 내 앞에서 날낱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회고는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동안에 지극히 빨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가 지나 온 전 생애가 눈 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조부님을 쳐다 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조부님의 이름을 더럽힐 만한 부끄러운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내게 다가 오시어 나를 안아 주셨고 그려는 동안 나는 다시 이 세상의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몇몇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로 베개는 물을 부은 것처럼 젖어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여러분 생각해 왔는데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후로 그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소년 소녀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교회와 전 세계의 모든 젊은이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이 물려 받은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언젠가는 그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해 왔는가를 부모님께(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해야 할 특권과 의무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지 엘버트 스미스, 복음을 나누어 가짐, 메저렛 출판사, 1948년, 111-12 페이지)

우리는 가문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 시, 도, 국가의 평판은 개개인의 행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수를 받고 일하는 직장이나 단체를 대표합니다. 학생은 그가 다니는 학교를 대표하게 됩니다. 우리는 특히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교회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전했습니까?

우리는 특별하고 성스러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게 됩니다. 매주 성찬을 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받들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겠다는 성약을 새로이 합니다.(교성 20: 77 참조)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의 왕국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대표하여, 온 세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할 특권이 있으며 선교사가 될 권리도 가집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님의 이름을 대표할 만큼 합당한 생활을 하여 그리스도의 훈계를

몸소 실천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리므로 점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 14-16)

우리가 이같이 성품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욱 밝은 빛을 주위에 비추게 됩니다. 우리의 외적인 평판은 우리의 내면의 자아를 그대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판과 내면의 자아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고 왕국 건설에 참여하는 주님의 훌륭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평판을 얻어 지속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평판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의 원리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일을 달성하기를 겸손하게 간구하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 말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함

존 에이치 반덴버그 장로
십이사도 보조

19^{25-26년 겨울, 영국의 리버풀에 있는 작은 공회당에서 영국과 유럽 대륙 각처에 배치된 선교사들이 유럽 선교부 선교부장이었던 제임즈 이탈메지 장로의 지시와 훈계를 받기 위해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 중에 이러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작은 서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익숙했던 것과는 다른 풍속과 관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을 비난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객지에 와 있는 외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손님입니다. 그들의 관습과 방법이 좋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경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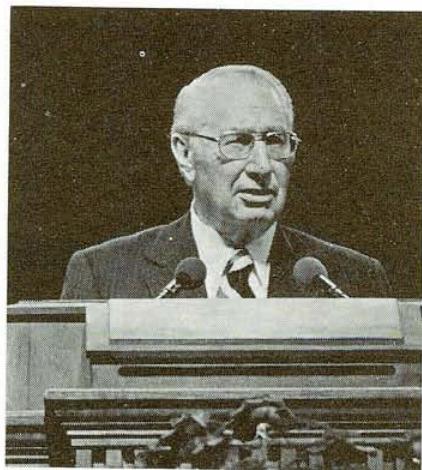
그런 풍속이 생긴 것입니다. 배우려는 눈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 당시 네덜란드로 배치된 선교사로서 나는 그 훈계가 현명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나는 관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깨끗한 주위 환경을 보았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건물과 잘 설치된 운하와 수로를 관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사람들과 사귈 수가 있었읍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크고 아름다운 교회로 줄지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의회 정치제도 하에 생활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평화하고 부유했습니다. 나는 그 나라 역사도 배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마음대로 옮겨 다니며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싸웠던 나라입니다. 또한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온 청교도들에게 피난처를 주지 못하여 그들이 수년 후에 미국 해안으로 옮겨 온 점으로 해서, 미합중국과 밀접한 유대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온 사람들은 자유를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강하여 식민지의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그 결과 그들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번영을 가져 오는 모든 관습과 경향 중에서도 종교와 도덕은 필요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인간의 가장 숭고한 의무 즉 가장 큰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국자라고 외쳐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종교가와 마찬가지로 정치가도 모두 종교와 도덕을 존중하고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심문의 도구로 맹세를 할 때 종교적 의무감을 내던져 버린다면 재산이나 명예, 생명에 대한 안정감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재판장에서 선서를 할 때에 “신에 맹세코”라는 구절을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또한 도덕이 종교없이 지속될 수 있다고 잠시 가정해 봅시다. 조직적이고 이성과 경험을 가진 지성인에 대한 훌륭한 교육의 영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교적인 원리가 없이도 국가적으로 도덕이 지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없읍니다.

“덕이나 도덕이 정부에 필요한 근원이라는 것은 일반화된 사실이다.



이 법칙은 대체로 모든 자유 국가에 적용된다. 진실한 사람으로서 누가 이 보편적 원리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무관심해 보일 수가 있을까?” (미국 역사 기록, 뉴욕 : 메리엇 출판사 1968년, 173페이지)

확실히 네덜란드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은 종교와 덕을 실천하는 데서 기인된 것입니다. 이러한 천성을 가진 사람과 사귀면서 나는 그들이 유난히 청결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집마다 전도하면서 그들이 기거하는 거처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집과 주위를 말할 수 없이 청결하게 가꾸고자 무척 노력했습니다. 길에다 쓰레기를 쌓아 두는 법이 없었읍니다. 쓰레기통을 길가에 내놓는 것을 한 번도 봄보았으며 법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었습니다. 최근 신문 기사를 읽고 아직도 이러한 풍토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뻤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국인들이 훌란드에서 맨처음으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지저분한 것들이 없다는 점이다.

“쓰레기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깡통과 낡은 신문지 조각이 도랑에서 굴러다니는 것도 볼 수 없다. 또한 주정뱅이와 골목길의 출입과, 굶어서 다 죽게 된 개, 천천히 흐르는 물에서 풍기는 지독한 냄새,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다.

“훌란드인은 불결한 것, 폐물, 추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잘 알

고 있는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것을 없앤다.” (톰 브로든, “훌란드: 생의 긴장을 제거함”, 워싱턴 포스트지, 1975년 6월 7일 A-11페이지)

집안이 겸소한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가꾸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아침에 전도를 하는 경우에는 부인이 문에 달린 낫쇠 장식을 닦거나, 집안으로 들어 가는 현관을 청소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집안 뿐만 아니라 길거리까지 비로 씁니다. 이유를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길가를 깨끗이 치우면 먼지나 더러운 것을 집안까지 문혀 들어 오지 않는다는 원리에서 생겨난 습관인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우리 마음에다 적용시킬 수 있겠읍니다. 마음속에 들어 올 수 있는 불순물을 끊임없이 문질러 닦아 내면 영혼이 악에 물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깨끗한 습관을 보고 나는 소년 시절에 매일같이 세수를 해야 하는 일을 계울리 했을 때 듣곤 하던 훈계가 생각났습니다. “청결은 경건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 부모님께서 내게 상기시켜 주신 훈계였습니다. 하도 자주 듣게 되어서 이 말씀이 성구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후 곧 존 웨슬리경의 설교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외적 청결과 영적인 청결은 참으로 비슷하다는 개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입시키고자 합니다. 즉 깨끗한 몸, 깨끗한 집, 깨끗한 주위 환경으로 질병을 막듯이, 청결한 마음, 고결한 생각과 행동으로 악의 만연을 막을 수 있읍니다. 이에 관해서 유대 학자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 바를 읽어 보겠습니다. “종교적 교훈은 조심성을 갖게 하며, 조심성은 정신력을, 정신력은 결백을, 결백은 절제를, 절제는 청결함을, 청결함은 경건을 낳는다.” (버튼 스티븐슨 저음, 인용문 선집, 뉴욕 : 도드와 미드 출판사, 1956년, 279페이지)

경전이나 교리는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지 못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끗한 상태에 머물게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한 계단씩 밟아 올라 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앤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끼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완전한 향해 나아가리라”(히 6:1-3 영감역)

교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경전에 써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를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곧 어디서든지 모든 인간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윤법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깨끗지 아니한 것이 그 곳에 거할 수 없음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계명을 주어 너희 자녀에게 이 일을 자유로이 가르치게 하노니 이르되,

“범법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오고 이 타락은 사망을 가져 오느니라. 너희는 물과 피 그리고 내가 만들 영으로 세상에 태어나니, 이같이 하여 흙으로부터 생령이 되었노라. 그러한 진대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하늘 나

라에 또 다시 태어나 피 곧 나의 독생자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하니, 이로써 모든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영생 곧 불사불멸의 영광을 누리느니라.

“이는 물로써 너희가 계명을 지키며 영으로써 의롭게 되며 피로써 거룩하게 됨이라.”(모세서 6:57-60)

종교 교리는 모든 사람에게 의미를 주며 진리를 확고한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신화, 미신, 가상, 상상, 혹은 인간이 만든 계율로 이루어진 교리라면 그곳에서 참됨을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회에서 도덕과 정직이 없어져 가는 것을 보는데 신앙의 개념이 물이 쏟아 오르는 샘과 같은 원리가 아니라 죽은 원리가 되어 버리고, 종교가 현상 유지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회원을 두는 데만 급급한다면 달리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 물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주어졌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인간에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윤법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깨끗지 아니한 것이 그 곳에 거할 수 없음이라.”(모세서 6:57) 예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르친 후 “와서 나를 쫓으라”(눅

18:22)고 권고하셨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6-17) 구제주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결코 우리를 실족케 한 적이 없었읍니다.

복음은 개인을 지배하는 원리이며 그의 존재의 목적과 영원한 본질을 설명해 주고 그에게 확고한 인생관을 갖도록 해 주기 위해 있읍니다. 복음의 윤법과 의식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에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앞서서 취해야 할 원리는 앞에서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과정은 유대 학자들의 말씀에서 지적된 바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들을 시험해 볼 수도 있읍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바와 같은 청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데려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경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고대 예언자 모로나이가 가르친 교훈을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너희로 이 기록을 읽게 하실 때에 너희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을 때까지 주가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며 이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 10:3-4) 나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성약과 축복

윌리엄 에이치 베넷 장로
십이사도 보조

형 제 자매 여러분,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과 성약을 맺으셨고 자녀들이 그러한 성약을 충실히 하고 참되게 지키면 축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성약과 축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전에 보면 우리가 육체를 받아 태어나기 전에, 영으로 존재했으며 문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은 지혜를 갖고 있지는 않았으며, 좀더 충실히 하고 순종적이었던 영도 있어 그 결과 특별한 축복을 받아 지상에서 특별한 사명을 이루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서 3:11-12, 14, 16-19, 22-23 참조)

경전에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높은 계급 중의 하나인 천사장이었던 미가엘로부터 시작해서 택함을 받은 자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아래에서 인간 가족의 머리로 영원히 서기 위하여 첫 인간인, 아담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택함을 받은 자는 의로운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의 가장 충실한 아들이었던 셋파, 혈통이 노아와 메시야로 연결될 것이며 그의 자손이 땅 끝까지 퍼지리라고 주님께서 약속 하신 애녹입니다. 그 외에도 대홍수 이후에 인류의 두 번째 아버지로 택함 받은 노아가 있으며 노아의 아들 셈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서 1:3, 모세서 1:34, 6:8, 22, 45-46, 뉘 3:8, 교성 29:26, 88:112-115, 78:16, 107:53-56, 116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7페이지 참조)



우상 숭배가 범람하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찬 하나님을 계속 섬기었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시험에 진실됨이 드러났으므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충실한 자손을 축복하신다는 거룩한 성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상에게 속한 권능을 지닌 정당한 후사 곧 대제사가 되었”습니다. (아 1:2) 이러한 신권의 권능은 “후손에 대하여 선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명에 따라” 충실한 후손을 통하여 이어졌습니다. (아 1:4, 교성 84:14-16 참조)

그렇다면 왜 어떤 자 만이 선택되어 신권을 갖고 특별한 사명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언자 앤마는 물론 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매우 수긍이 가는 대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안수 성임된 절차는 이러하니라, 저들은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부름을 받아 준비되었으니,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능력과 저들의 놀라운 신앙과 선행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맨처음 저들을 선과 악 중 무엇

이라도 마음대로 택하도록 버려 두셨으며, 그러한 가운데 저들이 선을 택한 다음 놀라울 만큼 큰 신앙의 일을 행하여 성스러운 부름을 받은 것 아니…

“이같이 저들이 신앙에 따라 성스러운 직분에 부름을 받는 반면”(엘 13:3-4)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전생에서 충실했기 때문에 훌륭한 조상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허락을 받았고 또한 신권을 받을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생에서의 선행에다가 지상 생활에서의 모든 시험에서 혼격하게 충실히 증명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서 2장 8-9,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은 장엄한 성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니 그려므로 나의 손은 너를 덮으리라.

“나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니 해아릴 수 없이 너를 축복하여 네 이름이 만국 백성 가운데서 크게 되게 하리라. 너는 네 자손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네 자손은 만국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는 직분과 신권을 지니리라.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와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속이 복을 받으리니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충실한 아들 이삭과 다시 이 성약을 새로이 하셨고, (창 17:19-21, 24:60, 25:11, 26:1-4 참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대하여 야곱에게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야곱은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아, 그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자녀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의 특별한 사명은 신권을 지니고, 참 하나님과 참 복음에 대한 지식을 세상에 존속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맷은 주님의 성약에는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 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누구나 양자에 의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며 그의 피가 나라마다 섞이어 복음의 특권으로 그 나라를 축복하리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녀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교성 103:17 참조) 가문의 덕성과 복음의 모든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조상—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신권의 정통적 소유자로서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의로운 생활을 하는 일에서 뿐만 아니라, 신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리고 온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사명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강해야 합니다.

신권은 다른 어떠한 재산보다도 우리에게 귀합니다. 신권 소유자인 우리는 이중으로 사명을 지닙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둘째는 구원 의식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매일 생활하면서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여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가족과 온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목적은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교리와 성약 86편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 곧 조상의 혈통을 따라 대대로 이어 내려온 신권을 지닌 너희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육체로는 정당한 상속자요...

“그러므로 너희 생명과 신권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고 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예언자의 입으로 이야기된 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너희와 너희 혈통을 통하여 반드시 보존되어야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끊임없이 나의

선을 행하며 이방인의 빛이 되며 이 신권을 통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교성 86:8-11)

신권의 권능과 힘은 성약으로 맷어진 의무를 이행해야만 비로소 발효됩니다. 아론 신권에 성임된 자는 성약에 주어진 대로 각 직분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교성 20:46-60, 107:13-14, 85-88 참조) 더 높은 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된 자는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길이 열리는 성스러운 성약을 맷게 된 것입니다. (교성 84:33-41에 설명되어 있는 멜기세덱 신권의 성약과 맹세, 참조)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며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과 영생의 계획안에 포함된 모든 약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참되게 믿는 자는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의 해의 영광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몰몬경에는 충만한 복음이 들어 있으며 그안에 주어진 율법과 교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칠헤의 성약을 통하여 우리는 조건부로 영생의 약속을 받습니다. 즉 영생의 문은 열렸으나 그 큰 축복을 얻기 전에 자신의 합당함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안식일의 율법은 출애굽 시대부터 영원한 성약으로서 여러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으며 (출 31:16) 영적이며 세속적인 축복을 둘 다 가져다 주는 율법입니다. (교성 59:9-20 참조)

성찬 의식으로 회원은 주님과 맷은 성약을 새로이 다짐하고, 그들의 신앙과 합당한 생활로 성신의 인도를 받아 축복과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성 20:77, 79 니삼 18, 7, 11, 모로 4:3, 5:2 참조)

지혜의 말씀도 약속과 함께 주어진 원리입니다. (교성 89:18-21 참조)

신전에서 우리는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신전 엔다우먼트로 우리는 지상에서의 인간의 역사와,



피로, 더위, 식량의 부족, 때때로 일어나는 비극은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마흔리 영의 '바로 이곳이다' 기념비

인간이 지상에서 기쁨을 얻고 하늘에서 승영을 얻는 길과 방법을 알게 됩니다. 신전 엔다우먼트는 또한 우리가 영원히 발전하여 우리의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에 관해서도 특별한 지식을 줍니다. 남자거나 여자거나 모두,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순결하고, 유덕하며, 진실하고 비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복음을 이웃에게 가르치는 위대한 진리의 대업에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엔다우먼트를 받고 이러한 고귀한 지식을 안 사람은 매일의 생활에 모든 지지된 사항을 지키고 수행해 나가리라는 성약을 하나님과 맷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신전에서 맷은 약속을 이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생활하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전 의식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의식은 영원토록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각각 서로 인봉하는 의식입니다. 복음에 의하면 결혼 관계는 죽음에 의해 반드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무덤을 넘어서까지 지속됩니다. 그와 같은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합이나 인봉은 교회의 대관장만이 갖는 특별한 권능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대관장님은 이러한 권능을 신전에서 일하도록 임명된 자나 그밖에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하나님의 신전에서 의식을 집행

하게 합니다.

교회의 회원 모두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충분한 연령에 도달하여 귀한 엔다우먼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과 승영의 위대한 계획을 마음 속에 새롭게 간직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신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신전에 들어가서 맷는 거룩하고 영원한 성약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도록 하십시오. 불행하게도 신전 추천 접견 때에 완전히 충실히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신권 지도자 중에는 이러한 접견을 할 때 완벽하고 세심하지 못한 사람도 있으며 그리하여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신전에 들어간 예도 있다는 사실 또한 매우 불행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매우 뜻깊은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형제의 이야기인데 그

는 아름다운 여인을 깊이 사랑하여 신전에서 그녀와 혼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받았습니다. 그후에 그는 잠시 부주의하여 심각한 범법을 저질렀고 교회에서 파문을 당하였습니다. 곧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이전 배우자였던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인봉될 수 있도록 먼저 번 신전 인봉을 취소하는 신청을 했으며, 그는 이 취소에 승낙하는가 반대하는가를 묻는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답장으로 여러 장에 달하는 긴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런 말로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저의 아내였던 그녀가 당연히 받아야 할 행복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 문장에서 그는 이전 배우자의 떠나온 것을 칭송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왜 아내와 아들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요? 다만 경솔하여 유혹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맷은 성약을 참되고 충실히 지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여 넘어간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에게 행한 죄과에 대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쓴 다음 그는 “비탄에 잠긴 사람이 드립니다.”라는 말로 끝맺고 그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선택한 일의 결과를 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증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가 예언자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의 곁에는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를 받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계십니다.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맷은 성약을 참되고 충실히 지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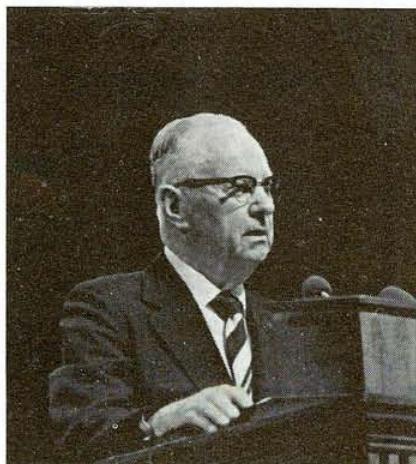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 말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세주께서 탄생하시기에 앞서 그의 탄생을 알리는 수많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고대 예언자들은 그의 탄생 이전에 나타날 사건과 그가 태어난 후에 하실 일을 묘사해 줌으로써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주이시며,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에는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에 관해 수많은 예언이 기록으로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자로서 침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눅 1:17)

그리스도의 탄생과, 일생, 사명 등



에 관한 고대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그러한 예언을 진심으로 믿었

던 사람은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따를 준비가 갖추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대 우리는 그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의심없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사명을 다하였을 즈음에 제자들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에게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실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兆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라”(마 24:3-4)

이 질문에 대하여 구세주는 그의 재림 이전에 있을 표적과 사건을 제자

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세심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바는,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며,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 위대한 표적과 기적을 보여 택함받은 자까지 속이며, 큰 환란이 일어 날 것이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기근, 온갖 질병, 지진이 있겠고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대로 황폐함을 저주하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마 24장)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사건에 관해서 경전상에 나타난 이러한 예언은 지상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경고가 되며 안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표적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침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자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의심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獨생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말일의 계시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환란, 황폐, 재앙, 온갖 파괴적 힘이 만연되리라는 사실을 재천명하셨습니다.

“그 날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온 세계는 동요할 것이며…

“또 사람의 사랑은 차차 식어질 것이요, 악행이 가득 차리라.

“그 세대에 사람들이 있어…휩쓸어 가는 징벌을 보기까지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황폐케 하는 질병이 땅을 뒤덮을 것임이니라…

“각 처에 지진과 많은 황폐가 있으리라.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내게 대적하여 겹을 들어 서로 치며 죽이리라 하였더라”(교성 45: 26-27, 31, 33)

실제로 수년 동안 이 세상에는 곳곳에서 전쟁이 있어 왔으며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이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정세 하에 있는 나라도 있으며 망해 버린 국가도 있습니다. 정당의 지도자나, 정부 관리, 기업가에게서 성실, 정직, 의로움 따위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두움과 죄악의 길로 속여 인도해 간 데 대하여 죄책감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나 예언자로 거짓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속임수로 많은 추종자를 얻고 있습니다.

기근과 질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솟아오르거나 그 심도에 있어서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 밖의 천재지변도 같은 추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실제로 공공연히 그의 제자임을 주장하고 그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을 잊거나 등진 사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적 판단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윤법을 변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마 하나님에 구식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하고 불변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피조물이 창조자보다 현명할 수가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재판정에서는 하나님의 윤법과 계명 대신 인간이 만든 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같은 상태로 남

아 계십니다. 즉 단호하고 강하시며 불변하시고,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비로 가득차 계신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세력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야흐로 인간과 국가에 관하여 지대한 세력을 멀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 뜻에만 따를 경우에는 문제가 증가되고 오해가 발생되어 결국 더 심각한 투쟁과 싸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준비하여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십이라.”(교성 1: 12)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주의 크신 날을 위하여 예비하라”(교성 133: 10)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과 충실성으로 주님의 벌을 피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완전히 이해하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과 가정을 질서있게 영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영혼을 추구하고, 잘못한 일을 인정하며, 필요한 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좋은 아내요,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의의 길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그 시간안에 나의 일을 서둘리라”(교성 88: 73)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서둘러야 합니다. 남은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일에 주님의 왕국을 서둘러 진작시켜야 한다는 감정은 공포나 당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의 빛과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 왕국을 세우고 강화시키고자 기필코 신속하



게 움직여야겠다는 욕망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고 예언자에게 사자를 보내어 자녀들이 주님의 재림 때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경고함으로써 작업을 서두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열한시라. 내가 포도원에 일군을 불러들여야 할 마지막 시작이니라.”(교성 33 : 3)

말일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구세주는 그의 왕국이 지상에 마지막으로 건설된다는 점을 궁정하셨습니다. (교성 27 : 13 참조)

예언자 다니엘은 말일에 하나님의 사업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않으며 영원히 세계 될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예시를 받았습니다. (다 2 : 44 참조)

지금은 복음의 경륜의 시대이므로 마지막 경륜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일에 세워질 그의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대적인 사탄을 비롯해서 모든 적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말일에 사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경고할 책임은 막대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려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눅 10 : 2)

이와 같이 영혼을 추수할 일군을 보내야 하는 목표에 대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는 모든 국민과 혈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증원하고 있습니다. (교성 77 : 8 참조)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재차 경고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밤에 오는 도적같이 세상에 임하리라.”(교성 106 : 4)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가운데서 외치게 하셨음이니,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저의 오시는 시각이 가까와 음이니라.”(교성 133 : 17)

교회의 성도들과 온 세상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시키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는 목표를 우리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고와 충고의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합시다.

“주의 팔이 나타나리니,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성으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

“이는 저들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님의 우상이며 낡은 것이니 바빌론 곧 멸망할 대 바빌론처럼 파멸하리라.”(교성 1 : 14-16)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하니 하거니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성 1 : 38)

주님은 백성들에게 영적이거나 세상적인 일을 설명해 주고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교회 안에 예언자, 사도, 교사를 두셨습니다. 이 지도자의 권리, 권위, 신전은 모두 구세주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려므로 하늘로부터 임명된 지도자의 충고에 따르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예언자이신 스펠서 더블류 킹볼 대관장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매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예언자라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그분

은 저의 교사이시며, 지도자요, 본이 되십니다. 저는 신앙으로 그분을 지지하며 기도로 그분을 받듭니다. 그분이 예언자로 부름받으신 사실과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읍니다. 그분은 성품이 곧으시고, 예리한 정신의 소유자이시며, 현명한 충고를 주시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며 명확한 시현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이시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언자이시며, 주님의 예언자가 주시는 가르침, 충고, 그분의 모범에 따르면 결코 길을 잘못 들지 않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일에 관해 많은 지식을 주셨습니다.

“일월 성신에게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혼들리겠음이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의 몇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눅 21 : 25-28, 34, 36)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이 성취될 날이 언제가 될지 구별할 줄 알며, 가정을 질서있게 가꾸며, 이 중대한 날을 위해 다같이 준비하도록 합시다.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예비” 시키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이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예언자와 예언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교회는 이미 성취되었거나, 앞으로 성취될 많은 예언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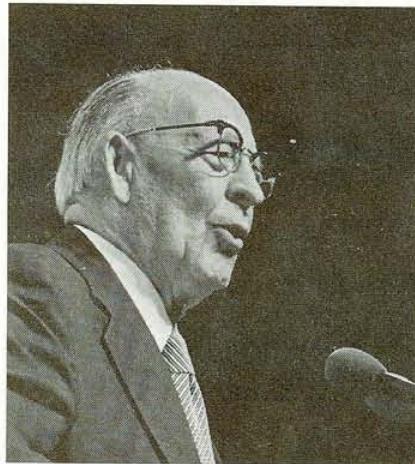
여러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연차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며,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주님의 영감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간증을 굳게 하고 교회의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감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나는 오늘 예언과 예언자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가 두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걸어 가실 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눅 24:16) 제자들은 그를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음을 알게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눅 24:25)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모세와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이 그에 대하여 증거한 것을 낱낱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성역,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웃이 제비 뽑힌 사건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시 22:18 참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 오르기 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나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벧후 1:19-21)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면 예언을 능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은 절정의 시대에 구세주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의 재림에 앞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도 예언했었습니다. 이중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7)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서 예언자가 인도하지 않은 일은 아무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예언자를 두시어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전혀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

스로부터 현재 살아 계신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에 이르기까지 예언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과 37년간 개인적으로 사귀어 왔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분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킴볼 대관장님과 같은 분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없다면 그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찾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벧후 1:19)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거듭 말하거나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예언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만큼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고 명철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7)

이러한 말씀과 예수께서 예언에 첨부하신 중요성을 믿는 진리의 추구자라면 현재 미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만 해도 700여 종파가 넘는 이러한 시대에서, 주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 주실 예언자를 모시고 있는 교회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취되어야만 할 일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다음날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행 3:19-21)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예언자였으며,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리스도를 받아 둘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므로, 구세주가 오시기에 앞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예언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개혁되거나 계속된 것이 아니라 필히 회복된 것을 찾아 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지 않았다면 회복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는 이사야의 말대로 인간의 계명을 가르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거니와,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세우시어, 기록에서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지상에 살았던 어느 예언자보다도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진리를 계시 받았습니다. 그는 구세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회복시켜 주기로 된 예언자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일례로, 느부갓네살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몽을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왕이 자신이 꾼 꿈을 잊어버려 많은 박사와 술사를 불러 알아보려 했으나, 아무도 그의 꿈과 해몽을 말한 자가 없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다 자손 다니엘을 만나게 되어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왕에게 후일에 뭘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단 2:28)

그리고 나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에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

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 할”(단 2:44) 때가 될, 말일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있게 될 여러 왕국의 흥망에 관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언자를 통해서 세우게 되는 것인즉, 예언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히 지속될 왕국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는 그 왕국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과 같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왕국은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될 것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이 왕국은 여섯 명으로 시작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결국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단 2:35 참조) 어느 종파의 신도든 현재의 이 교회 회원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예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에 따라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우던 스테이츠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한 선교사가 몇 명의 구도자가 참석한 어느 집회에서 느부갓네살왕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날 내가 문가에서 배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자기는 목사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읍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이 어떻게 왕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왕이 없으니, 왕국이라 할 수 없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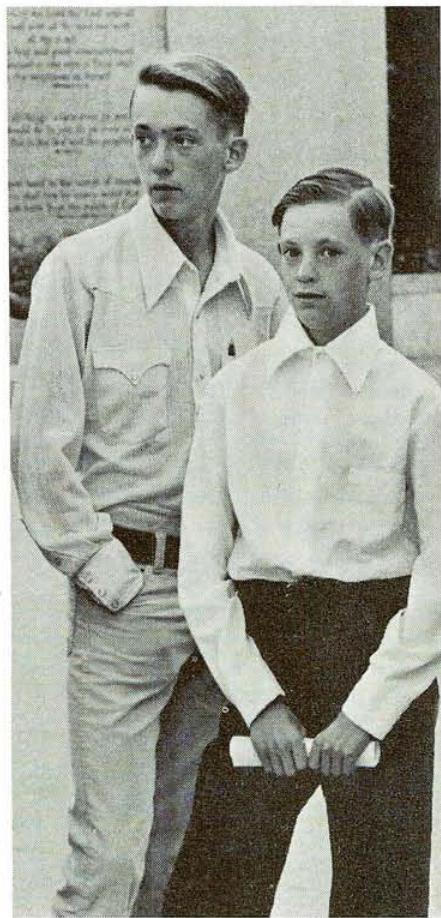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조금 더 읽어 보시지 않으신 게로군요. 다니엘 7장을 읽어 보면, 다니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는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

게 하였으니’ (단 7:1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준비된 왕국이 없다면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어떻게 왕국을 그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일성도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청년기의 일부를 바쳐 교회의 위대한 선교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십일조와 현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유이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같은 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울은 그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20)

이와 같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



람이라면 반드시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주 그리스도가 아직도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서 그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며,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나는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이외에도 많은 예언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엡 1:9 참조) 이제 주님의 뜻의 비밀이라는 적절한 말이 나왔습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0)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교회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합시키려는 계획을 찾아 볼 수 없읍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 구원자들로서 시온산에 오르게 되는가를 예언자의 예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욥 21절 참조) 우리는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요 5:25)고 하신 말씀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저 세상으로 간 수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모든 무릎이 끓고 모든 혀가 자백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고전 15:29)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일어난 또 하나의 커다란 일은 주님께서 말하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는 그의 사자를 보내시어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홀연히 그의 전에 나타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말 3:1-2) 분명히 그의 첫번째 강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전에

홀연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선한 자거나 악인이거나 모두 그가 오시는 날에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일에 오실 때는, 사악한 자들은 바위를 향해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우리를 가리우라”(계 6:16)고 울부짖으며 외칠 것이라고 써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전을 사용해야 하며, 말라기의 다음과 같은 말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말 4:5-6)

그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이 약속에 따라 엘리야가 메시지를 갖고 돌아온 것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왔습니다. 그는 1836년 4월 3일에 키틀랜드 신전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신전을 세워 하늘과 땅을 맺게 하는 이 위대한 사업의 열쇠를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이사야가 보고 말한 것도 성취시켜 주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사 2:2-3)

신전 광장에 있는 이 신전은 개척기의 선조들이 1천 마일이나 먼 곳에서 이동하여 와서 짓기 시작한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이 건물을 짓는 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초기 시절에 선교 사업을 담당했던 우리들은 내가 화란에서 직접 경험한 대로 실제로 교회에 개종해 들어 오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 5센트짜리 백통화와 10센트짜리 은화로 바꾸어, 신전의 힘에 이끌려 미국

에 와, 주님의 도를 배우며 그의 길을 걸는데 함께 참여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언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다시 이사야가 보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쳐서 그 남은 백성을…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깃진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사 11:11-12)

모로나이 천사는 예언자 요셉이 겨우 18세밖에 안되었을 때, 하룻밤에 세 번이나 나타나고 아침이 되자 다시 나타나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 구절을 되풀이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예언자 요셉이 받은 임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바를 달성하고 있는 또 다른 교회는 세상에서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대한 기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성취시키는 것을 배우고 있읍니다.

이사야는 집합에 관해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은 이스라엘이 신들메를 풀거나, 출거나 잘 시간도 없이 그들을 재빨리 모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 5:27 참조) 이 말을 수 천년 전의 이사야 시대로 소급해서 그 당시의 교통 수단과 견주어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이 일의 성취와 연관이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이 사랑하시던 스코틀랜드에 처음으로 스테이크를 조직하시기 위해 그곳에 가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후 그분은 십이사도 형제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자기는 오후 두 시에 련던을 출발해서, 시카고에 들려 잠시 그곳 형제들과 함께 한 다음 그날 밤은 자기 집에 와서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그야말로 구두끈을 풀거나 출거나 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초기에 개척자들이 시온으로 올 때 43일 동안 항해한 뒤

에 수주일 동안 평원을 횡단해야만 했던 사실과 비교했습니다. 이 집합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되리라는 것과 우리 개척자들이 실제로 그려했듯이 강 둑을 따라서 여행하리라는 것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리라고 한 예언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러한 날이 이르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렘 16:14-15)

바로 이 경전의 말씀을 입증해 주는 사실로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조직된 이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 수 있읍니다. 이제 우리는 스테이크와 신전을 만방에 세워, 주님의 백성들이 시온의 스테이크로 모여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이 많은 어부를 불러 그들을 낚게 하고, 많은 포수가 언덕과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렘 16:16 참조) 전세계의 여러 선교 지역에서 오신 여러분은 누구나 21,000명이 넘는 우리 선교사들이 마을마다,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암혈과 산에서 라고 예언자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을 모아 들이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 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렘 3:14-15)

오늘 이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주님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씩 택함을 받고 모였습니다. 오늘 이 단상에 앉아 계시는 총판리 역원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을 가르치는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어, 여러분이 주님께서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 교회는 살아 계신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것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말씀과 간증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 말씀

천국의 열쇠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보조

지난 주일 어느 날 조용한 아침에 나는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있는 내 사무실에서 나와 상파울루의 신전 부지를 향해 걸어 갔습니다. 보얀 아침의 안개가 막 걷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시가에서 약간 언덕이 진 그곳에 다달았을 때, 나는 정성들여 말끔히 치워져 있는 땅 위에 새로운 말뚝이 끊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지에 박혀 있는 이 말뚝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남미에 있는 그의 자녀들을 무한히 축복하기 위해 곧 세워질 새로운 신전의 자리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전은 현재 남미에서 있는 일반 건물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건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신전의 입구가 될 자리에서 서 36년 전 나와 동반자들이 21일간



항해한 뒤에 산토스항에서 내려 다시 기차를 타고 상파울루로 갔을 때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 배에는 당시

남미 대륙에서 비교적 새로운 선교 지역에 속했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로 가는 다른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미전역에 걸쳐 극소수의 회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개 유럽에서 개종한 유럽 이민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내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이 새롭고, 특별하여, 수백만 불의 경비가 소요될 건물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36년 전에 남미의 교회의 장래는 얼마나 불안하고 난관에 가득 차 있었는가를 회상했습니다. 우리 선교부의 전 지역에서 70여 명의 선교사들이 전력을 다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겨우 3명 밖에 침례를 주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와 물본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회는 우리가 가르치고자 한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조그만 방에서 가졌습니다. 우리는 집회를 갖기 위해 앞서 그 전날 밤 그곳에서 흥청대던 술주정꾼들이 어질러 놓은 병이나 쓰레기 등을 번번히 쓸어 내야만 했습니다. 많은 역경이 따랐으며 실망을 느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지난 해 남미에서는 8,000여명의 개종자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 넓은 대륙에 회원수가 152,000명이 넘으며, 22개의 스테이크와 17개의 선교부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이제 본 궤도에 들어 서게 되었습니다. 이곳 말일 성도의 첫 세대 중에서 부름을 받은 남미 지역 대표와 스테이크 부장과 선교 부장은 은행가, 사업가, 공장장 기타 전문 직업인들로서 매우 유능하며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다만 놀라울 뿐입니다. 분명히 이는 예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마 16:19)라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초기부터 모든 것을 보아 온 나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은 역시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 났습니다. 내가 신전 부지에 갔던 그날, 불리비아 리파스 선교부의 맥앨리스터 선교 부장은 다음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래, 우리는 교회의 발전에 다만 감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1967년에는 회원수가 300명도 채 안되었으나 이에 비하여 현재는 8,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를 받은 브래드포드 장로는 칠레에서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칠레에 있는 교회가 아직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했는데도, 나는 그 지역의 많은 지도자들의 능력과 힘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옛날에 구세주께서 주신 것과 같이, 현대의 예언자와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주 신전 부지에서, 한참 동안 회상에 잠겼던 나는 신전의 의식실이 들어 서게 될 곳으로 걸어 갔습니다. 아침의 안개가 이젠 완전히 걷혀서 저 아래 있는 상파울루 대도시의 일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그 도시에서 300여명의 회원들과 13명의 선교사들의 활동을 관리했던 때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현재 네 개의 스테이크가 있으며 약 100여명의 복음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캄피나스와 산토스에도 역시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남미에서의 이와 같은 큰 발전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수백 명의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과 혼신적인 선교 부장의 회생과 봉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는 이같은 지도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 현재 체류해 있는 136명의 선교사 중, 43퍼센트인 48명이 브라질 본토인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4명의 선교 부장은 모두 남미 출신입니다. 내가 본 것을 목격한 자라면 아무도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나는 거룩한 신전 부지에서 앞쪽을 향해 걸어 보았습니다. 나는 말뚝의 위치에서 어림잡아 인봉실이 들어 서게 될 곳을 찾아 보았습니다. 이미 그곳은 신선한 성지로 보였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흰 예복과 멋있게 조화를 이루는 갈색 피부의 젊은 쌍쌍이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손을 잡고, 꽃같이 아름다운 미소를 띠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의 권능으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기 위해 이 성스러운 곳으로 오는 것을 그려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온 가족이 합당하다면, 이와 같은 권능에 의해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인봉되고 결속되기 위하여 이곳을 향하여 올 때, 그들이 맛보게 될 큰 기쁨도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데스 산맥의 고원과 고지에서도 올 것이며, 해안에서와 큰 도시에서도 올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또한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는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합당한 회원은 인간의 영원한 여행과 각 개인의 영원한 진보와 함께 능력에 관한 의식도 받게 됩니다. 이 의식은 모든 인류에게 판매하시며, 공정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으로, 이 의식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창조주의 면전에서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그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로 발전시키게 해 줍니다.

이러한 생각에 잠기다가, 나는 어느 훌륭한 남미의 스테이크 부장이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 가게 되면, 다섯 자녀 중 두 아이만을 데리고 가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인봉받기로 자기 부인과 결정을 보았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불이 43솔(페루의 화폐 단위)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계획은 변경되었습니다. 그들은 남미에 처음으로 세워질 신전에 다섯 자녀를 모두 데리고 가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그의 동생은 이제까지 신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는 축복과 부인과 가족과 함께 인봉받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1주일 전의 그날 아침, 상파울루의 신전 부지에서, 뒤로 몇 걸음 물러나 역시 신전의 의식실이 들어 서게 될 곳에 있었습니다. 그 설계도를 여러

번 보아 왔던 터였으므로, 나는 내가 어디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설계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나는 침례반이 들어 서게 될 곳에 서 있었읍니다. 나부 신전이 건축된 이래 다른 모든 신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나타내는 열 두 마리의 황소상의 등에 침례반이 놓 이게 된 것에 대해 킴볼 대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전에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리 침례의 성스러운 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찬 자녀들이 이리로 오게 될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려 오는 사람들의 즐거움과 영생의 길에서 이 구원의 의식을 오랫 동안 기다려 왔던 사람들의 크나큰 기쁨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나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업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가 없읍니다.

이번에는 오랫 동안 기다려 온 신전의 면적을 표시하기 위해 대지에 박아 놓은 말뚝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는 전면의 탑이 얼마나 높게 올라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리비아, 파라과이 등지에서 온 작달막한 키의 무뚝뚝한

인디안들이 이 자리에 와서 바로 그 탑을 쳐다 볼 광경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 중에서 몇 명이나 이 훌륭한 건물을 아직까지 쿠스코우나 마츄 픽չ나 기타 남미의 여러 지역에 남아 있는, 그들의 조상이 지은 성전의 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그들의 기교와 비교해 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레이맨인의 후예와 기타 다른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지닌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으로 크게 교화되고 있으며 그들의 장래는 매우 밝습니다. 그들 중의 한 분이 어제 교회의 총판회 역원으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페루의 쿠스코 우에 있는 알마스 광장에 8,000명도 넘는 청중이 모여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주관한 레이맨인의 기원에 관한 강의를 경청했습니다. 그들의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남미에 곧 세워지게 될 이 새로운 신전은 그곳 사람들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위대하며 끝없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큰 희생을 의미하는 것 이기도 합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최근 국동 지역에서 최초로 동경에 신전을 건축할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희생을 바치고 힘든 일을 감수하지 않고 지어진 신전은 없었습니다.”(김볼 대관장 말씀, 1975년 8월 9일, 12페

이지)

미화 1불에 대한 폐소(브라질 이외의 남미에서 통용되는 화폐 단위), 에스쿠도(포르투갈 화폐 단위), 솔(페루의 화폐 단위), 크루제리로(브라질 화폐 단위)의 환율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달에는 철레에 있는 회원들이 상파울루 신전 건립을 위해 1,902, 178에스쿠도를 모금했는데, 이는 미화로 387. 90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땅에 임하여, 내가 청년 시절에 힘든 선교 사업을 한 때로부터 남미의 전 지역에 그대로 머물러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업은 이곳에서 어떻게 행하여지고 있습니까? 많은 문제점과 많은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교회 발전은 거의 믿을 수 없는 정도의 것입니다. 남미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은 이 지상의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교회는 범세계적인 교회로, 우리는 겨우 주님의 사업의 일부를 본 것뿐입니다. 남미에서 내가 본 것 만으로도, 나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으나, 의심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위대한 사업을 뒤에서 밀어 주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더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열쇠를 살아 계신 예언자와 현대의 사도들에게 주셨으므로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이같은 사랑은 인간의 영과 같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초기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 19)

나는 이 기이한 일이 바로 이 열쇠와 권세에 의해 온 세상에 퍼져 나가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말씀

찰즈 에이 디데이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
이 비록 교회의 교리는 아니지
만, 불란서 말은 천국의 언어라는 것
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
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면 반성하
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대회시까지
반성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
다. (주 : 디데이 장로는 벨기에 출신
총판리 역원으로서 프랑스, 스위스 선
교부장과 파리와 브뤼셀 선교부의 지
역 대표를 역임했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
이 되도록 나를 뒤에서 밀어 주시고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지지해 주신 수많은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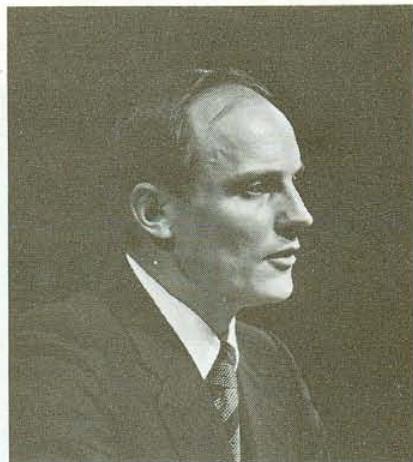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
씀만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를
내조해 주고, 나를 신뢰하며, 두 아
들의 인자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항
상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으나,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자녀에게 복음의
원리를 심어 주는 큰 용기를 지니고
계셨던 모친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회원은 되지 않았으나, 내게
항상 인생의 교훈을 택하시어 가르쳐
주신 부친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 문을 두드려 내게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침례를 주신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프랑스, 스위스 선
교부에서 함께 즐겁게 일했던 선교사
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들이
보여 준 헌신과 회생과 모범에 대하여
항상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40년 동안에 두 번씩이나내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
친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친과 조부를
비롯한 위대한 미국민들에게 감사드
립니다.

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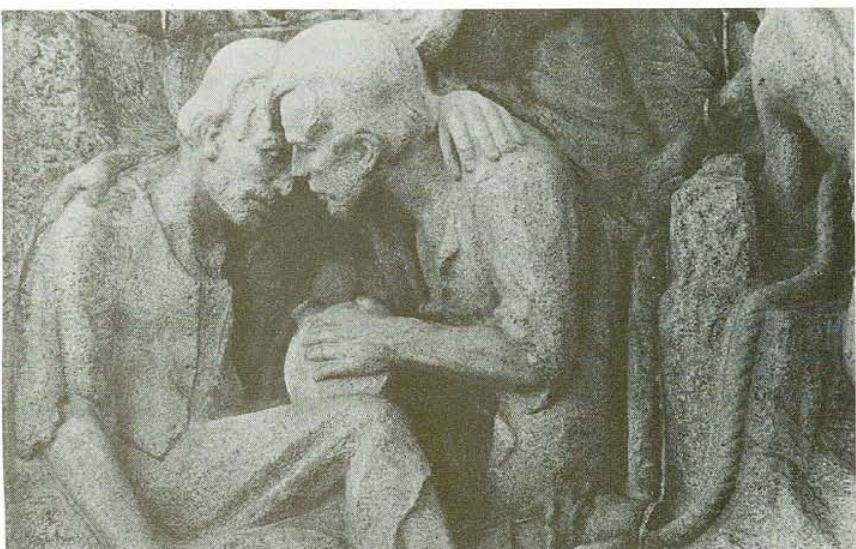
와 주신 교회 지도자와 책임자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곁에서 우
리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
내가 항상 사랑하고 존경해 마지 않는
주님의 예언자, 킴볼 대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
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내게 아름다운 복음을
배울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
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
드리며, 오늘날 이 세상에 세워진 예
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원리와 물론
경의 진실성에 대하여 내가 가진 간증
과 똑같은 것을 성신은 여러분에게도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
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귀한 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서로 나누는 성도들 ; 길버트 리즈월드의 물몬 대대 기념비 ;
유타 주 의사당.

우리는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 파송된 자들입니다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대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격으로 마음이 벅차 오릅니다. 며칠 전 나는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아내와 함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성스러운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일하라는 킴볼 대관장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서로 붙들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의 약점을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영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큰 권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나의 생애의 모든 결정은, “와서 나를 쫓으라”(눅 18:22)고 하신 주의 음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영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 행하는 것은 큰 축복이요 영예로운 일입니다. 영과 나 사이의 통로가 열려 있어 이러한 일이 가능했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나는 나의 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며 동시에 복음이 회복된 초창기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활하기 위해 헌신하였으며 역경 속에서도 시온을 수호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겪은 선조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그들의 고귀한 명성을 빛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은 며칠내에 세 번째의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떠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도움은 나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의 부친은 내게 소극적인 인간이 되지 말고, 생의 선한 일에 전념하여 매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친은 내가 매일의 일상 생활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게 인도하



고 도와 주셨습니다.

한 형제가 그의 영원한 동반자인 아내에 대하여 품고 있는 사랑과 또 그녀가 나은 자녀들이 가져다 주는 큰 기쁨을 통하여 느끼는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성스러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네이 2:25)고 한 경전의 말씀에 지적된 바로 그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반자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은 이 세상 생활에 큰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6월에 열렸던 선교부장 세미나에서 나는 아내와 함께 킴볼 대관장님과 총판리 역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지금은 추수할 시기요, 수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가라지 가운데서 꼭식을 거두어 들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마 13:30 참조) 나의 생애는 대체로 심고 거두는 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밀밭에 가라지가 섞여

있을 때, 농부가 우려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밀과 가라지가 완전히 익어 추수할 때가 되기 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그 때에 너희가 가라지 가운데서 일을 거둔 다음에 가라지는 다발로 뮤으며 밭은 불살라 버리리라”(교성 86:7)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 파송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손에 낫을 들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동안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나는 피부로 느낍니다. 칠레의 산티아고 선교부에는 120명의 선교사 중에서 32명이 조국에서 일하는 칠레 본토인으로 9월 한 달 동안에 220명에게 칠레를 주었습니다. 그중에는 가족수도 40이나 됩니다. 칠레에 있는 선교사들은 기꺼이 예언자를 따르고 있읍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이 사업을 이끌어 주시며, 살아 계신 예언자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성령이 지시하는 음성에 귀 기울여들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큰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업이 참되며, 킴볼 대관장님은 이 사업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간증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바칩니다.

나는 예언자와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총판리 역원들의 지시를 받아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내게 축

복해 주신 모든 힘과 모든 은사를 다 바치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추수하는 일을 보살피기 위해 부름을 받은 거룩한 분들임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예언자에게 품고 있는 큰 사랑을 전하며, 그분은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음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

버 카우드리에게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선을 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임이라. 그러므로 선을 심으면 선을 보상으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어린 양떼들아, 선을 행하라. 세상과 지우이 연합하여 너희를 매져케 하라. 너희가 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저

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두려워 말라.

“절린 내 옆구리의 상처와 내 손과 발의 뜻 자국을 보라. 충실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천국을 상속받으리라.”(교성 6:33-34, 36-37)

나는 이 교회가 참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 말씀

왜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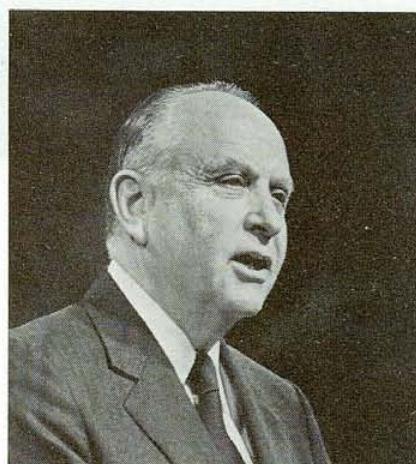
지난 10월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캠볼 대관장님은 신권 지도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크게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시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대관장님은 “우리는 좀 다르게 좀더 낫게 일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번이나 “왜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라 하시며,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음의 폭을 넓히자” 지역 대표 세미나 말씀 1974년 10월 3일, 4페이지) 총판리역원이 스테이크를 방문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장로 정원회의 회원으로서 선견지명을 가진 가정 복음 교사가 어느 비활동 회원의 명단을 받았을 때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주일 아침 일찌기 신권회에 참석하려 가는 도중에, 이 회원의 집에 들렀습니다.

“나는 신권회에 나가는 길인데, 형제님도 함께 가실까 해서 들렀습니다.”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일요일 아침의 늦잠을 방해 받은 그 형제는 “전 흥미없습니다”하고는 문을 꽂 닫아 버렸습니다. 그는 교회에 어떻게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상히 생각



했었습니다.

그다음 일요일 아침에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형제는 문을 열어 보니, 신권회로 가는 도중인 바로 그 가정 복음 교사가 밝은 미소를 띠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좀 변하시지 않았나 해서 잠시 들려 보았습니다. 우리는 형제님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무뚝뚝하게, “형제님이나 가보시지요. 전 혼자 있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1주일 뒤에도 그러한 상황은 재현되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이렇

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임에는 여러 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님이 필요합니다. 다음 일요일에 제가 들르면 되겠습니까?” 활동 회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 형제는 이런 아침의 방문객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일요일에 가정 복음 교사가 초인종을 울렸을 때, “혼자 가 보십시오. 전 안 가겠습니다!”라는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는 정장을 하고는 자신의 무관심을 입증해 보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권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다정하고 친절으로 관심을 표명해 주는 회원들의 태도에 그의 태도는 변했으며,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이 형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신권 정원회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많은 청소년의 가장이 되는 수련 장로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라고 캠볼 대관장님이 당부하신 목표를 받아들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음의 폭을 넓히자” 2페이지) 이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고, 곰곰이 생각하며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해 줍니다. 그분은 신권



교회 대관장단 ;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스페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지도자인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요술 지팡이를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왜 우리는 좀 더 훌륭하게 할 수 없습니까?”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절실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분한 권세와 권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는 주님이 그의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인간에게 성신권을 주신 주요 이유는, 인간이 그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의 거룩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권세와 권능을 갖게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 비활동 회원이 된 가장이나 남편을 먼저 찾아 내어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6개월 전에 레이몬드 젤포트 형제

가 뉴란고 콜로라도 스테이크에서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활동 회원을 활동 촉진시키는 성공한 사례를 보고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가정 복음 교육을 잘 이용하여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들은 필름스트립을 사용하여 비활동 회원을 가르치고 일깨워 주었읍니다. 7명의 정원회 회원이 각자 활동기를 구입하여 가정 복음 교육을 할 때 비활동 회원의 가정에서 사용했읍니다.

어느 수련 장로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제는 가정 복음 교사를 나의 집에 보내지 마십시오.” 이 형제와 그의 아내는 가정 복음 교사가 활동기를 가지고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비활동 회원의 집을 방문하고 있었읍니다. 그는 필름스트립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가정 복음 교사들에게 자기 집을 다시 방문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이해심 많은 가정 복음 교사들은 그를 다시 활동 회원이 되게 해 주었던 것

입니다.

이 정원회의 지도자들은 가장 유능한 자를 택하여 복음 연구 세미나를 가르치게 함으로써 한 번에 네 쌍이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읍니다. 이리하여 93명의 회원이 모두 잘 알게 되고 서로 접촉하게 되었읍니다. 회장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에게는 좌절감을 가질 때가 있을지언정, 실패란 있을 수 없읍니다.” 4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현재 가정 복음 교육을 받고 있읍니다. 그는 “멀지 않아 그들 네 명도 곧 활동 회원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들은 비활동 회원에게 교회에서도 즐겁고 흥미있는 활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체육 위원회나 친목 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있읍니다. 한 가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된 뒤에, 그의 아내도 그를 도우라는 부름을 받고 활동 회원이 된 사례가 있읍니다. 이 정원회의 형제들이 산 속에서 일박 야영을 했을

대관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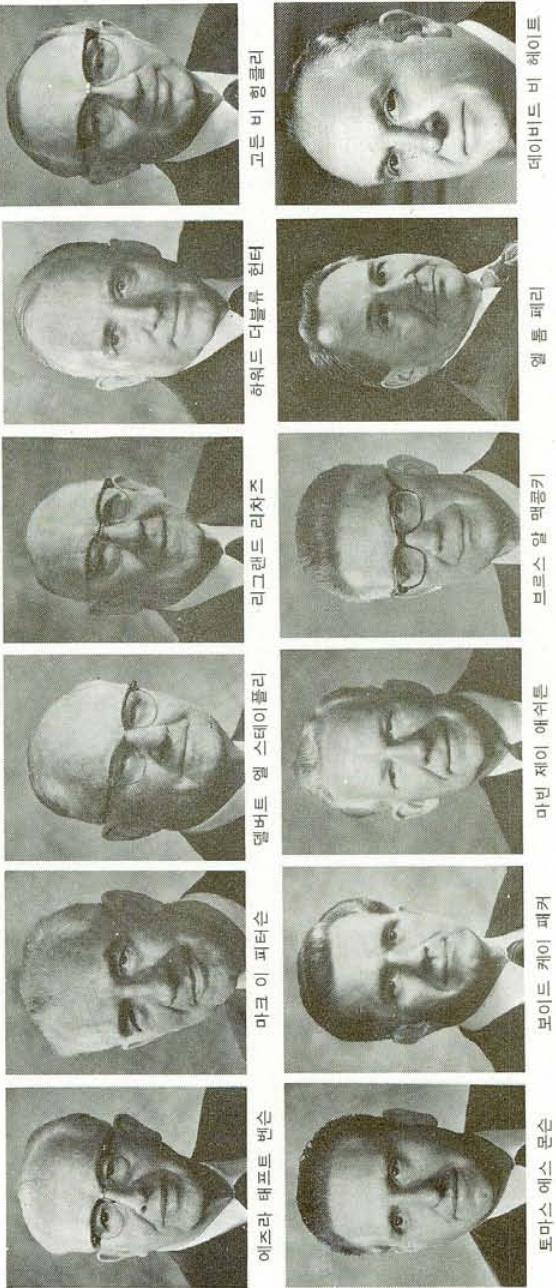
던 엘돈 태너
제 1 보좌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미리온 지 룸니
제 2 보좌

밀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십이사도 평의회



교회 축복사



엘드리드 저 스미스

때 여섯 시간 동안이나 모닥불 주위에 둘러 앉아 교회에 대한 토론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회장은 “우리는 참으로 영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형제가 부름을 받을 준비가 되면, 정원회 회장이 감독을 도와 그에게 적당한 직책을 생각해 봅니다. 지도자가 신권 접견을 갖기 시작할 때쯤 되면, 가정 복음 교육 백분율은 30퍼센트에서 거의 100퍼센트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정원회는 새로운 방법을 여러 모로 개발시켰는데, 그들은 그들이 거둔 성공을 가정 복음 교사의 혼신과 주님의 축복에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기도한 연후에야, 형제들에게 합당한 직책을 맡기는데, 부름을 거절한 형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오래 된 형제들은 “나는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원회 회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 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교성 88 : 118) 젤로호 회장은 잃어 버린 자를 다시 찾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스테이크부장들은 신권 조직과 활동 촉진의 효과적인 원리를 익혀 터득한 자들을 멜기세덱 정원회

지도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은 빈틈없으며, 스터얼링 실 장로가 이야기한 두 마리의 말이 그는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시장으로 가는 농부와 같지 않습니다. 두 마리의 말이 몹시 힘들어 헐떡거리고 있었으며 경사가 아주 급해 보였습니다. 참다 못해 농부가 한 나그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언덕을 다 올라 가자면 얼마나 더 가야 하겠습니까?” 그 나그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덕을 오르는 것이 아니랍니다. 마차의 뒷 바퀴가 빠져 있어요.”

최근에 어떤 형제가 자신이 어떻게 해서 500명의 회원이 있는 와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는가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두 명의 젊은 홀륭한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고 교회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와서, 가르쳐 주고, 개종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들이 가르쳐 준 대로 생활했습니다. 많은 개종자들이 당하게 되는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자, 두 명의 홀륭한 선교사들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전과 같은 태도로 생활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외로운 느낌이 들어 더 이상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활동을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방문 교사에게 오지 말아 달라고 하고, 가정 복음 교사에게도 방해하지 말아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장로 정원회에서 ‘찾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몇몇 ‘잃어 버린’ 회원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 같았습니다. 바로 나도 그 당시에는 잃어버린 회원 중의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자, 젊고 주근깨가 있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떤 사람이 자기는 장로 정원회 회장이라 소개하며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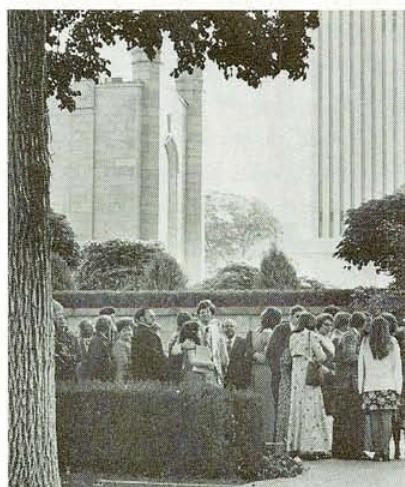
“그 후 그는 자기 집에서 재배한 야채나 계란 같은 것을 가져 오기도 하고, 우리 딸 아이의 생일 카드를 보내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

는 나를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한 일이 있을 때는 그가 대신 사파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다시 활동 회원이 되게 해 주셨을까요?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진심으로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나의 영혼을 구할 수 있게 도와 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게 도와 주었습니다.

“이 형제님이 나의 가족에게 베풀어 준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전에 가서 영원히 인봉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신전에 가서 우리에게 약속된 더 많은 빛과 지식을 받았습니다.

“나는 현재 이 장로 정원회 회장의 보좌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초등협회에서 교사로 일하며 방문 교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때 잃어버린 회원이 되었으나, 관심을 보여 주고, 시간을 함께 해 주고, 사랑을 보여 주는 사람이 있어, 길을 다시 찾아 내 가족을 주님께 인도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주위를 살펴 보아 길을 잃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원회는 마땅히 이 목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정원회 회원들은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원회 회장들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롬 13 : 12)라는 경전의 말씀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권의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간증드립니다. 어떠한 힘도 이 교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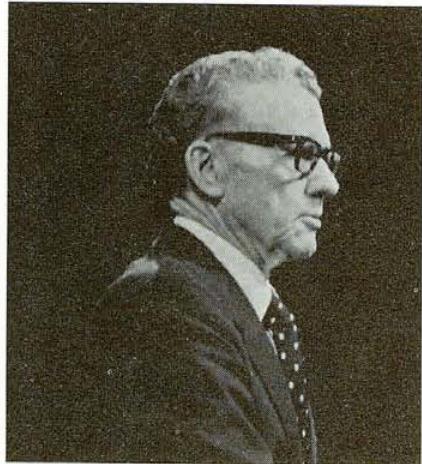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헨리 디 테일러 장로
십이사도 보조

역 사상 어느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중요하고도 원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교회는 많은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음의 폭을 넓히고 방향을 수정하며 우리의 목표를 좀더 높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1974년 4월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18,600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그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 현재 선교사 수는 21,000명이 넘습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낸다 해서, 간증이 없거나 합당하지 않은 선교사가 배출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젊은이들은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이 큰 특권이며 그들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하여 “주는 털끝 만큼의 죄도 목과할 수 없음이니라”(교성 1:31)는 말씀과 같이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젊은이는 누구나 선교 사업을 마쳐야 합니까? 주님은 이에 대하여 ‘젊은이는 누구나 선교 사업을 마쳐야 하느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는 이외에도 김볼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형제는 십일조를 내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는 신전에



서 결혼하고, 자녀를 합당하게 교육시키며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행하지 않음을니다.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제가 분명히 해야 하는데도,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연령에 이른 자들 중에 선교 사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젊은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을 선교사로 보낼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으로 선교 사업을 행할 수 없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선교 사업 정신과 일치하는 순결한 생활을 하지 않은 데서 비롯한 정서적, 정신적,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준비를 했어야만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윤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보살펴 주는 데 있습니다.” (1974년 4월 십이사도 지역 대표 세미나 : “온 세상 사람들이 개종될 때” 엔사이드 1974년 10월, 2-14페이지 참조)

복음을 전파하는 전적인 책임은 신권 소유자가 담당하게 되지만, 많은 젊은 여성도 자매 선교사로 일하는 특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도 선교사 부름을 받게 될 때에 대비하여 자신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부모도 자녀들의 마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선교 사업을 마치고자 하는 소망을 심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 부름을 자녀의 책임의 하나로 가르쳐 주신 “훌륭하신 부모님”(니일 1:1 참조)에게서 태어난 것을 언제나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교사 부름을 받는 것을 당연한 임무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소망을 품은 결과 집안에서 여섯 명의 아들이 모두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특히 어떤 지역에서 일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내 경우에도 사실 그랬습니다. 나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중에서 세 분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그분들은 개종하여 교회에 들어 왔습니다. 후에 나의 부친도 영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후 내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내

가 가게 된 곳은 영국이 아니라 미국의 동부 주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교사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일하도록 영감에 의하여 부름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친송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원하시는 곳 가오리다.” (찬송가, 164장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참조) 나는 선교사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스턴 스테이츠 선교부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내 생애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선교부는 당시 교회의 종관리 역원의 한 분이신 비 에이치 로버츠 장로(1857-1933)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칠십인 제일 평의회의 선임 회장으로서 가장 유능한 선교사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어 위대한 지도자며 선교사이신 그분과 가까이 하며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매우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로버츠 장로는 진실한 학자며 천부의 재능을 지닌 저술가로 복음의 아름다운 원리를 설명한 영감에 넘친 많은 저서를 지어낸 분이었습니다. 그는 용기 있고 돈독한 신앙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많은 공적을 남긴 역사가로서, 그는 교회사에 나오는 흥미있고 중요한 사건을 연구하여 환히 이해할 수 있게 풀이해 주었습니다.

로버츠 장로는 정열적이고 인기 있는 연사이기도 해서, 모두들 언제 어디서든 그가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가장 힘있고 감명을 주는 연사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그는 연단에 서서 교회 회원들을 감동시키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 영감에 가득 찬 지도자 밑에서 일한 기회를 회상할 때면 늘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곤 합니다.

로버츠 장로는 선교사들이 성공적인 유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칠 때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해 주실 주님의 영을 찾고 구해야 함을 굳게 믿었으며 또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영은 신앙의 기

도로써 주어지나니,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 (교성 42 : 14)
로버츠 장로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의 영을 구함으로써 선교사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교 본부에서 영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로버츠 장로가 기도할 차례가 되면,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기원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면 장막이 걸히어, 주님이 가까이 하심을 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전을 잘 아는 로버츠 장로는 선교부의 표어를 채택해 주었습니다. 그 표어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 : 14)

수 세기 후에, 그리스도의 사도인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명칭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여 기록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 : 23) 로버츠 장로는 자신의 논문, 자서전, 사진, 기타 여러 경우에 언제나 “임마누엘”이라는 표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는 것이 모든 선교사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모든 개개인의 목표도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예민하여 더러운 성전에는 거하지 않으므로, 성령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 한다는 평판을 받은 한 청년이 (그는 웅변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리를 가나 칭찬을 받게 되자, 좀 오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와드의 성찬식에서 이야기해 달라는 청을 받았습니다. 집회가 시작되어, 그가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조금도 겸손한 빛이 없이 자신만만하게 연단으

로 걸어 가자, 감독은 보좌에게 컷 속 말로 소근거렸습니다. “혼자 저기 서 있는 형제가 무척 외롭고 가련해 보이는군요.”

부활하신 구세주가 하늘로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사도들과 갈릴리 근처에 있는 산에서 만나셨을 때, 그가 승천하시게 되지만, 그의 영을 통해서 그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 20)

그렇습니다. 모든 청년은 선교 사업을 마쳐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야말로 그가 이 생에서 맞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원대한 일을 결정해야만 하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모든 젊은이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하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대회 동안 좋은 음악을 들려 주신 훌륭한 합창단 여러분과 반주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제까지의 대회에서 느껴 보지 못했던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 특별한 대회를 빛내 주신 여러 합창단원과 반주자에게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일성도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대에 하늘에서 나타나시어 다시 말씀해 주셨음을 모든 인류에게 전해야 하는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여러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거기 사는 주민들아, 기뻐하라 주는 하나님께서요 주 의에는 구세주가 계시지 아니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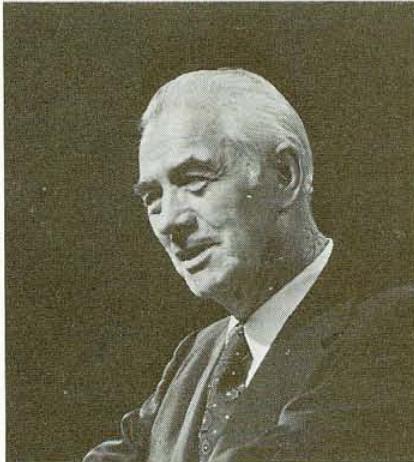
“그의 지혜는 위대하시며 그의 길은 놀라우시니...”(교성 76:1-2)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교성 1:2, 4)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는 주 그리스도이며, 만민의 구속주이고, 기독교인의 구세주이며, 유대인의 메시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외에는 구세주가 계시지 않음을 굳게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가 “그의 아들임을 거듭 확인하셨으며, 그의 말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명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위대하고 새로운 계



시를 주셨을 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계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따라서 말일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새로운 현대의 계시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 강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일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참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같이 혼란한 세상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다.”(교성 1:1)

우리가 이같이 주님의 현대의 계시를 전할 때,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실제로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깃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메시지의 진실성이 말일성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우리는 절제있고 훌륭한 성품을 갖춘 사람들로, 정직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본 원리로 덕과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안정과 보호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여깁니다. 가족이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원만한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에게 정절을 가장 중요로 여기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게 생활하기를 바라십니다. (마 5:48 참조)

우리는 가족이란 영원한 단위로서, 온 가족은 사망한 뒤에 부활하여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각기 이같이 중요한 표준인 정절을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도덕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그릇을 지닌 너희여 깨끗하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교성 38:42)

말일성도들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회원 수는 350만명에 이릅니다. 10년 전에는 250만명도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62개국에 133개의 선교부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74개의 선교부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현재 선교사 수는 21,168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대개가 20세 전후의 청년들입니다. 10년 전에는 12,585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2년간 기꺼운 마음으로 일하며, 모든 경비를 자비로 부담합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우리의 확신에 대한 진실성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은 대개 지부나 와드나 스테이크에 속하게 되는데, 지부와 와드는 작은 교구에 해당되며, 스테이크는 큰 교구와 같은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6,000여개의 와드와 지부가 있었는데 현재는 8,000여개에 달합니다. 10년 전에는 스테이크가 412개였으나, 현재는 700개가 넘습니다. 이는 남미에서 스칸디나비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앤디스카에서 남아프리카, 호주 및 남태평양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보건대학 교수인 제임스. 이언스트롬 박사는 물질의 암 발생률은 전 미국의 평균 비율보다 50퍼센트가 낮다고 지난 4월 9일자 패사드나 스타 뉴스지에 발표했습니다. 유타주의 암 사망률은 전 미국에서 최하위입니다.

폐암에 대해서는, 말일성도 여성은 전 미국의 평균 비율의 31퍼센트뿐이며 남성의 경우는 전 미국의 평균 비율의 38퍼센트뿐입니다. 알코홀로 많이 발생하는 식도암은 여성의 경우 전 미국의 평균 비율의 11퍼센트뿐이며, 남성의 경우는 34퍼센트 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통계는 유타주 암 등록 협회장인 조셉 에프 라이언 박사가 산출해 낸 것입니다.

1971년도 미국 통계 연감(인구 조사국)은 유타주와 나머지 주에서 산출해 낸 흥미있는 통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를 다음과 같은 질병의 발생 빈도에 따라 열거해 놓았는데, 그중 하위에 속하는 주일수록 질병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타주는 심장 질환은 46번째를 차지하며, 독감과 폐염은 49번째, 뇌혈관 질환은 46번째, 동맥경화증은 49

번째, 잔경변은 45번째, 기관지염, 기종, 천식은 30번째, 결핵은 50번째 성병은 50번째, 심장 혈관 계통의 질환은 50번째, 신경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혈관 장애는 50번째, 심장 마비 질환은 43번째, 기타 마비 질환은 50번째, 전염병은 50번째, 임신 병발증은 46번째, 유아 사망은 50번째 등입니다.

유타주에 관한 이러한 통계를 이야기할 때는, 주 인구의 30퍼센트가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나, 그들도 유타주 통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모든 국가와 종파와 국민을 초월하여 청소년을 훈련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인 조직인 소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미국 전체로 볼 때, 소년단 연령에 해당되는 청소년 중에 23퍼센트만이 소년단에 등록되어 있으나, 말일성도는 85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는 등록된 소년단원 중 1.5퍼센트만이 독수리 소년단원의 상(소년단 프로그램의 최고상)을, 말일성도는 4퍼센트의 단원이 이를 획득했습니다.

1974년도에 우리 교회는 소년단 후원 단체로 미국에서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사천회만이 우리를 앞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20,800개의 대를 후원했으며, 우리가 14,344개의 대를 후원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감리 교회에서 13,789개의 대를, 그리고 천주교에서 11,734개의 대를 후원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늘어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256,000명의 소년들 중에 70퍼센트가 교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같은 집단의 238,000명의 소녀들 중에, 73퍼센트가 활동 회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다른 곳에서 이에 견줄 만한 것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약 50만명에 달하는 집단의 소년 소녀들이 술과 담배와 혼전 성교를 금하는 교회에서 혼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다른 곳에서 이 같은 것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일학교 참석 상황에서도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어린이 중의 50퍼센트가 매주 주일학교에 참석하고 있으며, 전체 말일성도 집단의 60퍼센트가 매주 그들의 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교성 93:36 참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간의 영광도 마찬가지로 예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카네기 고등 교육 정책 연구 평의회의 의장인 클라크 카 박사는 지난 해 유타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하는 중에 이와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타주의 3세에서 34세에 이르는 사람들을 중 학교 등록된 수의 백분율은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가 수위를 차지한 16세 내지 17세의 연령층을 제외한 유타주의 모든 연령층의 학교에 등록된 수의 백분율은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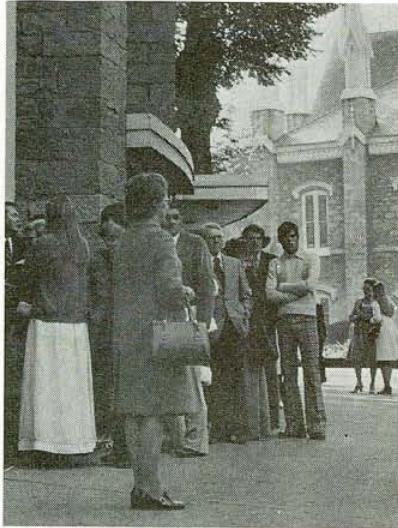
“유타주의 25세 이상의 성인들이 교육받은 교육기간에 대한 평균 백분율이 수위를 차지합니다…

“유타주는 주 수입의 100,000불을 의과 대학의 운영 프로그램에 지출하고 있는데 이점에서도 수위를 차지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네기 고등 교육 위원회는 50개 주의 고등 교육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여러 주와는 달리 유타주에서는 큰 결함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어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타주에서 이렇게 잘 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타주가 가장 부해서도 아니며, 오래 되어서도 아니며, 교육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비결은 필경 다른 어떤 것에서 연유된 것일 것입니다. 그 비결



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 비결을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초기의 지도자는 교육을 대단히 중요시했읍니다.” 그런 뒤 그는 교육에 힘을 기울인 브리감 영 대관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의 결과는 미국과 캐나다와 전세계에서 명망있는 지위를 차지한 우리 회원의 수가 증가되는 사실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마크 더블류 캐논은 “중역의 직을 맡고 있는 몰몬”이라는 제하의 강연에서 최근의 조사 결과 471개의 미국의 우수 기업체 중에서 사장들은 인구 비례로 볼 때, 미국의 다른 어느 주보다도 유타주 출신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유타주는 전국적으로 205,000명대 일의 인구 비례에 비교해서 62,000명의 주민 중에서 한 명꼴로 사장이 배출된 셈입니다. 현재 55명의 말일성도가 1,000만불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계 회사의 사장, 이사장, 부이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77명은 7,500만불 이상의 재산을 가진 각기업체에서 주요한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말일성도로서 미국 행정부의 각료와 캐나다 정부의 요직을 역임한 분들이 있습니다. 군 장성급의 회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는 미국 의회와 캐나다의 정부에서 오랫동안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2년에는 미국 상

원과 하원으로 15명이나 당선했읍니다. 현재는 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말일성도는 미국 연방 준비 은행, 미국 관세청, 미국 관세 위원회 및 연방 주택국 등에서 중요한 직책을 역임해 왔읍니다.

물론 대제사인 하비 플레처 박사는 입체 음향을 개발했으며, 역시 물론인 플로 판스워드가 텔레비전을 만들어 냈읍니다.

국제 로우터리 클럽과 국제 라이온즈 클럽의 회장도 물론이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의과 협회와 미국 은행가 협회 및 기타 여러 학회를 이끌어 왔읍니다. 또한 그들은 이 시간에 다 피력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여러 분야의 학계, 기업계, 재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왔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여성 “해방”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여성은 투표권을 처음으로 행사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1세기 전의 브리감 영 대관장 시대에 이 중요한 권리 부여 받았읍니다.

우리는 물론 여성은 세계의 어느 여성들보다도 제한받지 않고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믿읍니다. 그들은 만인을 위한 자유와 공의의 참된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것이 그들의 종교의 기본 원리이며 일상 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성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부조회라는 것입니다. 그 조직에는 약 1백만명의 회원에 있읍니다. 이 조직의 지도자들은 세계 여성 협회에서 탁월한 공로를 쌓은 바 있으며, 그중 한 분인 벨 에스 스패포드 자매는 최근에 미국에서 전국 여성 협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상호부조회 조직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업을 하는 것 외에도, 여성의 교양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직한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가정 생활을 이상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도와 주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의 일부로, 우리는 물

론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전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경전을 1백만부 이상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대 미대륙의 성스러운 역사 기록입니다. 물론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성경도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읍니다. 우리는 일반 기독교인들과 같이 성경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표준 경전의 하나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와 말일의 주님의 사업에 대한 두 번째 증거라는 것도 역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계시를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예언자를 통해서 인류를 인도해 나갈 현대의 계시를 들려주시고 있음을 온 인류에게 알리는 바랍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참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바와 같이, 참되며, 법을 준수하며, 예지에 차 있고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생활 태도에는 우리의 생명과 메시지가 성스럽고 진실하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 있읍니다. 이제 까지 이야기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는 세상에 이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둠과 죄악과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재확인시키며, 구원에 이르는 길을 새로이 보여 주며, 언덕위에서 밝히 빛나는 햇불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그가 이 세상의 구속주임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하신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바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만이 구원은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아론 신권 사업의 참된 목적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

오늘 저녁 나는 교회내에서 아론 신권에 대한 책임을 진 모든 역원에게 하나의 목표를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성인 지도자는 물론 모든 집사, 교사, 제사가 포함됩니다. 다 함께 아론 신권 소유자가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긴 안목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와 같이 긴 안목으로 기대하는 바를 실현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끊임없이 함께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원리는 우리의 청소년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 청소년을 강화하면서 그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여러분, 때때로 아론 신권 사업이 잘못 인도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청소년이 교회에 흥미를 잃는 것을 볼 때 종종 색다른 활동, 집대 청소년 파티, 이국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일 등을 포함해서 매주 잇달아 큰 행사를 계획하려고 더 열심히 시도함으로써 청소년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학교 활동이나 클럽이나 텔레비전과 경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들과 교사들이 매주 활동의 밤에서 농구 경기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외에 다른 활동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일부 청소년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농구 경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내다 보는 긴 안목이 없는 이러한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을 잊어 버릴까봐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거나 귀찮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오락 활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활동 회원이 되게 하려면 그들이 원



하는 활동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어야 만 합니다.” 청소년들이 한동안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개심하는 경험을 전혀 갖지도 않고, 신권을 소유하는 것을 특별한 영예로 여기지 않을 때가 가끔 있으며, 따라서 교회와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잘 준비하지도 않고 미숙한 채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 자체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색다른 활동이나 파티 다시 말해서 개인의 오락을 위주로 하여 계속해서 갖는 활동은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이는 그러한 활동이 잘못된 방향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론 신권 정원회에 지명해 주신 성역의 임무를 수행하려 하는 대신에 지도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거의 봉사와 개인의 희생을 등한히 취급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세속적인 방법으로 경쟁하려 합니다. 이같은 일이 일어날 때 청소년은 교회가 그들이 변덕스러운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간섭하지 않으며, 더욱이 그들은 방종의 척도로써 교회를 평가해

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훌륭한 활동보다 더 대담하고 자극적인 세상의 유혹을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 정원회와 그 정원회가 주님이 명하신 사업을 성취하는 방법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원회는 그 회원들이 승용에 이르도록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아론 신권 지도자가 정원회의 사업을 진지하게 행할 때 정원회 회원들에게 귀찮은 일을 시키고 희생을 요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원회 회원들이 세상에서는 기껏해야 조금 맛볼 수 있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보람과 기쁨을 맛볼 때 신권을 성스럽게 여기고, 감사하며, 존중하게 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가 신권 사업을 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면 정원회 회원들은 활동 회원이 될 것이며 계속해서 활동적이 될 것입니다. 만일 정원회 회장단이나 성인 지도자들이 주님의 사업을 경시하고 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오락 프로그램을 계획하려고 시도한다면 정원회 회원들은 여전히 흥미를 잃고 말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위해 희생을 하면 여러분은 그 대상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법칙을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 부름을 받기 전에 경박하고 미숙했던 제사들이 선교 지역에서 몇 개월간 고생을 겪은 후에 급속도로 발전하는 예가 많습니다. 간증과 목적과 마음의 평화



가 방황과 혼란과 무관심과 대처됩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성스러운 사업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며 희생을 통하여 기쁨을 맛볼 날이 이르기 전에 선교사 부름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신권을 존중하고 수호할 확신을 갖지 않고 19세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청소년은 오락 활동에 탐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소망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화 구경을 가느니 보다는 그들의 친구들이 복음에 대해 공부하는 복음 토론 모임을 갖기를 더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활동실에서 소란스러운 게임을 즐기느니 보다는 병든 어린이를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 주기를 더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장비를 무료로 마련해 주고 그들을 위해 모든 음식을 제공해 주는 성인들이 인도하는 야영에 참여하느니 보다는 정원회의 비활동 회원과 우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원회 야영을 계획하고 실천하기를 더 원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전적으로 봉사 활동만을 갖고 오락 활동을 전혀 갖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을 살펴 보면 대 오락과 사교와 문화 활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봉사 활동과 오락 활동을 적절히 조절하여 균형을 이를

수 있으며, 또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은 심지어 게임을 즐기는 활동에 이르기까지 만일 그 활동이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게 계획할 수 있읍니다. 모든 활동은 심지어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봉사 활동이라 할지라도 매우 재미있는 것이 될 수 있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영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읍니다. 이같은 영적인 경험만이 운동장에서 발휘되는 품위없는 운동가 정신을 없애 줄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어느 스테이크의 청소년 대회 프로그램을 살펴 보았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들이 프로그램의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자기 자신을 안다. (2) 하나님을 안다. (3) 계보 사업 및 스테이크 도서실을 사용하는 방법. (4) 자기 수련 및 유혹을 이기고 분노를 자제함. (5) 부모와 청소년 관계. (6) 무용 실습(스윙과 폭스트롯) (7) 용돈 예산. (8) 레이트 상대를 어떻게 구하나. (9) 취직을 위한 성공적인 면접. (10) 청소년 지도력 훈련. (11) 음식 준비와 저장 및 빵 만들기. (12) 오늘날 사회에서의 여성의 사명과 위치 등이었읍니다.

이상의 주제에는 우리의 청소년에 관한 어떤 진리가 반영되어 있읍니다. 성인들은 다반사처럼 이러한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섬김을 받느니 보다는 오히려 섬기기를 더 원하고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기 희생은 그들로 하여금 가장 훌륭한 성품을 기르게 해 줍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들은 진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그들은 다른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동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비이기심의 순수한 성품을 기를 특권을 갖고 있읍니다. 정원회 회원이 즐거움 뿐만 아니라 개인 달성과 발전과 소신을 주는 기쁨을 발견할 수 없는 아론 신권 정원회가 결코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정원회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정원회를 세상을 모방하는 어두운 곳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원리를 실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어느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인젠가 멀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없는 어느 와드에 참석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와드는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읍니다. 대부분의 와드 회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신권의 권리와 가장 훌륭하게 행사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권리에는 제사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제사의 모든 의무를 행하고 그들의 와드 회원의 필요 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교적인 방문을 하는 장로의 따분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 가정 복음 교육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나는 그때와 다른 상황에서 네 명의 제사들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읍니다. 그곳에서 나는 그들을 흔히 볼 수 있는 폭력배로 생각했읍니다. 모든 신학 연구원 중등부 교사들은 그들 때문에 2, 3개월 밖에 견디지 못했읍니다. 그들은 소년단 활동 여행을 하면서 지방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갖게 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한 사람들로 받아들여졌을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중요한 선교사 부름을 받을 만큼 신뢰를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신권 봉사를 가장 훌륭하게 행하면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은 감독이 그의 와드의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천사들의 방문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갖춘 상태까지 발전하라고 당부한 것이었읍니다. 그들은 그 상태까지 발전하였으며, 궁핍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격려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을 강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와드의 다른 회원들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원회 회원들도 강화되었읍니다. 와드 전체에 단합의

정신이 끼쳤으며, 모든 회원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교성 45 : 65 참조)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설명할 수 없는 성격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론 신권이 올바르게 행사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조직과 교리와 정부는 물론 심지어 가정도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론 신권에서 이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주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도록 요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아론 신권을 통하여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새로 발행된 아론 신권 지침서를 이미 받으셨거나 앞으로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지침서에는 경전과 말일 성도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나와 있는 아론 신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원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의 청소년들은 보다 활동적이 되고, 더욱 많이 개심하게 되며, 훨씬 더 홀륭하게 선교사 부름을 준비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모든 단위 조직의 지도자들이 지침서에 나와 있는 올바른 원리를 열성을 다해 적용할 때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들이 어떤 인물이 되는지에 대해 다 함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스테이크 부장이 월례 개인 신권 접견을 갖는 동안 각 감독에게 아론 신권에 대한 업무 보고를 요청하면 참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스테이크 아론 신권 위원회의 위원장인 스테이크 부장이 감독에게 아론 신권 정원회가 행한 봉사 활동과 정원회 회원들이 선교 사업과 신전 결혼과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준비하고 있는 진척 상황에 대해 물어 보면 아론 신권 활동이 촉진됩니다. 이 월례 개인 신권 접견은 아론 신권과 청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감독에게 있음을 일깨워 주고

그의 책임감을 강화시켜 줍니다. 만일 스테이크 부장이 개인 신권 접견을 갖지 않거나 감독의 일차적인 책임이 아론 신권과 청년에 대한 것이라는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감독은 그의 청지기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단의 세 분이 각자 자기에게 지명된 정원회의 일을 합당하게 관리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성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감독단의 두 보좌가 집사 정원회 회장과 교사 정원회 회장과 월례 개인 신권 접견을 가질 때 그들은 주의 깊은 질문과 훈련을 통하여 아론 신권 사업의 중대한 목적을 전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줍니다. 모든 감독이 실제로 그의 정원회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회장단 모임을 감리하며 모든 정원회 모임과 활동에 참석할 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독단 보좌들이 감독처럼 자기에게 지명된 정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청소년 개개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물어 보십시오.

각 정원회 고문이 교회 외에서도 시간을 내어 정원회 회장이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도록 준비 시킬 때 아론 신권의 지도력이 현저하게 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회 모임을 갖기 전에 정원회 회장단 모임을 가지며, 정원회 회장이 직접 모든 정원회 모임을 감리할 때 참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정원회가 와드나 사회의 모든 사람의 생활에서 슬픔이나 고통을 없애고 그들의 생활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활동과 사업을 행사 계획표에 포함시키거나 정원회로 하여금 정원회 회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선교 사업을 준비시킬 수 있게 하는 활동과 사업을 행사 계획표에 포함시킬 때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떤 상태에 이를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원회가 경전에 나와 있는 모든 책임을 수행할 때, 예를 들면 가정 복

음 교사로 봉사하는 제사들이 교회의 가족들에게 “소리를 내거나 은밀히 기도할 것과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교성 20 : 51) 권고하며, 교사들과 집사들도 제시로 주어진 그들의 의무를 행할 때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여, 교회 회원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말일의 위대한 사업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명의 하나를 맡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상에 행복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권능과 특권을 가진 성임된 신권 역원들의 형제애로 이루어진 조직이 바로 신권 정원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이 행하여질 때, 지도자들은 더 이상 세상을 모방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의 개심과 활동 촉진과 선교사 준비와 영적인 성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들은 바로 주님이 명하신 아론 신권의 유품되는 중요한 사업을 행하기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스테이크 부장단과 감독단과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단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업이 우리가 말일에 행하도록 부름받은 위대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충실히 온 힘을 다해 이 사업을 행하여 영예로운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의 감독이 교회의 청소년들에 대해 청지기의 직분을 갖고 있으며,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청지기의 직분을 합당하게 행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교회의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단을 신뢰하며, 이 일이 그들에 의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는 성숙과 안정성과 영성에 관해서도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단을 신뢰하며, 그들이 오늘날 다른 세대의 지도자들이 도달하지 못한 경지까지 그들의 지도력을 발전시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과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신권의 권능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장로
십이사도 보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브라운 감독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를 보충해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신권에 대해 잘 아는 권위자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만 수년간 여러분과 더불어 지내면서 신권의 목적과 그 권능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에서, 혼히 회원들은 일반적인 용어로 간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는 참된 교회임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복음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그와 똑같은 신앙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회원들이 복지 계획이나 십일조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언자 요셉 스미스나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을 따를 수는 있으나 브리감 영 대관장이나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택하는 행동에는 모순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녁 나는 “여러분은 신권의 권능에 대해 어떤 간증을 갖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신 형제님들 중 가정 복음 교사이신 분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이 지난 지 며칠되지 않으므로 물어 보겠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되시는 형제님들 중에서 “자신의 가정 복음 교육 지명을 수행한” 사람은 몇 분이나 됩니까? 좋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 말은 바로



표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악마는 우리에게 “여러분은 자신의 가정 복음 교육 지명을 수행하였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가정 복음 교육의 포괄적인 책임을 언급하는 매우 서두른 방법의 하나입니다. 악마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은 자신의 가정 복음 교육 지명을 수행하였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도록 하여,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성과의 90퍼센트를 잃어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는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매달 말일에 서둘러서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항상 신권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예가 있습니다. 감독단이 어떤 행사를 특별히 잘 준비하기를 바랄 때 누구에게 그 책임을 맡깁니까? 바로 상호부조회에게 그 책임을 맡깁니다. 왜 신권 조직에게 그 책임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권 조직은 그 일을 행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기 때-

문입니다. 왜 어떤 스테이크부장들은 가정 복음 교사들을 활용하여 회원들을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시키지 않습니까? “가정 복음 교사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장이 그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지요.” “우리 와드의 회원들이 그 지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든요.”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와 같은 말은 하나님의 권리 세를 믿는 신앙이 약하거나 그 권세를 잘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훌륭한 스테이크부장이 무심코 “가정 복음 교사들이 그 일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테이크부장님은 자신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방법을 마련해 주셨지만 주님의 방법은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크부장님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셨군요.”

나는 렉스 리브 스테이크부장님이 관리하시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분은 나를 인도하여 건물을 둘러 보다가 회원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2,000개의 의자를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어떻게 2,000명이 참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정 복음 교사들을 보내어 모든 회원이 참석하도록 초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지요. 그들은 2,000명이 내일 이곳에 참석할 것이라고 보고했읍니다.” 내가 연사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이 새어나갔음에 틀림없었읍니다. 왜냐하면 2,000명 중 75명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

죠. 그러나 출석율은 49퍼센트였습니다. 그후로 출석율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몇 년간 나는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의 가르침을 받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롬니 부대관장은 우리에게 “교회의 헌법”에 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헌법”이란 교회 조직의 임무에 관하여 주신 주님의 계시를 뜻합니다. 주님은 이 계시를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20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소신권 소유자의 도움을 받는 장로는 “교회 회원을 돌아 보아”(42, 53절)야만 합니다. “돌아 본”다는 것에는 회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른 계시에서 보면 장로 정원회는 “상임 교직자”(교성 124 : 137)를 위하여 설정된 조직으로 특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도 “상임 역원(상임 교직자)”(교성 84 : 111)으로 불리어집니다.

5년 전 여러분이 “당신이 속한 교회의 ‘교직자’는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하였다면 대부분의 우리는 “감독입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 장로들이 많은 임무를 위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 와드에 적어도 50명의 “교직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하여도 우리는 한 와드에 한 명의 교직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감독이 혼자서 임무를 수행해 오던 것처럼 50명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때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큰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가정 복음 교사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신뢰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방법대로 시도해 보지 않습니까?

신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나는 여러분에게 금식 간증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회원은 종

종 친척이나 친구가 몹시 앓고 있었을 때 장로들을 불러 그에게 병자 축복을 한 결과 그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에 관한 경험담을 말합니다. 이같이 우리는 신권의 권세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내가 이 성스럽고 훌륭한 의식을 파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식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과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그 의식의 놀라운 효력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왜 여러분의 간증을 그 일에만 한정시킵니까? 환각제나 알코홀로 인해 영적으로 거의 죽게 된 아들을 가진 가장을 돋게 하기 위해 왜 선뜻 장로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혼이나 범법으로 파탄 직전에 있는 가정을 축복해 주도록 왜 신권 소유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신권으로 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교회 회원 가정의 절박이 “결봉되지”(교성 131 : 5 참조) 않아서 구세주께서 재림하실 때 “황폐하게 되는”(교성 2 : 3 참조) 상태에 처해 있게 하고도 어떻게 우리는 “가정 복음을 교육 지명을 이행했습니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들이 병자에게 약수를 하는 일뿐 아니라 그외에도 이같이 성역을 베풀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고침을 받은 자라 하여도 다시 병에 걸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치료제로 복음을 가르칠 때 그 병고침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신권의 위력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는 오늘이 대회에 참석한 모든 분이 우리 시대에 매우 적절한 표어인 “결음의 폭을 넓히자”, “결음을 재촉하자”, “진 안목을 갖자”라는 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에 선교부장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이 방문하신 동안 나는 내가 전임자였던 선교부장이 이룩한 놀라운 업적에 보조를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시

는군요. 우리는 그러한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님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형제님은 그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형제님의 지도력으로 모든 것이 항상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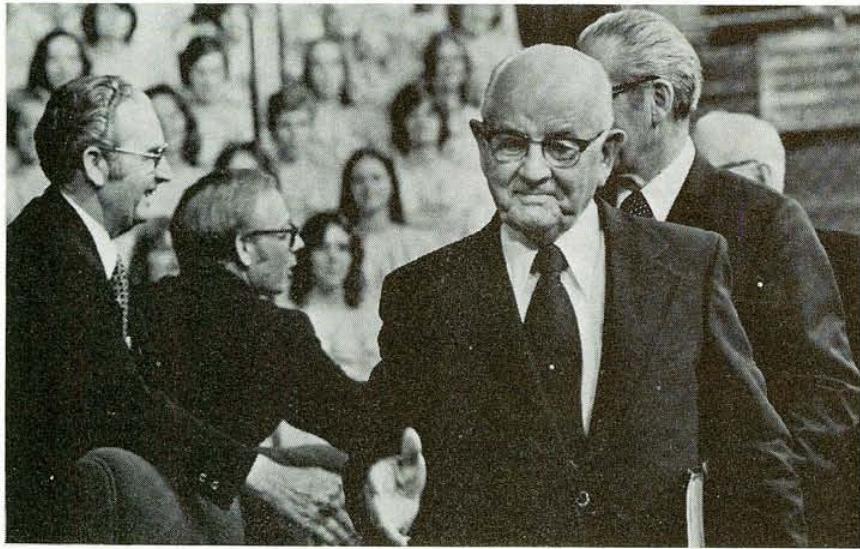
이제 여러분은 내가 신권의 권세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는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간증을 가졌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실로 지금 나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신권은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교회안에 계속되나니”(교성 84 : 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전하고 왕국의 비밀의 열쇠를…지니고 있으느니라”(교성 84 : 19)

우리의 선교사들은 매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여받은 “위대한 권세”와 그들의 돈독한 신앙 때문에 성신은 그들에게 입합니다. 구도자들은 영향력을 느끼며, 반응을 보이고 회개하며 순종합니다. 이 장로들이 이러한 자에게 침례를 줄 때 가르침과 의식이 융화되어 신권의 성역의 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거듭납니다. 이 선교사들의 수가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불어날 때, 신권의 권세도 역시 크게 증대됩니다.

정원회에도 이 같은 원리가 틀림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명의 “교직자”를 50명으로 증가시킨다면 우리는 신권의 권세에 50을 곱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은 병자에게 일어나는 기적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내게 복음을 전해 주신 분입니다” 또는 “내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라고 어떤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사, 교사, 제사를 관리하는 신권회장은 감독이며 각 정원회에도 회장이 있습니다. 교회 회원인 가장을 관



리하는 신권 회장은 장로 정원회 회장이거나, 어떤 경우에는 대제사 정원회 회장과 칠십인 정원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경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든 가장은 “이 신권에 이르지”(교성 84:42)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가장이 이 신권에 이르지 못하면 그의 가족은 예언자 말라기의 예언한 대로 결봉되지 못하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교성 2편 참조) 복음이 회복된 이유의 하나는 바로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성 2:3 참조)

대부분의 경우, 장로 정원회 회장인 멜기세덱 신권 회장은 교회의 모든 회원이 충만한 복음을 배우도록 해야 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권의 임무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나 그의 정원회의 “상임 교직자”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가정 복음 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신권의 권세에 대한 참된 간증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권에 관련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질 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와드를 둘로 나누어 한 와드에 모든 활동 회원을 두고, 다른 와드에 비활동 회원을 두어 내게 비활동 회원들을 책임지라고 하신다면, 나는 1년내에 이들을 모두 활동 회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나는 리차즈 장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여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언젠가 어느 스테이크 부장이 그의 스테이크 산하의 장로 정원회 회장 한 명이 거둔 큰 성공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셀 피더슨입니다. 아마 장로님께서도 그에 관한 소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브리감 영 대학 선수로 경기를 할 때, 모두들 그를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로 부르곤했습니다. “나는 물론 대부분의 여러분도 그에 관한 일을 소문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속한 스테이크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올리버 카우드리 피더슨 형제님의 일곱 아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두 선교사로 나갔는데 대부분이 텐마아크로 갔습니다. 나는 그가 선교사 임기를 마치고 귀환했을 때 그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가 결혼할 때 신전 추천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더슨 형제는 그의 정원회의 모든 형제가 신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그의 정원회 회원들 중에서 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합당합니다.” 그후 얼마 지난 뒤 내가 교회 가정 복음 교육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생각나 피더슨 형제에게 부탁하여 그의 정원회의 활동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3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해임되어 스테이크 선교부의 선교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임된 후 우리는 나머지 3명마저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가 온 힘을 다해 주님의 사업을 행한다면 그들이 거두게 될 성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현재 한두 명만이 활동을 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과 이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사업의 경우 어떤 스테이크에서는 그들이 달성하려는 목표를 보다 높게 설정한 결과, 현재 각 와드에서는 종전에 스테이크 전체의 수만큼이나 되는 새로운 회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전 사업의 경우에도 신권의 권세를 통하여 일을 행함으로써 인근 스테이크에서 행하고 있는 수의 총계보다 훨씬 많은 수가 매년 증가하도록 하는 스테이크를 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가 참여하는 모든 활동에서, 나는 우리가 막강한 힘을 가진 신권 소유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활동하게 할 만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진실로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는 레이맨이나 레뮤엘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은 그 일이 우리 정원회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애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니파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니파이야말로 간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성약에 따라

매리온 지 룰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형 제 여러분, 급속도로 증가하는 교회 회원 수에 관련된 문제를 생각하면서 내가 느낀 점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긴급한 임무의 하나가 바로 수련 장로와 비활동 장로를 활동화시키는 일입니다. 현재 교회내에는 이러한 형제들이 수만 명이나 있습니다. 더우기 매년 이 그룹에 속하게 되는 수가 활동화되는 수보다 더 많은 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분석해 보면 결국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는 활동 이외에 또 다른 활동을 전개하여 이들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때때로 갖는 오락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개심입니다.

사전에 따르면 개종하다라는 단어는 “전에 믿던 종교나 신념을 다른 종교나 신념으로 바꾸다”라고 되어 있으며 개심이란 단어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바꿈으로써 생기는 영적 도덕적 변화”를 뜻합니다. 그런데 경전에 사용된 개심이란 단어는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는 것, 따라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 보다 충실히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심과 생각과 행동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심의 과정은 단계별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만 개인이 마음속으로 새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참으로 완전히 개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



듭난다라는 말은 영적인 말입니다.

완전히 개심한 자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배치되는 일을 추구하려는 욕망은 실제로 없어지고 그 대신 계명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내포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깃들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그려한 자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3-4)

베드로는 가르치기를 인간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씩어질 것”을 피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품음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가” (벧후 1:4-7 참조) 된다고 하였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는 개심한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베드로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벧후 1:9)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는 비록 침례를 받았다 할지언정 개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경을 보면 개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좋은 예가 베냐민 왕의 고별 말씀이 수록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있으므로 베냐민 왕이 말씀을 마쳤을 때 무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는 “저들은 스스로가 육욕의 상태에 있으며…존재임을 느껴 모두 한 소리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오 궁휼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흐름을 미치사 우리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히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인간에게 오실 하나님의 아들…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오니이다.” (모 4:2)

겸손해진 백성들을 보고 베냐민 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그가…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으라. 그가 천지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믿으며…

“…너희 죄를 회개하여 죄를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믿으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진실로 너희가 이 모두를 믿을진대 이를 행하라.” (모사이야서 4:9-10)

그가 말씀을 마치고 나서 백성들이 자기가 한 말을 믿는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한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기를…우리는 참으로 왕이 이

르신 모든 말씀을 믿으며…그 말씀이 모두 참되고 진실함을 믿나이다…” (모사이야서 5:2)

그러면 어찌하여 백성들은 그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영은 우리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갖게 하시어 다시는 악을 쫓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하시나이다.”

그들은 또 “이제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그의 계명에 복종할 것을 하나님께 언약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모 5:2, 5)

이같이 모든 비활동 회원이 개심할 수 있다면 참으로 홀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업 중에서 이들에 대한 중책을 맡은 장로 정원회 회장되시는 형제님들은 이들을 개심시키기 위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주님의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시어 온 마음을 다해 그대로 실천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관리하는 회장의 의무는 구십 육명의 장로를 통할하여 저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며 성약에 따라 저들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이 회장(단)은 철십인의 회장과는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온 세계에 나가 순회하지 아니하는 자를 회장으로 지명하여야 하느니라.” (교성 107: 89-90)

그들에게 성약을 가르치십시오. 성약이란 둘 이상의 주체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속력이 있는 성스러운 약속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성약을 맺는 백성입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에게 “성약에 따라 저들을 (정원회 회원들을) 가르치라”고 주님이 명하신 오늘날의 계명이 완전하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복음의 성약을 이해하고 믿으며 그대로 실천하는 회원이라면 한 명도 교회내에서 비활동 회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주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자신이 직접 영의 세계

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늘 전쟁 때 그것을 얻기 위해 싸웠으며, 그가 만일 지상에서 충실히 증거하면 영생을 상속받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 이 지상에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는 자기가 지상에서 맺은 성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的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바로 수많은 비활동 회원이 생기게 된 근본 이유의 하나라고 확신히 믿습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되시는 형제님들이 성약에 “따라” 비활동 회원들을 가르쳐 개심시킨다면 이 지상에서 맺는 성약을 가르치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갖지 않은 자에게는 인생의 목표도 목적도 전혀 없읍니다. 따라서 그의 성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비행기 안에서 이 사실을 설명해 주는 한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내 옆에 앉은 낯선 사람에게 직업이 무어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대답을 하고 나서 나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그에게 그가 출생하기 전에 살았으며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출생하기 전에 살았을지 모르며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만 있었지 죽은 후에 올 삶의 형태와 성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에게 가능한 한 간결하게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현재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복음의 계획을 소개해 주었읍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생활의 목표와 인생의 목적을 제시해 주는 것이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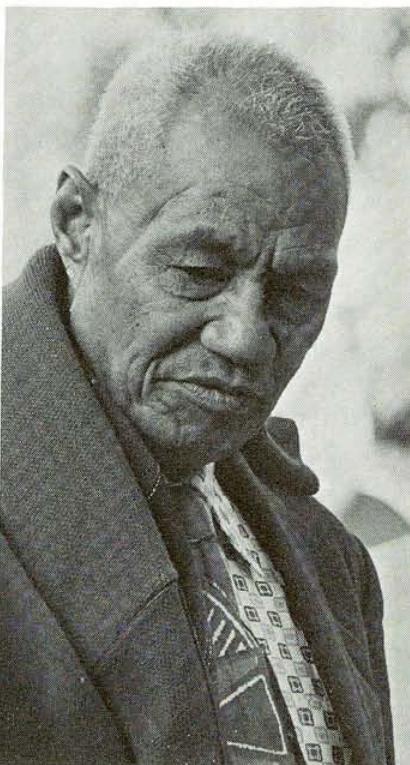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맺는 성약은 바로 인생의 목적인 영생을 얻기 위함이요, 영생은 복음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설명되어 있고, 또한 그 성약에 따라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맺는 첫번째 성약은 침례 성약입니다. 나는 침례 성약에 관한 설명으로서 앤마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보다 더 적절한 설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라 이곳에 물론의 셈이 있으니…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남의 집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법사에 하나님의 종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헤아림을 받고 영생을 얻기 원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너희가 마음으로 이같이 원할진대, 주가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주를 받들어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



음에 꺼릴 바가 있겠느냐?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외치기를,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면 바라 하더라.

“이에 앤마가...먼저 힐램이라 하는 자를 취하여 물속에 들어 가서서 외쳐 이르기를 오 주님이시여 당신의 종 위에 당신의 영을 부으사 저로 이 일을 거룩한 마음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저가 이 말을 할 때에 주의 영이 저에게 임하신지라 저가 이르기를, 힐램이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너의 죽을 몸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언약으로 이미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마련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영생이 그대에게 임하기를 비노라.” (모사이야서 18:8-13)

주님은 이 침례 성약을 이처럼 중요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주 이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교리와 성약 59:9)

우리가 성찬을 들 때 성찬 기도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매주 우리는 자신의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이 침례 성약 이외에 신권 소유자는 모두 매우 특별하고도 성스러우며 가장 중요한 성약 곧 “신권에 속해 있는 성약”(교성 84:39)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성약은 교리와 성약 84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에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백하신 자가 되리라.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라.

“그러나 이 성약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를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교리와 성약 84:33-41)

나는 만일 내가 맷은 성약을 깨뜨려 내게 그러한 형벌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내가 성약을 맷지 않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하곤 했읍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받은 이 신권에 이르지 못한 모든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교성 84:42)라고 기록된 그 다음 구절을 읽었읍니다.

나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바로 신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임을 알았읍니다. 이 성구를 통해서 나는 성신권을 받고 나의 신권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내가 영생을 얻기에 부족하게 되며, 만일 내가 성신권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내가 영생을 얻기에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완전하게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신권을 받고 나의 신권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끝맺으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계명 하나를 주어 너희 스스로 조심하게 하노니, 곧 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가야 할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84:43-44)

이제 네 번째 성약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성약 곧 복음의 “새롭고도 영원한 서약(성약)”, 침례 성약, “신권에 속해 있는 성약”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가르쳐야만 할 성약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성약이란 바로 해의 왕국의 결혼의 새롭고도 영원한 서약(성약)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이러한 성스러운 성약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약들은 “엄숙한” 것들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너희 가슴 속에 간직하라. 그리하여 ...엄숙함이 너희(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하라.” (교성 43:34)

성약에 수반되는 책임은 보상을 받을 모든 자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맷은 성약을 지킬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약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하여 우리의 관리하에 있는 자들이 성약을 깨뜨린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셨읍니다.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관리하는 회장의 임무는 구십 육 명의 장로를 통한하며 저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며 성약에 따라 저들을 가르치는 것이라.

주님은 신권 역원의 의무에 관한 중요한 계시를 끝마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

“무릇 계으른 자는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고 신임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자도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107:89, 99-100)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약에 따라 생활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시며 가르치라고 명하신 우리의 관리하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 하였더라”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나는 단상에 앉아 이 유서깊은 태
버나클에 참석한 많은 신권 소
유자들을 내려다 보면서, 어셈블리
홀, 솔트 펠리스, 프로보의 매리오트
센터, 그외에 캐나다와 미국을 위시
한 전세계 각처에 있는 건물에 모인
수많은 성인 남자와 청소년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예언자
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
씀을 들으며, 진실로 보다 훌륭한 사
업과 보다 나은 생활을 이루하고 또
한 그렇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기
위해 위대한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
들이 모여 있음을 깨닫고는 크게 감
명을 받았으며, 어떤 위암감마저 느
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때보
다도 가장 많은 수의 형제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오늘 저녁 내가 여러분께 말
씀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이 계속 우
리와 함께 하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나는 교회 회원으로 하나님
의 신권을 소유하고 모든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도록 택함을 받은 훌륭한
젊은이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자신
이 누구이며,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
가를 알고 있으며,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교회와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
기 위해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젊
은이들에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젊은
남녀들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신권을
존중하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감사히 여기
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문제를 가진 젊은이들
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회개하고 올바르게 생활하
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충실한 자
에게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자
신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말일에 살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선택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소
유하고 있는 신권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일은 전
혀 없을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시기 바
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부름
이라 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이기에 합
당한 자로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신권과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합당한 주님의 선택받은 종으로서 어
떤 일을 행하도록 예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지도력에 의지하
고 있으며, 여러분은 개개인의 생활

에 선한 영향력이나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향력은 후세대에도 미치
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와 비교해 볼 때 약
999,000대 1의 비율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있으며, 기독
교인들 중에서 약 333대 1의 비율로
우리 교회 회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
는다면 우리의 막중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인류의 역사상 어
느 때보다도 많은 신권 소유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위대한 권세와 영향
력과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을 뿐 아
니라 동시에 감당해야 할 많은 목표
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전세계에 만연된 악으로 생
긴 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이를 해결
하도록 돋는 데 지도력을 제공해 주
기 위해 그러한 권세와 힘과 영향력
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은 말일에 그의 교회를 세우시
어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
니다. 교회의 미래는 물론 세상의 미
래도 우리가 신권의 직분을 얼마큼
성실히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사, 교사, 제사, 멜기세덱 신권 소
유자는 모두 구세주가 쓰시는 도구
가 되며,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
을 가져다 주는 일인 주님의 사업과
영광”(모세서 1:39 참조)을 구세주
께서 성취하시도록 그분을 도와야 할
책임과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자신이 소유한 신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름을 성실히 수
행하며, 매일 온갖 방법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데에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갖게 될 방대한 영향력은 상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측정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가 가진 신권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깨닫지 못하거나, 필요한 때에 의로운 일을 수호하고 남보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확신과 용기와 굳은 의지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소년은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으며, 청년은 축구 선수단의 일원으로서 또는 대학 캠퍼스에서 또는 동료 그룹 가운데서 복음 대로 실천하고 신권을 존중하며 의로운 일을 수호하고 남몰래 선행을 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믿는 자들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여러분을 존경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비난과 조소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주는 그의 확신을 굽히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통과 조소와 모욕을 받으셨으며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멈추어 서서 만일 구제주가 연약해져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사명을 저버리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임무를 저버리는 나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반대와 악을 무릅쓰고 대항하는 용기있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진실하고 충실한 추종자로서 헤아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행할 바를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가진 것 같은 성도들이 복음대로 생활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반대를 무릅쓰고 대항할 용기와 힘을 갖지 않고 있는데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르침과 믿음에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고 행하게 하는 이유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에게 두세 개의 성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을 받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얹매여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함이며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였음이니,”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121:34-36)

그런 후에 다음 성구를 인용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휘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여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훼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딤후 3:1-5)

끝으로 다음 성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 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요 12:42-43)

이 마지막 성구가 바로 오늘 저녁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태도를 지니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만일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오늘 저녁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개선하고, 회개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망각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기 보다는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마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모든 신권 소유자가 자신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할 때 세상에 미치게 할 크나큰 선한 영향력을 측량할 수 없으며, 또한 개개인이 항상 의로운 일을 선택할 때, 그에게 오는 행복과 성공의 삶을 상상하거나 측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의로운 일을 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자를 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나는 국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기있고 좋은 동료가 되기를 원했던 훌륭한 교회 회원 한 명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인기를 얻고자 했던 그는 그의 표준을 낮추어 버리고는 사교 모임에서 술을 한 잔씩 마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술을 마시는 일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심식사나 저녁 식사를 할 때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코홀 중독자가 되어 그의 선거구의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를 사랑하던 친구와 가족의 존경마저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코홀 중독자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는 그가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예는 많이 있습니다.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중에는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였거나 유혹에 대항할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직은 물론, 자존심도 상실하고, 다른 사람



들로부터의 존경도 받지 못하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에 언급된 모든 것이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기를 바라며,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표준을 지키지 못하게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표준에 따라 행할 때 우리에 대해 더 큰 존경심을 갖는다는 것을 다 함께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부 관리로 일할 때나 회사 일에서나 사생활에서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한 것으로 인해서 난처하게 된 적은 전혀 없었다는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의 발전에 지장을 준 적도 결코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존경을 받았으며,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힘과 인도를 받기 위해 주님께 간구하기를 꺼려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나는 종종 힘과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확실히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며 사람의 청찬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표준을 저버리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관리 역할 한 분은 그가 제사였을 때의 경험담을 들려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조지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조지 형제의 친구는 파티를 마치고 나서 그의 여자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도 그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지 형제에게 그들과 동행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조지 형제는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집에 도착하여 다 함께 거실에 앉은 후 조금 있으려니까 그가 집에 까지 데려다 준 소녀가 일어나 걸어나가더니 전등을 끄고 다시 돌아와서는 그의 무릎에 앉아 친근거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인기없는 무례한 자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파를 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들려 주시면서 자기는 오늘날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기를 겁장이라고 여기리라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 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보디발의 아내]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창세기 39: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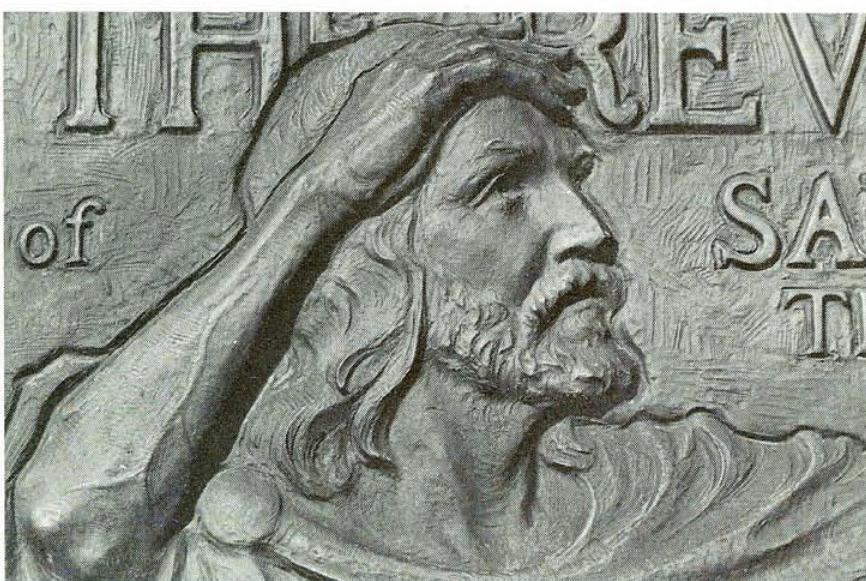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하여 이같은 유혹을 당하게 되었으며, 주님이 어떻게 그를 축복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지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그녀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나는 결코 주님의 종으로서 여기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여러 번 내렸습니다.”

어떤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 청년은 “그러한 행동이야말로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후로 나는 이와 같은 경우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연약함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지만 의로운 일을 택하여 행하는 것은 진실로 용기 있고 기골이 있으며 강한 의지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가장 강한 자일지라도 항상 깨어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 생애의 진로는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좌우됩니다. 청년은 물론 성인들도 이러한 시련이나 시험을 겪곤 합니다. 우리의 충실히 헌신한 성품이 실제로 시험받는 경우에 모든 유혹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보살피고 계심을 잊지 않을 때면 우리는 유혹을 멀리 하거나 피하거나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불장난을 해야만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훌륭한 시민으로서 사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부름과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할 정도로 세상의 일에 지나치게 엄마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곧고 좁은 길에서 점차로 이탈해 나가는 자신을



사도 요한 ; 아바드 페어뱅크의 세 목격자 기념비 ; 템플 스퀘어.

발견할 것이며,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완전히 이탈하게 되고, 우리 자신과 가족과 주님께 실망을 안겨 줄 것이며, 자신이 기대하거나 생각하거나 원했던 인물이 전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한 자가 그의 동료 그룹에게 환심을 사기를 원하며 그들의 칭찬을 받기를 더 좋아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본보기를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흔히 성공에 집착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받기를 더 좋아하는 운동 선수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와 하나님의 인정의 중요성을 망각하며, 그 결과 길을 잊어 버리게 됩니다. 이 원리는 정치인, 친목회 회원, 교수, 실업인 등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이 행동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단지 인사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인격을 낮추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내게 항상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사탄의 어두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전세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했으나 그 영예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 되게 하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결과보다는 명예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영광과 칭찬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매우 중대한 문제에 당면하여 만일 개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는 사탄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은 틀림없이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해로운 것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은 영원하고 유익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리를 꾀하는 임시적인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

더할 나위없는 만족감을 갖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 칭찬이 정당한 것이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심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사람의 칭찬은 덧없고 가장 큰 실망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에게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도덕을 권장하고 조장하는 말로 떠들어대는 자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이같은 악에 대항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십계명의 하나님 “간음하지 말찌니라”(출 20 : 14)라는 계명에 명백히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하려는 것을 보는 것은 진실로 충격적이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고전 6 : 9)

우리는 또한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이와 같은 일을 합법화하는 법률이 이미 제정되었으며 현재 제정되고 있음을 압니다. 이러한 법률은 악을 묵인하는 가장 나쁜 악법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은 그의 신권 소유자인 우리가 의로운 일을 수호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이같은 조치를 반대하고 저지시키며, 성도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도록 권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는 닐 맥스웰 장로의 말씀을 인용해 드립니다. “간직하기 힘들지만 참되며 마땅히 전해져야만 할 일을 기꺼이 말하는 지도자는 진실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친절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그의 추종자들의 칭찬과 찬양을 받기 위해 그들을 안전한 곳에서 떠내 아무도 결코 다시 나올 수 없는 금 속으로 인도하는 일보다 더 잔혹한 일은 없읍니다. 생명에 이르는 곧고 협착한 길은 문자 그대로 곧고 좁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여로입

니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크고 넓으며 그 경사는 완만합니다. 그 길을 걸어 가는 자들은 아래로 떨어지리라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사람의 칭찬으로 주위가 산만해져서 경고의 표시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금송아지와 십계명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1975년 8월 12일자 편지, “명상”, 태너 부대관장에게 보낸 닐 에이 맥스웰 장로 편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실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염두지 못 염두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죽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둘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죽으리라”(디모데후서 4 : 1-4)

네 권의 표준 경전인 성경, 물론 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에 기록된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어 있으며, 말일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시를 주시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계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 : 12)

“...너희 심질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 : 15)고 한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행할 수 있게 우리가 모두 용기, 힘, 이해력, 소망 그리고 결의를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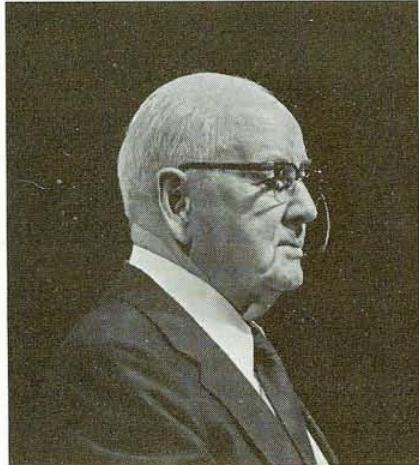
신권 소유자의 특권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

제 여러분, 우리가 225,000명이 되는 성인 남자와 청소년의 일부라는 것을 생각할 때 큰 회열을 느낍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보다 약간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도 있고, 눈동자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있읍니다만 그들은 모두 남자들로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오늘 저녁 이 대회에 참석한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여기서 매우 진지한 교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쉬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되시는 여러분은 모두 신권 소유자가 되기 전에 신앙개조에 관해 배우셨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앙개조를 기억하고 있을까, 글자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외우실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앙개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아버지께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 초등협회 회원인 어린 소년이 기차를 타고 캘리포니아주로 여행하고 있었읍니다. 그의 일행은 아무도 없었읍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전선 주를 바라보고 있었읍니다. 그 소년이 앉아 있었던 좌석의 통로 맞은 편에 있던 한 신사도 캘리포니아주로 가는 중이었읍니다. 그 신사는 어린 소년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읍니다. 아주 어린 소년이 아무 동행도 없이 혼자 여행을 하고 있는 테 복장도 단정하고 태도도 매우 훌륭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신사는 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신사는 통로를 건너 와서 어린 소년의 옆좌석에 앉아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읍니다. “얘야, 어디로 가는



중이니?”

“로스엔젤레스로 가고 있어요.”라고 소년은 대답했읍니다.

“그곳에 친척이 계시니?”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몇 분의 친척이 계세요. 전 할아버님과 할머님을 만나 뵈려 혼자서 가는 중이예요. 그분들이 역에 마중하러 나오실 거예요. 지금은 방학이라 며칠 동안 할아버님 댁에 가서 지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신사는 “어디서 오니? 네가 사는 곳이 어디지?”라고 물어보았읍니다.

소년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예요.”라고 대답했읍니다.

“그리고 보니, 넌 물본인가 보구나.” 신사는 말했읍니다.

“예, 저는 물본입니다.” 소년은 자랑스럽게 말했읍니다.

신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읍니다. “아, 정말 재미있는 일인데. 난 물본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궁금히 생각해 왔단다. 나는 물본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한번 지나가면서 구경한 적이 있지. 아름다운 건물과 가로수가 잘

심어져 있는 거리와 아늑한 집들과 아름다운 장미와 꽃들이 피어 있는 정원을 보았어.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처럼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 자세히 알아보자는 못했지. 물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소년은 신사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께 물본이 무엇을 믿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1조)

그 신사는 약간 놀랐으나 주의깊게 들었읍니다. 소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함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2조)

함께 여행을 하던 그 신사는 “조그만 소년이 이같은 중요한 진리를 알다니 참 처음보는 일인데”라고 생각했읍니다.

소년의 말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었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3조) 이 작은 소년이 가진 지식과 이해력에 놀라고 말았읍니다. 소년은 아직 소년단원이 될 나이도 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은 계속해서 신앙개조 제4조를 말씀드렸읍니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 씨의 칠판.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나는 네가 너의 교회의 교리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구나. 정말 넌 칭찬받을 만한 소년이다.”신

사는 말했습니다.

시작이 좋았으며 격려까지 받은 조니는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암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5조)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건 매우 확고한 교리로구나. 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지 알고 싶어. 난 그들이 부름을 받고 암수 받으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단다. 그런데 누가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 신사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부름과 지지와 암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년은 “더 알고 싶으신가요?”라고 여쭈었습니다.

신사는 이같이 어린 나이의 소년이 교회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실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럼, 어서 말해 보려드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6조)

그러자 또 다른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네 말을 들어 보니까 너의 교회에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가 있고,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니엘과 같은 예언자가 있구나. 축복사도 있니?”

소년은 이 질문에 대해 재빨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축복사가 계셔요. 스테이크가 조직되어 있는 모든 지역에는 그들이 임명되어 있읍니다. 그들은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요청을 받을 때 영감을 받아 모든 교회 회원에게 그 축복을 주십니다. 난 이미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어요. 난 그 축복문을 자주 읽어 보곤 합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는 초기의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부름과 권능을 가진 열 두 명의 사도가 있답니다.”



물론경의 세 목격자들이 천사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금판을 만져 보다.; 아바드 페어뱅크의 세 목격자 기념비, 템플 스퀘어

그 신사는 다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방언을 하며, 계시와 예언을 믿느냐?”

이 질문을 받자 소년은 얼굴에 밝은 빛을 띠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계시와 시현을 받는 은사, 병고치는 은사 및 방언을 통번하는 은사 등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7조)

신사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너희는 성경을 믿는 게로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한 물론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8조)

신사는 우리가 경전은 물론 계시도 믿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년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

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9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옆 지파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륙(아메리카)에 시온이 건설되며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지상을 다스리시고 땅은 새로워져서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10조)

신사는 주의를 집중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로를 건너 가서 다시 자기 좌석에 앉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니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합니다.’”(신앙개조 제11조)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12조)

끝으로 그는 신앙개조 제13조를 암송했습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습니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를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 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소년은 신앙개조를 모두 말하고 났을 때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신사는 교회의 제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는 이 어린 소년의 능력 뿐 아니라 교회의 교리의 완전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로스엔젤레스에서 2일간 머물고 난 후에 내 사무실이 있는 뉴욕으로 갈 예

정이었는데 난 회사에다 전보를 쳐서 내가 하루나 이틀 늦어질 것이라고 알리려고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들러 그곳의 공보과를 찾아 가서 네가 내게 말한 사실에 대해 더 자세히 모든 것을 들어보고 싶어서란다.”

나는 여러분 중에 신앙개조를 아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 중에서 몇 명이나 신앙개조를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신앙개조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개조를 암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개조를 알고 계시면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앙개조는 기본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만일 모든 청소년이 신앙개조를 배울 때 그것을 정확하게 암기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한 단어라도 빼 먹는다든지 잊어 버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내가 신앙개조를 암기한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소젖을 짜는 일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타자기로 신앙개조 13개 조항을 모두 작은 카드에 찍어 젖소 우리로 가지고 가서 내가 다리가 한개로 된 의자에 앉아 소젖을 짤 때마다 내 바로옆에 놓고 그것을 되풀이해서 읽었습니다. 아마 2천만 번이나 될 것입니다. 정확한 횟수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릉든 나는 수십년간 이와 같이 되풀이하여 읽은 후에 신앙개조를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정확하게 암송할 수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나는 그것이 참으로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지 않으렵니까?

성인되시는 형제님들께 나는 몇 개의 성구를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성구가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연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히브리서 1:1-4)

이 성구는 우리에게 교리와 성약 132편을 상기시켜 줍니다. 교리와 성약 132편에 보면 주님은 이 새롭고도 영원한 서약을 받아들여, 롬니 부대관장님이 말씀드린 성약에 따라 생활하는 자들은 천사보다 뛰어난 자들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시중들며 문을 지키는 신들이나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히브리서 1:5)

하늘은 천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통해서 주님의 왕국에서 승영에 이를 이 큰 부름을 받을 자격을 갖춘 여러분은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부언할 수 있습니다.

“또 만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찌어다 말씀하시며”(히브리서 1:6)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온 영혼과 생각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진실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찌니 혹 훌려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히 2:1) 우리는 모든 들은 것을 훌려 떠내려 가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신권의 훌륭한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발견할 때 우리는 결코 이같이 귀중한 것들을 훌려 떠내려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히브리서 2:3) 우리는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그 외의 다른 형제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계획을 마련해 주신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히브리서 2:10)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225,000명이나 경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225,000명이 신이 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진실로 225,000명이나 되는 우리 각자를 위해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세계를 창조하는 일을 돋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과 잠재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출생하는 모든 어린 소년은 이 영광스러운 프로그램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가 성인이 되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신전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생활하고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간직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그들의 위대한 프로그램에 따라 진보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시중드는 천사들과 신들보다 뛰어난 자가 됩니다. 결국 그들은 승영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 132편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받았으며 이미 그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



니다. 그는 승영에 이른 자가 되었읍니다. 물론 그가 죽은 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은 사망으로 멀미 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히 2:14)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신 후에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없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불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들어 주려 하십이라”(히브리서 2:16)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 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주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히브리서 3:1, 3, 10-11)

때때로 우리는 긴 안락의자가 있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 실내화를 신을 수 있는 장소에 있거나 밖으로 나가 푸른 잔디 위에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안식이 아닙니다. 가장 활기 있고 가장 힘든 일을 하며,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을 하는 자야말로 안식을 취하

는 것입니다. 안식은 일을 하다가 쉬는 것이지 일에서 떠나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다른 경전에 나와 있는 몇 개의 성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구는 값진 진주에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권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신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신권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여러분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말씀 몇 가지를 읽어 드려 신권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었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더욱 큰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고 나는 선조의 축복과 이 축복을 나누어 줄 직분에 앤수 성임될 권리를 구하였더라. 나는 의를 쫓는 자니, 위대한 지식을 가진 자가 되고 의를 쫓기에 더욱 큰 자가 되며 더욱 위대한 지식을 가지며 많은 민족의

조상과 평화의 왕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원하였으므로, 나는 조상에게 속한 권능을 지닌 정당한 후사 곧 대제사가 되었느니라.”(아브라함서 1:2)

나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였으며,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도 10대였다고 믿습니다. 그는 선조의 축복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선조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초기의 나라들의 축복사였으며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권능은 조상으로부터 내게 부여된 것 이니,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 왔고 때가 시작될 때 [이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나는 우리가 아담이 지상에 있게 된 때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태초부터, 다시 말하면 창세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해 내려 온 것이니, 장자의 권능이라 첫 사람인 우리의 시조 아담에게 부여되었다가 선조를 통하여 내게 이르렀느니라.

“나는 후손에 대하여 선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명에 따라 나를 신권자로 임명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노라.”(아브라함서 1:3-4)

이 신권이 바로 우리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속받을 후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모든 일은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없이 우리는 결코 신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우리는 결코 인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선조는 의와, 주 저희 하나님께 저들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의 신들을 예배하여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였더라.”(아브라함서 1:5)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갈대아 땅을 떠나 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 갔으며 드디어 하란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터이키입니다. 그후 그는 그곳을

떠나 팔레스타인으로 갔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성구를 읽는 것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나는 두 세 개의 성구를 더 읽어 드리고 말씀을 끝마치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이 내게 임하시사[주님이 제단에 제물로 바쳐진 아브라함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를 멸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아, 보라,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네 음성을 듣고 내려와 너를 구하여 내고 네 부친의 집과 모든 네 친척에게서 떠어내 네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데려 가려 하노라...”

“노아에게 있었던 것같이 네 것도 그려하리라. 그러나 네 성역을 통하여 나의 이름이 영원토록 세상에 알려지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시니라.”(아브라함서 1:16, 19) 주님은 “나는…너를 취하여 나의 이름을…네게 입히리라”(아브라함서 1:18)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이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성신권이라”(교성 107:3) 불리워집니다. 그후 이 신권을 멜기세덱 신권이라 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무 자주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너무 가깝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권을 멜기세덱 신권이라 부르게 하신 것은 참으로 훌륭한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끝마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성구를 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후로 나 자신으로부터 거슬려 올라가 창세에 이르기까지의 연대기 서술에 힘쓰려 하노라. 이는 그 기록이 내 손에 들어와 지금 현재까지 내가 가지고 있음이니라.”[이것은 우리가 이 대회 동안 생각해 본 몇 가지 다른 일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권의 권능에 관한 선조 곧 족장의 기록은 주 나의 하나님께

서 내 손에 보존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창조의 시작과 여러 유성과 여러 별들에 관한 지식도 선조에게 알려진 그대로 오늘까지 내가 간직하고 있나니, 이후에 세상에 올 자손의 유익을 위하여 이 기록에 그 일의 얼마큼을 기록하리라.”(아브라함서 1:28, 31)

형제 여러분, 진실로 신권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에서 교사로 승진하고, 교사에서 제사로 승진하며 그후에 우리가 합당할진대 영원히 지속되고, 우리의 방패가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이르는 걸인 대신권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혼히 “그는 장로에 지나지 않아요” “그는 칠십인에 불과해요”, “그는 단지 대제사에 지나지 않아요”라고 말하듯이 장로로 성임되는 것을 일상적인 평범한 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제사가 되는 것은 진실로 어떤 남자의 경우에든지 그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매우 특별하고 고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주어진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전의 교리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의 그분을 친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서 그분에 대해 간구하며, 우리가 갖는 모든 모임에서도 그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친양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마음에 두고 생활할 것을 거듭 다짐하며 헌신할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실한 뜻과 사랑으로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

엔 웰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템 플 스페어의 이 역사적인 태버나 클에 모이신 여러분과 이곳 이외의 지역에서 저의 말씀을 듣고 계실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독립 이백 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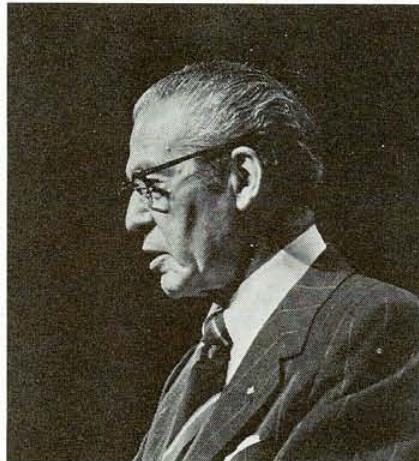
“보라 이 땅은 복된 땅이라. 이 땅을 어느 백성이 차지하게 되든지 이 땅의 하나님 곧 그 나타나심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진대,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것이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자유롭게 되리라.”(이데서 2:12)

주님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세운 혁명한 자의 손을 빌어 이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게 하였으며...”(교리와 성약 101:80)

저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과 함께 우리의 조국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입법자들이 제정한 헌법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에 충성스럽고 헌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 젊은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법이니, 규율이니, 규제가 이리도 많습니까? 왜 하고 싶은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기쁨을 얻기 위함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중 가장 큰 은사가 자유의지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에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과 창조주께서 형성해 놓으신 우주 자체까지도 자연법이라는 법에 의하여 운행되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이나 인간에게도 각기의 법이 있어야만 질서를 세울 수 있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얼마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오늘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율법의 존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세 가지 부제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연법, 둘째, 인간의 법 또는 국법, 세째, 인간의 구원과 승영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법.

먼저 자연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태양이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지구가 하루 동안, 혹은 단 몇 분간이라도 지축을 중심으로 하는 자전을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만유인력의 법칙이 일시 정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이 지구와 온 인류는 멀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공간의 지배를 받으며, 법칙에 따라 운행합니다.

만일 쇠가 열을 받았을 때 어떤 때는 팽창하고 어떤 때는 수축한다면 아무도 기계 상점을 운영하거나 어떠한 도구도 만들어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의 법칙은 불변하는 것이므로, 인간은 언제 어느 때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이 법칙을 의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을 둘이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연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자연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재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달에 인간이 착륙하여 거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발사된 우주선이 공간 속에서 랑데뷰를 한 것을 보고 인간과 우주에 대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화성에 생물체가 존재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바이킹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자연법이 하나라도 무시되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주 공간 활동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며, 생명까지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혜성의 나타남이나 일식 또는 월식을 정확하게 예측할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법, 즉 창조주께서 그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법이 있

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법은 진리의 적용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의 기록에서 발췌한 몇 가지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랭크 크레인：“진리란 우주의 윤리요, 운명의 이성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고안품이나 발견품으로는 어떠한 것도 이 진리를 대신할 수 없다.”(레오 제이 뮤어의 영원한 신호등에서 발췌함, 솔트레이크시티 : 베저렛 뉴스사, 1928년 100페이지)

더블류 레드클리프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본되는 진리에는 진보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그 진리의 의미를 아는 지식과 그것을 적용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발전할 수는 있으나, 진리 자체의 대 원리는 영원히 불변하다.”(같은 책, 101페이지)

요셉 스미스에게 보이신 계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저는 이미 만물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으로 때와 계절에 따라 만물은 운행되느니라.”

“이 운행의 궤도는 일정하여 변함이 없나니, 실로 땅과 모든 유성을

품은 여러 하늘과 땅의 궤도가 그려하니라.

“땅과 별들은 그때와 계절에 따라 땅과 시와 일과 주와 월과 년으로 제각기 서로 빛을 발하나니, ...”

“지구는 제 길을 운행하며 해는 낮에 빛을 발하며 달은 밤에 그 빛을 내고 별들도 제 빛을 내나니, 모두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제각기 영광 중에 자기 궤도를 운행하는도다.”

“보라, 이 모든 것은 다 왕국이니, 그 어느 것이든지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본 자는 위엄과 권세로 당당히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교리와 성약 88 : 42-45, 47)

자연법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거나 못하거나를 막론하고 항상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칙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일지라도 물에 손을 넣으면 맵니다.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다치기 쉽습니다. 자연법을 알고 이해하며 그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그로 인한 혜택을 입을 수 있고, 자연법을 무시하여 역행하는 사람에게 당면하게 될 재난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이제, 국법 또는 인간의 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법의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곧 정부는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으로 믿노니,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복리와 안전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집행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취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지으신 줄로 믿는다.

“우리는 정부가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 재산의 소유권, 그 관리 및 생명의 보호를 보장하는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침범당하는 일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일지라도 평화롭게 존립할 수 없음을 믿는다.

“우리는 모든 정부가 정부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관리 및 장관을 요함을 믿으며 공평과 정

의로써 법률을 집행하는 인물은 공화국의 경우 백성의 투표로써 기타의 경우에는 주권자의 의지로써 공직에 등용되어 지지되어야 함을 믿는다.”(교리와 성약 134 : 1-3)

신앙개조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

모든 시민은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은 국법을 알고 이해해야 하며, 시민은 정부의 제반 사무를 처리해야 할 정직하고 현명한 자를 선거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어떤 법률을 통과시켰고 그 법률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합헌적인 법률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헌성을 의심하여 무시하고 어기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악법이 존재한다면 되도록 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한 악법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법 준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에 동의합니다.

“법을 거스리고 경멸하는 자는 자가 앓으려는 판자를 톱으로 절라버리는 사람과도 같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법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사회를 붕괴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법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사회 미덕의 기초가 되며, 그 반대는 폭동과 무정부의 기초가 됩니다.”(케이스 앤드 코멘트, 3/4월호, 1965년, 20페이지)

법을 무시하고 파괴하거나, 법을 자의적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니다. 예수를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합당하냐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법을 지키는 위대한 시민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금내는 돈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 있느냐고 질문하신 후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



고 답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마태복음 22:21) 모든 나라의 시민은 자기가 살기로 택한 국가에서 그 나라의 국법을 지키며 생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자기의 고유하며 빼앗길 수 없는 권리로 정부의 법률로 보호받는 동안, 각자가 속하는 정부를 지지하여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보호를 받는 국민으로서 치안 방해 및 모반을 획책함은 온당치 아니하며 따라서 그 같은 자는 응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또 모든 정부는 공공의 복리를 보증하기 위하여 정부의 판정으로 가장 잘 계획된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양심의 자유를 신성하게 유지시켜야 함을 믿는다.”(교리와 성약 134:5)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연법과 같이 분명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변경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 행복과 불행은 모두 이 법을 우리의 생활에 잘 적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르게 됩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라.”(교리와 성약 130:20-21)

복음에는 인간 관계,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 관계되는 생명의 법, 즉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에서 자연법이 확실하게 적용되었듯이 복음이 관계되는 범주 안에서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지식을 얻어야 하는 중요성과 법을 지켜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성도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

리와 함께 부활하리라.

“만일 어느 사람이 근면하고 순종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었으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교리와 성약 130:18-19)

주님의 말씀이 너무도 우리에게 분명하여, 그의 율법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분명하게 마련되었는데도 왜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우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여 스스로 비참하고 불행한 길로 들어가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음을니다.

예언자 야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주의 훈계를 따를지니, 보라 너희가 이미 스스로 알고 있으려니와 주는 지혜와 공의와 크신 자비로써 주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니라.”(야 4:10)

솔로몬은 그의 크신 지혜로써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보여 주고 있는 걸 표시판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찌니라”(출 20장 참조)

산상수훈을 여러분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위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마태복음 22:37-39)

이 두 가지 계명이 이 세계에 미치

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킬 때 평화와 의로움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예언자를 통하여 직접 계시하시는 모든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다른 경전을 지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오늘날 주님께서 도구로 삼아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할 때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주님에게 있어서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까지 희생하였으며, 그의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되었고 불사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기회와 축복과 특권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10)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무릇 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는 나의 제자なり라. 그러나 말로는 율법을 받아들였노라 하나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 너희 가운데서 쫓아 낼지니라.”(교리와 성약 41:5)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연 차 대회 때마다 조금 일찍 이 위 대한 태버나클에 도착하여 통로를 거닐면서 대회에 모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큰 낙입니다. 이 모임은 참으로 세계적인 모임입니다.

우리가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악수를 나누면서 눈을 마주 대할 때,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공통되는 결속 즉 형제애, 자애애를 느끼게 되는 것을 볼 때, 서로 언어가 다르더라도 또 다른 대화의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서 대회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통역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단지 예의 있게 경청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면 공통되는 주제가 거듭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국가를 사랑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국가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조국이 기뻐문입니다. 저는 미국 독립 이백 주년 기념 행사를 계획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미국 역사를 분명하게 볼 수 있거나 정부의 운영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임무를 맡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몇 개월 전 저는 미국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한 특별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미국



독립 이백 주년 기념 행사에 종교인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하기 위하여 연 모임이 있었습니다. 약 4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워싱턴 디 시에 모여 이틀에 걸쳐서 우리 종교인들이 이 기념 행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참으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지만, 반면에 저는 그야말로 자유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이 프로그램 중 약 20명씩의 소 그룹으로 나뉘어 교회가 이 기념 행사를 위하여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날 토의를 마치면서, 제가 이 모임에 함께 참석하도록 초대했던 두뇌가 명석한 젊은 동료에게, 미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필요로 하며, 미국 정부를 형성해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내용으로 교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선언문 초안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그날 밤 몇 시까지 앉아서 초안을 잡았는지 알지 못합니다만, 다음날 아침 조반을 들 때, 청년은 훌륭한 초안을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다시 모였을 때 우리 토론 그룹에 초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서으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희망은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규모의 종교 지도자 그룹은 주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된 선언문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선언문은 무신론자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그들의 신조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강한 신념이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말살 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저는 강력하게 반기를 제시하였습니다. 논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사이의 의견의 합치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체 그룹에 내어 놓을 선언문을 하나도 채택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자 심한 충격을 받고, 저는 우리의 선언문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종교 지도자를 찾아 갔습니다. 그 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더욱 심한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소위 기독교인 회중의 지도자로서 상당한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제 물음에 대한 답변이 이러

했읍니다.

질문：“선생님께서는 이 나라의 기초를 형성했던 초기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대답：“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 하였지만, 모든 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직접 지시하신 증거는 찾아 보지 못했습니다.”

질문：“그와 같은 철학을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매주 회중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교하십니까?”

대답：“그거야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회중의 대표 그룹을 모아서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그것이 설교 제목이 되는 것이니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워싱턴 디시에서 회의에 참석하면서 저는 물론 회생적이며 훌륭하신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지만, 이 여행에서 집에 돌아와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교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임을 끝내면서 저는 이 나라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선언문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 이백 주년이 되는 올해안에 적어도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나의 신념을 밝히겠다는 강한 결심을 갖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옹호할 수 있는 용기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나의 개인적인 간증을 널리 공포하겠습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에게 계속 지시와 인도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로운 정부의 기초는 인간의 수고를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법이라는 나의 강한 확신을 나는 가르치겠습니다. 모든 의로운 정부는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태너 부대관장님께서 인용하신 경전은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세운 혼명한 자의 손을 빌어 이

나라의 혼법을 제정하게 하였으며 피흘림으로써 나라를 구속하였느니라”(교성 101 : 80)

나는 우리 국가의 기초를 세우신 조상들의 가슴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신념과 꼭같은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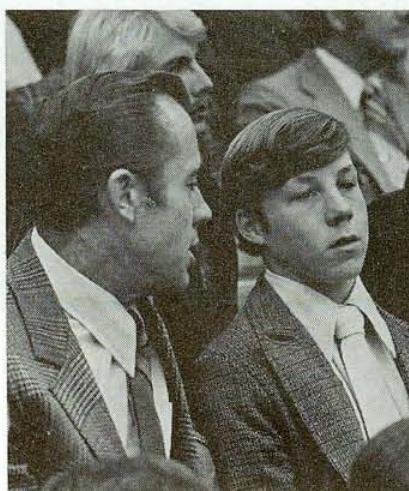
조지 워싱턴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 올바르게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그의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공화국이 설 수 있는 반석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차 나의 신앙을 확실히 말씀드리오니, 주 여호와는 지금도 그의 자녀의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법은 주님의 법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법을 지지하고, 응호하며,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둘째, 저는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인간의 공통적인 의견의 합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능을 부여 받은 적은 결코 없었으며, 또한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지식이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인하여 성스러운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내가 받은 여러 가지 간행물 중 한 곳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이와 비슷한 다른 사실을 기초로 하여, 몇몇 관측자들은 사회가 변천함과 동시에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필연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밟아야 했던 결혼 체제는 점차로 폐기되어야 할 미래를 맞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윌리암 에이치 매스터스와 버지니아 이 존슨, 더 플레저 본드, 토론토와 보스톤, 리틀 브라운 앤드 컴퍼니, 179페이지) 그들은 결혼의 새로운 기독교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독단주의가 부지불식간에 천천히 인도주의에 굽복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 체제를 벗어난 관계가 하나님께 충성스런 수단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장함으로써 크게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주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지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임을 저는 압니다. 주님의 계획에서 자연적인 질서를 관찰해 볼 때, 나는 고쳐야 할 점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지구는 같은 방향으로 자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축의 기울기 각도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중기는 바다에서 구름으로 올라가 지상으로 내려진 것이 강으로 흘러 다시 바다로 가는 일정한 순환작용을 계속하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유익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만드신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의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때 그가 그 갈빗대로 하나님을 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쥐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쥐하였을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창세기 2:18, 21-24)

남편과 아내의 결합은 주님 보시기에 성스러운 것이며, 경솔히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성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의 사명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율법은 남편과 아내의 성스러운 결합을 보호해 주는 법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 주신 여러 계명 중에는 “간음하지 말찌니라”(출 20:14)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지상에 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영원한 율법을 재삼 강조하셨습니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7-28)

물론경에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미대록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은 역시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며…”(도 13:22)

주님께서는 또한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같은 지시를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고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어 쫓기리라”(교성 42:24)

하나님의 율법에는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세기의 모든 경전마다 변형하지 않고 인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옛날 사도 바울이 하셨던 경고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죽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죽으리라”(딤후 4:3-4)

하나님의 율법에는 변경되지 않을 일관성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즐거움과 만족과 화평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작가가 묘사한 다음 성구에서 나타나는 정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시 24:1)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라고 아는 것을 옹호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 말씀

극동 지방의 신앙과 사업

애드니 와이 고마쓰 장로
십이사도 보조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나는 이 반연차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이 축복과 기회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 대회의 훌륭한 분위기,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과 그밖의 여러 총관리 역원들이 주신 지시와 충고를 기쁜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셔서 이 대회의 분위기에 보탬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요한의 다음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멀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상의 그의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 우리가 지상 생활을

마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지상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

구세주께서는 계속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요 12:24)

오늘날 이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많은 수를 점하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 중의 극동 아시아에서는 이 간단한 진리가 하나님의 지상의 자녀를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업은 아시아 민족 가운데에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극동 지역에는 3개의 선교부 만이 존재하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15개의 선교부와 5개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필리핀, 대만, 홍콩 그리고 한국에서 열렸던 지역 대회에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과 그밖의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 대회에 참석했던 비회원과 회원의 수는 약 45,000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많은 회원과 비회원에게는 이번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어 보는 경험이기도 하였습니다.

동경에서, 킴볼 대관장님께서 신전건축 계획을 발표하시자, 그와 때를 같이 하여 회중들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의 박수가 터져 나왔으며, 이어 이 계획에 대한 거수 지지를 물을 때 회중은 묵묵히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아시아에 최초의 신전을 짓게 된다는 계획에 모두 기쁘게 지지하였습니다.

김볼 대관장님께서 아시아의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충고하시는 모습과 성도들이 지시와 인도를 감사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기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각기 다른 나라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대관장님은 보다 많은 계보 사업을 해야 할 중요성과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셨으며, 신전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크나큰 축복을 가까운 미래에 신전이 지어지는 날에 교회의 회원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는 신전까지의 거리가 집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먼 여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현재 여행하고 있는 하와이보다는 가까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또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청소년을 선교사로 나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훌륭하게 양육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시아 전역의 수 많은 백성에게 전파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선교 사업에 있어서 우리의 결음의 폭을 넓여야 하며, 우리의 청소년을 이 위대한 사업에 협조하도록 준비시키라는 킴볼 대관장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이 과업은 아시아의 모든 성도의 노고를 요구하는 과업입니다. 우리는 “모든 회원은 선교사이다”라는 맥케이 대관장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많은 회원에게는 이 지역 대회가 기적적인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거나 지역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꿈도 꾸어 보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물론 경 예언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 모로나이는 이제 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리로다. 내가 세상에 밝히 전하고자 하거니와,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라야 증거를 얻겠음이라…

“인간에게 신앙이 없을진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보이시지 못하실 것이라, 저들이 신앙을 갖기까지 친히 나타내어 보이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어느 때를 막론하고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기적을 행한 자가 없으니, 저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더라”(이데 12:6, 1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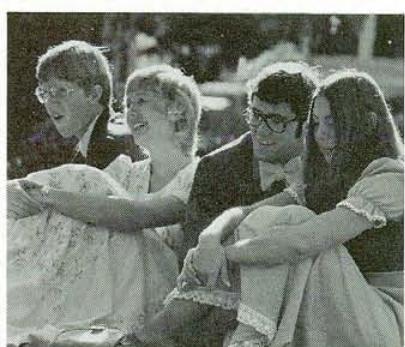
확실히 여러 나라에서 지역 모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성도들의 강한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각기 자기의 나라에서 지역 모임을 준비하면서 신앙을 크게 증진시키는 경험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은 성도들의 신앙과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끼나와섬의 미군 지방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끼나와의 회원들이 지역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약 1,450km 떨어진 동경으로 여행하려는 준비가 한창일 때, 미군 지부에 있던 청년들은 한 활동적인 오끼나와 가족이 동경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가족에게 가서 왜 대회에 가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계획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문제도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지부의 젊은이들은 곤 파자를 팔아 이 가족을 대회에 참석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군 젊은이들은 부모의 집에서 파자를 구었읍니다. 그들은 구운 파자를 들고 미군들에게 다가 가서 파자를 파는 목적을 설명하자 군인들은 모두 조금도 주저치 않고 파자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자 구매 가격 이상으로 돈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젊은이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젊은 오끼나와 가족은 지부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동경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 지부의 젊은이들은 주고 사랑하는 데에서 위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진실로



남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갖고 있는 것을 주는 사람이 생의 가장 충만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격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사랑을 퍼부어야 합니다—우리의 친절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식물을 물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입니다. (전 11:1 참조) 텔리 형제님이 그의 대장간에서 쇠를 쇠에 용접하듯이, 우정은 인간 가족과 행복을 용접시킵니다.”(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16페이지)

지역 대회를 준비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사랑의 경험을 나누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들은 또한 학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문화의 밤 프로그램에서 무용을 하면서, 또한 많은 위원회에서 봉사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 자신을 내어 주는 것은 인생의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라.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교성 59:5-6)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 이웃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구하면서 낙담을 없애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친구를 갖고 싶으면 항상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하고 시기심을 버려야 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에 크게 기뻐할 줄 알아야 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어서 여러분의 사랑이 공허함이나 불친절함을 가득히 채워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활동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가정 복음 교사, 방문 교사, 새로 개종한 가족과의 우정 증진, 또는 비활동 회원과의 우정 증진 등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우리는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15:12)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요,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요셉 스미스는 말일에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인자이십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오늘날 이 지상에서의 주님의 사업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자이심을 겸손하게 간증드리면서, 이 모든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 말씀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보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건물에서 첫번째 대회가 열린 이래로 108년간 이 단에 섰던 많은 사람들의 고귀한 영을 느끼면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린 많은 간증을 느끼면서, 제가 이 연단에서 세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애드니 와이 고마쓰 형제님을 따라 갈 만한 훌륭한 분이 없습니다. 그는 간결하고 겸손하신 분으로, 실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남은 여생을 그분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싶습니다. 학창단에서 나오

는 영적인 힘은 또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해 줍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와 함께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기 정도의 차이가 다른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은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신께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해 주신 간증을 생활을 통하여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스코틀랜드의 작가

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도 알 수 있으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으며, 그는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 스미스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회복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경륜의 시대”인 선택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나타나 보여질 모든 경전을 실제로 모두 갖게 된 “때가 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펙서 더블류 캠볼 대관장님이 말일에 계시를 통하여 교회를 인도하도록 부여된 모든 신권의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중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하여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는 중요한 문제를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서 숨길 수 없었습니다. 폴로니아스는 그의 아들 레아티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습니다.

뭣보다도 너 자신에게 충실해라.
그러면, 차면 밤이 낮을 따르듯이
넌 남에게도 반드시 충실한 사람이
된다. (햄릿 제1막 제3장)

이것은 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 자신과 우리 동료에게 어떻게 충실하느냐에 관한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태도는 우리 자신을 오류로 몰아 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돌보도록 허락할 때 오는 균형과 조화는 인생 자체의 본질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행위를 막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영감있는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왜 때때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자신을

움츠려 고립시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저의 간증을 드립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육신을 얻고 이 지체를 가지고 지상에 살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생활할 것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지상의 모든 만물에는 상대되는 것이 있음을 압니다. 불이 강철을 더욱 강하게 연단시키듯이 상대가 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른 이의 도움 없이 혼자서 돌아갈 수 없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잘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7) 복음 계획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앙 하나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봉사받는 “행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게 되는 많은 과업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행해질 수 없읍니다. 출생에는 지상의 부모가 필요합니다. 유아 축복, 침례, 성신의 은사, 교회 회원이 됨, 신권 성임, 선교 사업, 결혼, 자녀를 갖는 일, 병자 축복 등등 모든 일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랑과 봉사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는 우리가 혼자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과 함께 오기를 원하시며, 또한 인생의 길을 함께 도우며 걸었던 사람들과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복음 계획의 참된 본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기대는 상호의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결함을 지니고 있읍

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자신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신의 도움이 없이는 간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오신 분—조상의 도움이 없으면 계보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마 25:40 참조)에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총관리 역원으로서, 교회의 대관장님과 그분의 보좌, 그리고 십이사도들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지구상에 보내어 고난과 불완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생애와 경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경험



치친 손수레 개척자들 마흔리 영의 ‘바로 이곳이다’ 기념비.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 온 우리의 생활과 앞으로 있을 생활이 모두 우리의 몸과 영과 정신을 보다 완전한 상태에 머물게 해 줍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결한 복음의 원리입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고난을 겪고 봉사할 때, 곧 복음 계획의 매우 근본적인 부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군 중위로 있을 때, 우리 비행 중대는 “명예롭게 돌아오자”를 우리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토가 중대 전체의 모든 대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토는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제트 전투기를 타고 손가락 편대로 비행하였습니다. 잠시 엄지 손가락을 손바닥 밑으로 접으시고 손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대를 선두기로 하는 4대의 비행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두기는 좌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오직 목표를 향해 돌진합니다. 다시 이번에는 두 손가락을 각각 모아붙여 보십시오. 역시 여기에도 선두기와 보호기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편대에서 떨어져 나온 단독 비행기는

보호받지 못하여 결국 분명히 파괴되고 만다는 것을 쓰라린 경험으로 알았으며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의 단독 비행을 감행하려 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인하고, 서로 나눔으로써 오는 기쁨과 축복을 부인하는 걸까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원리는 18세기의 유명한 아일랜드 시인, 토마스 무어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업차 떠난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윗층 침실에 들어 앉아서 문을 잠그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어는 그의 아름다운 아내가 철연두를 않아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이 읽어졌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창문의 셔터를 내리고 남편을 다시는 안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무어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층으로 올라 가서 어두운 방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가 램프에 불을 당기려 하자, 아내는 자기를 어두운 방에 혼자 남아 있도록 해달라고 남편에게 애원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의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

에게 나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어는 아내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는 아랫층으로 내려 가서 밤새도록 정성을 다해 시를 썼습니다. 그는 한번도 노래를 지어 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가사 뿐만 아니라 꼭 까지 지었습니다. 날이 밝아 오자 무어는 아내의 어두운 방으로 갔습니다. “당신 일어났소?” 그가 물었답니다.

“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시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강요하지 마세요, 여보.”

“그러면 당신을 위한 노래를 불려주리다.” 토마스 무어는 아내에게 지금까지도 불리워지는 그 노래를 불려주었습니다.

믿어 주오, 오늘 내가 기쁘게 바라보는,

그대의 젊고 아름다운 매력이,
요정의 선물처럼

내일 내 품에서 스려져 버려도
이 순간의 그대를 애모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변함없을 것을,
무어는 아내가 혼자 외롭게 누워
있는 어두운 방 구석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계속했습니다.

그대의 아름다움이 이울어진 후
그래도 사랑스러운 당신의 모습에
내 가슴속 깊은 곳의 모든 소망이
뜨겁게 것들고 싶어라.

아일랜드 노래, “믿어 주오, 그대의 젊고 아름다운 매력이”의 1절 ; 빌렛의 휘밀리어 큐테이션 542페이지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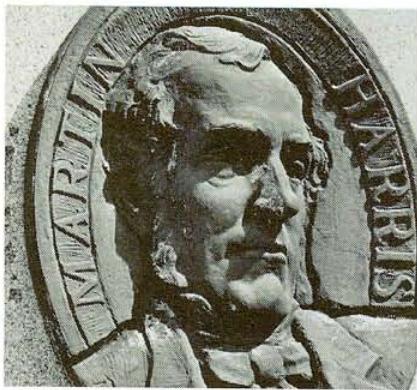
노래가 끝났습니다. 그의 음성이 사라지자, 무어는 아내가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창문 끼로 가더니 천천히 셔터를 올리고 커튼을 열고는 아침의 햇빛이 들어 오게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내가 셔터를 열고 빛과 생활을 받아들여 저와 나누고 있음을 아내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내조가 없었더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을 때, 우리의 첫번째 반응



토리프 내퍼스의 손수레 개척자 기념비, 템플 스퀘어



마틴 해리스, 세 목격자의 한 사람; 아바드 페어뱅크의 세 목격자 기념비, 템플 스퀘어

은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 안으로 기어 들어 가서 희망과 기쁨을 흐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대로 생활한다는 것을 알므로써 얻는 생의 빛을 막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려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를 잘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에게까지도 반항하게끔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조그만 방을 지성소로 여겨서 그곳에 들어 앉아 혼자서만 깊은 사색에 몰두하는 은둔된 생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은둔 행위는 결국 반대자의 어두운 영향력으로 이끌어, 실의와 외로움과 좌절에 빠지게 하며, 자기 자신을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합니다. 일단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기게 되면 점차로 영적으로 결핍된 동료들과 친분을 뗇게 되고, 자신의 영을 받고 보내는 안테나를 무용지물로 만들게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말해 주는 사람에게 조언을 묻거나 그와 사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해의 영광의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돋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몸을 털리는 것이 더욱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앨마가 그의 아들 힐라멘과 시블론에게 주는 다음 경고의 말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말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네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번성할지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리라.” (엘 38:1, 엘 36:30 참조)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서 생을 살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뿐 아니라 생의 기본적인 사명에 대해서도 진실되지 못한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 혼자 처리하겠어.” “나 혼자 있게 해줘.” “네 도움은 필요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경험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움이 되어 주지 못할 정도로 경험에 있어서 빈곤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있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을 친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보냈습니다. 로빈새 한 마리가 해마다 우리 집 처마밑에 등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 새가 새끼를 쳤을 때, 어미새의 거동을 유심히 지켜 보았습니다. 어미새는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새끼들이 날 때가 되자 어미새는 새끼들을 등우리에게 솔찍 사랑스럽게 밀어 냈습니다. 새끼들은 날개를 파닥거리며 땅으로 미끌어져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날아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미새는 땅으로 내려 가서 새끼에게 먹이를 찾는 법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미새는 새끼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어미새의 도움없이 “혼자서 해보려고” 애쓰는 어린새를 보곤 했는데 그 때마다 안스런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어린새가 계곡의 백합이 피어나는 바위 밑에서 죽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온둔자는 극단의 이기주의자입니다

다. 그는 이 생애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받은 은사와 재능을 자기 내부에 깊숙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나 소외감은 마치 장기판의 출병처럼 우리를 인생의 경기장에서 떼어 내 버립니다.

미국의 시인 위티어는 그의 시에서 인생과 인간 상호간의 의존성에 관하여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들어 올리고 나 또한 그대를 올리리니
우리 함께 높이 오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거나 다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명예롭게” 되돌아 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저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으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과 봉사의 행위를 하였을 때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힘과 간증을 키울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한없는 축복을 퍼부어 주십니다. 또한 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위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구도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컴볼 대관장님처럼 정직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이웃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복음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모두 이해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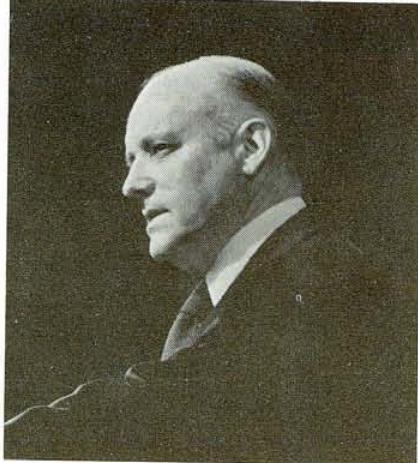
태버나클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오늘은 이처럼 많은 회중이 자리 를 하고 있는 이 텁풀 스퀘어의 물몬 태버나클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건물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현당된 때로부터 100년이 되어 두 번째의 세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건물은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서부 횡단로”에서 물몬 태버나클을 합창단과 을겐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을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1875년 10월에 최초로 가졌던 대회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대회이며, 그 대회에서 바로 100년 전 어제 태버나클이 현납된 것입니다. 이 건물을 건축할 때 참여했던 초기 개척자들의 수고와 노동과 세상적인 물질의 희생은 이곳에 오거나 음악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수 많은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 건물을 짓던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미시시피 강둑에서 정든 집을 남겨 두고 떠나는 초기 개척자들은 서부에 대하여 아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광야를 가로질러 걸고도 혐난한 여행 끝에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 가게 된 때는 1847년 7월 24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계곡과 주변 마을을 탐색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오후 늦게 되어서야 도시의 위치가 정해졌으며 브리감 영은 신전이 세워질 곳에 그의 지팡이를 땅에 꽂으셨습니다.

목요일, 뉴멕시코에서 해체되었던 물몬 대대의 일부 그룹 약 400명이 계곡에 들어 와 성도들과 합쳤습니다. 이들은 곧 신전 부지의 남동쪽 모퉁이에 모임 장소로 “정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버나클의 전신인 것이었습니다. 산에서부터 기둥을 깎아 내어 옮겨다가 세우고, 잎이 많은 나무 가지를 올려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계곡에 지은 최초의 이 건물은 그들이 도착한 날로부터 1주일이 되면 토요일에 완성되었습니다.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정자의 그늘 아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정자는 물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개척자들이 이 정자를 2년 동안이나 사용하다가, 같은 장소에 좀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하여 정자를 허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은 정자의 지붕은 나뭇가지를 전흙으로 이겨서 만든 것으로, 일백 개의 기둥이 밟치고 있었으며, 첫번째 지은 정자와 마찬가지로 벽은 없었습니다. 좋은 날씨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자는 3년 동안 집회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즈음에, 성도들은 새로운 정자를 세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고, 집을 지었습-

니다. 그들은 모임을 갖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보다 영구적이며, 모든 종류의 일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들은 태버나클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건물의 층 면은 어도우비 벽돌로 트러스 구형 지붕을 받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자에서 그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기둥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후에 올드 태버나클이라고 알려진 이 어도우비 태버나클을 건축하는 데에는 1년이 걸렸으나, 1852년 대회는 이곳에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점차로 계곡으로 모이게 되자 대회가 되면 이 건물은 충분히 크다고 볼 수가 없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은 입장할 수도 없어 되었습니다. 2년 후 4월 대회에서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넘치도록 많이 모인 성도들 7천명을 야외로 인도하여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해 10월 대회가 있기 전에 세 번째 정자가 세워져서 대회 참석인을 모두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적합한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새로운 태버나클 건축 설계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셨으며, 이것이 곧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태버나클인 것입니다. 초기 개척자들이 이 황량한 계곡에 도착한 지 겨우 15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1863년 4월 대회에서는 많은 연사는 건축 예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성도는 모두 이 건물을 짓기 위하여 금전으로나 노동으로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 자재는 제한되어 있는 테다가 운반할 수 있는 철로도 없는 개척 지대의 사람들로서 이와 같은 방대한 건축은 모험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수입해 들여 오는 자재는 무엇이고 전부 미

주우리 강에서부터 횡소로 운반해 와야 했습니다. 십일조는 이미 10년 전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신전 건축에 모두 충당되었기 때문에 이 태버나클 건축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성도들이 내는 현금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자유 의사대로 자기의 소유품—보석, 건축 자재, 빵, 노동, 현금—을 바쳤습니다.

이 건물은 길이 약 76미터, 너비 약 45미터에, 양 끝은 반원형을 이루며, 46개의 외부 기둥(피어)이 지붕을 지탱해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높이 약 7미터의 외부 기둥 끝으로부터 타원형 지붕 꼭대기까지의 높이는 약 13미터가 되므로, 건물 전체의 높이는 20미터가 되었습니다. 바닥은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가 약 5미터 가량 차이가 나도록 경사를 이루게 하여 시야의 지장을 덜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설계하고 공사하는 그 당시에는 내부 기둥이 없는 건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1863년 봄부터 건축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더글라스 요새의 후방에 위치한 산의 레드버트 캐년에서 크고 불은 사암을 채석하였으며, 대부분의 재목은 와사치 산맥의 소나무 숲에서 벌목하여 빅커튼우드 캐년의 목공소에서 켠 것입니다. 태버나클의 중앙부가 제일 먼저 지어졌으며, 다음에는 서쪽 만곡부가 첨가되어, 내부 기관의 공사와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볼트, 못, 철근등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재목을 올려 놓으려면 보에 구멍을 파고 맞춤못을 구멍 속으로 끼워 맞추어 놓아야 했습니다. 끝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부분은 쇠기로 단단하게 조여야 했습니다. 재목이 잘라지면 푸른 생가죽으로 단단히 묶어 재목이 마르면서 바이스처럼 단단히 결합되게 하였습니다.

방대한 파이프 올겐을 만든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최초로 이 올겐을 연주했을 때, 장정 5명이 한 조를 이루어 올겐 바람통에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조금 후에는 지하실에 물레바퀴를 장치하여

인력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기가 들어 옴에 따라 전력이 이러한 바람통을 대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자 좌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측면과 후측으로 중이총을 만들어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여러 가지 모임과 대회를 이 건물에서 갖긴 하였으나, 이 건물이 현납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875년 10월 대회에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철도가 개통되어 있었으므로, 유타 지방을 방문한 최초의 미합중국 대통령, 울리시즈 에스 그랜트 대통령은 성조기와 만국기로 장식한 특별호를 타고 일요일에 도착하셨습니다. 주일학교의 어린이들은 정거장에서부터 워커 하우스까지 줄을 지어 서 있었으며, 그 뒤로는 수많은 시민들이 대통령과 그를 경호하는 진대열을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신문은 솔트레이크시티의

주민을 약 2만 5천명으로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주민에 비례하여 볼 때, 공공 종교 의식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건물의 수는 미국내 다른 어느 도시나 마을에서 볼 수 없었던 많은 수였다. 교회와 집회소의 총 좌석수는 아마도 이 지역의 남녀노소 모든 주민을 앉히고도 남을 충분한 수로 추측이 된다.”(솔트레이크 헤럴드지, 1875년 10월 3일, 6 : 102) 다음날 아침 그랜트 대통령은 주지사 에머리와 함께 텁풀 블록으로 가서 새로이 완공된 태버나클을 돌아 보셨습니다.

토요일 일반 총회 오전 모임을 시작하면서,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존 테일러 장로가 현납 기도를 드리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현납 기도문 전문을 읽어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일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고대 성약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정하신 그때에 저들이 감사하는 마음과 통하는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고, 당신께서 저들을 흘러 놓으신 열방의 국가에서부터 저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이 저들의 조상의 유업을 물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구세주를 알게 하여 주시오며, 예루살렘의 주님의 왕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덧붙이셨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당신의 길에서 떨어져 방황하는 레이맨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저들의 조상에게 그들의 자손과 성약을 새로이 하겠노라고 약속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당신께서 저들에게 꿈과 시현을 보여 주시어 당신을 알기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데저트 뉴스, 24 : 594)

오후 모임에서 조지 큐 캐논 장로는 가정과 가족을 떠나 선교사로서 세상에 나아갈 사람들의 명단을 불렸습니다. 105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회에서 태버나클 연단에서 이름을 부름으로써 선교사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에 선교사의 수가 늘어 나게 되자 방법이 바뀌어져서 대관장님과의 최종 연락이 있은 후에



“한 사람은 밀고, 한 사람은 끌어야 했습니다.”

부름을 주게 되었읍니다. 만일 종전 대로 연차 대회에서 이름을 부름으로써 선교사의 부름을 주게 된다면, 바로 이 대회에서는 7,923명의 이름을 불러야 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3 일간의 총 대회 시간 중 절반은 이름을 부르는 시간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6개월 전에 가졌던 연차 대회 이래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바로 7,923명입니다. 아마 이곳에 모인 회중의 수와 거의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지 큐 캐논 장로는 이 전물이 완성된 후, 그러나 아직 혼납되지 않았을 때, 바로 이 연단에서 선교 사업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대관장님의 말씀에서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주민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과 앞으로 역사하실 일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백 명의 장로들이 동부 여러 주로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장로들은 유럽, 서부, 태평양 군도, 아시아, 아프리카로 가며, 온 세상의 전역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의 수백만 인구가 이스라엘의 장로들로부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선포한 이 복음의 소리가 지구의 이끝에서 저끝까지 울려 퍼질 날이 가까왔으니, 이는 모든 민족으로 증언처럼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생활 환경은 달라질 지 모르나, 회복된 복음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으며, 진리는 영원히 불변합니다. 먼저 가신 분들의 노

고와 희생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었으며, 우리도 우리의 후세에게 축복을 전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워 주었읍니다. 이 건물은 우리의 의무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입니다. 이 건물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대버나클의 정문으로 들어 왔던 사람과 이곳에서 나가는 음악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를 통해 들게 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위대한 선교 사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선교사들은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참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산과 광야의 2천 마일을 진군하는 물몬 대대 ; 길버트 리즈월드의 물몬 대대, 기념비, 유타 주 의사당.

죽은 자들의 구원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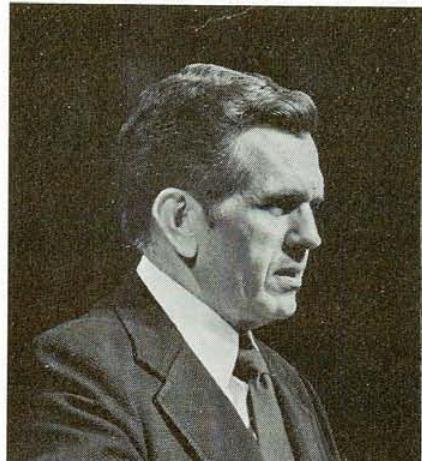
형 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주제를 택하게 된 것은 이 일이 매우 성스러운 일이므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느낀 바가 크며, 또한 여러분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밖에 없다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권능은 오직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둘째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으로서 필요한 의식 즉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권능을 선포하시기를 주저하시거나 후회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사도들 역시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가르침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오직 한 길을 예비하여 주었읍니다.

수 세기를 거치는 동안 인간 거의 대부분은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였읍니다. 그 길은 설명하기 어려운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한 길만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고 판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여, 교리



마저 변경시켰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마 7:14)라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주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엡 4:5)라는 엄한 강조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배타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침례가 매우 중요한 의식이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원칙을 듣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개종시켜, 주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침례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의 교회에서 복음을 어느 정도는 전파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애쓰지 않고 다만 그들이 교회 회원이 된 것에서 만족하고 있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강한 선교사 정신과 활발한 선교사 활

동은 이 교회가 참된 복음을 전파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개종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목표에 대해서 성급하게,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 우리는, “아마 그렇지 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 낼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추측과는 반대로 우리는 의롭게 축복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이 사업을 위해 기꺼히 바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목표와 견주어 볼 때 우리의 노력은 보잘 것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도처에서 이룩하고 있는 것과 계획되고 있는 것을 헤아려 볼 때 이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선교 지역에 나가 봉사하며 그 사업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선교사들만 하더라도 21,000명이 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그렇게 엄청난 것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만큼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두 개인적인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혼을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베푸는 우리의 책임을 잠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업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성실하게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증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밝혀 주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침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침례받지 않고 죽은 자들에 관한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그들이 그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죽었다면, 또한 침례는 꼭 필요한 것인데 그들은 침례를 받으라는 권고조차 받지 못한 채 죽었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인간 가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교파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큰 종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수 세기 동안 그 종교의 신자들은 침례라는 말조차 들어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로 제정한 권세는 무엇이며, 그렇게 제정해 놓고도 그 권세의 영향권 안에 많은 인간 가족이 들어 오지 못하는 것을 허락하신 권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문제에 대답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인간 가족은 잃어버려도 좋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며 또한 공의와 자비의 윤법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어떻게 기독교의 교리가 지지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교리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침례받지 않고 죽은 많은 인간 가족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좌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행할 권능을 주장하거나 모든 인류를 구원

하는 일을 관리할 권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침례받지 않고 죽은 자들의 운명에 관해서 아무런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침례 그 자체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직 계시되어야 합니다. 나는 계시된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계시는 주님의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특징입니다. 계시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경건한 마음의 자세로, 침례받지 않고 죽은 자들의 문제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매우 신성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우리는 매우 기이하고 우리가 꿈꾸어 보지도 못할 신성하고 영감적이며 참된 이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여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초기에, 예언자께서는 계시로써 이 사업은 고대에 세워진 성전과 같은 신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지시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행해져야 할 의식이 계시되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무시되어 오는 또 하나의 고대 경전 중의 한 성구가 이해되고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고전 15 : 29)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합당한 권능으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침례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독교 세계의 일부에서만 믿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 즉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진

리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출생이 곧 시작은 아닌 것처럼 죽음이 곧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 사업은 이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에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 : 25)

1918년 10월 3일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다음 성구를 깊이 상고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벧전 4 : 6) 그때 그에게 놀라운 시현이 열렸으며 그 속에서 그는 의로운 자들의 회중을 보았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기회를 얻지 못했던 자들을 보았으며, 용감하지 못했던 자들도 보았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한 사업을 보았습니다. 이 시현에 대한 그의 기록을 인용하겠습니다 :

“나는 주님께서 악한 자들이나 진리를 거부하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영옥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는 의로운 자 가운데서 그의 군대를 조직하고 권능과 권위를 받은 사자들로 임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암흑 속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인간의 영에게 복음의 빛을 전파하도록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죽은 자의 구원에 대한 시현” 유타 계보 및 역사지 1919년 1월호 3페이지)

죽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그들이 필요한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대리 침례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중요한 의식으로부터 면제되기를 요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주님 자신도 이 의식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대리 침례를 위해 열

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친척의 기록, 실로 전 인간 가족의 기록을 모아 고대에 설계된 것과 꼭 같은 신전의 침례탕에서 이 성스러운 의식을 행합니다.

“그건 이상한데”라고 말할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것이며 신성한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시며, 침례는 필수적인 것이며 주께서는 진리를 가르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던 모든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전 인간 가족에게 말입니까? 그저 불가능한 일이죠.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일만 해도 굉장히 목표인데 이 세상에 이미 살았던 자들을 위한 대리 사업이란 전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그럴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이 일을 성취하는데 변명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의 노력이 정말 보잘 것 없지마는 다른 어느곳에서도 죽은 자들

을 위한 이와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분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수억 명의 명단을 모았으며, 그 사업이 여러 신전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세워질 다른 신전에서도 이 사업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규모가 그렇게 엄청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만큼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 찾지 못할 이름에 대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당신은 그것을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당신은 계시라는 것을 있으셨군요” 우리는 이미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많은 기록들을 찾아냈읍니다. 각 회원들은 계시를 받아 정말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가족 기록들을 찾아내도록 인도를 받습니다. 이 일을 할 때는 다른 일에서 느낄 수 없는 영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완수했을 때 우리는 나머지 일을 받게 되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말일성도들은 이 일을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행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구원 의식은 이 세상에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며, 따라서 이것이 침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행함으로써 산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읍니다. 이것은 가족 생활과 그것의 영원한 지속과 관계되는 것이며, 우리가 지닌 가장 신성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 즉 우리의 가족 관계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과의 결합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가족 기록에서 한 편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의 정신을 다소나마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읽어 드릴 편지는 아리조나주 그라함군 사포드, 1889년 1월 17일자 편지로 그후 며칠 후에 돌아가신 우리 가문에서 최초로 교회 회원이 되셨던 저의 증조부, 조나단 테일러 페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며느리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수주 동안 저의 증조부가 겪었던 고통과 병고를 설명한 후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를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하여 누군가가 해 주기를 바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님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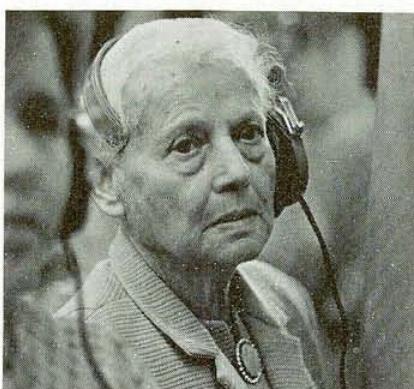
그런 후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남은 가족 모두에게 복음 원칙에 충실하라고 하셨고 모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곱의 축복이 내리시기를 간구하셨고,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볼 때까지 잘 있으라는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마르다 아가씨, 눈물이 앞을 가리워 행간을 볼 수 없습니다, 이만 출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올케, 매리 앤 팩커로부터”

저는 저 세상에 계시는 저의 증조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나는 완전한 복음이 지상에 있기 전에 살아 계셔서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침례받도록 권고도 받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나의 조상들을 만나 볼 수 있음을 압니다.

죽은 자를 위한 이 교리야말로 다른 주장자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참된 교회로 구별할 수 있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교회 신도들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침례는 필수적이라고 선포한 명백한 교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연간 가족의 대부분이 결코 침례를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계시가 주어졌으며, 그 계시에 따라 이 성스러운 의



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침례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한 계시가 교리와 성약 128편에 있습니다. 저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편의 마지막 두세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 하려느냐? 전진하여 물려서지 말며, 용기를 내라. 형제들아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자.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 하라. 세상 사람들아, 노래 불러 울려 퍼지게 하라. 죽은 자여, 임마누엘 임금께 영원한 찬양의 찬송가를 부를지어다.

저는 창세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그 옥에서 속량해 줄 수 있게 정하셨느니라…

“산들아, 기뻐 소리지르라. 너희 모든 꿀꿀기여 크게 외치라. 너희 모든 바다와 마른 땅이여, 너희 영원하신 임금이 행하신 기이한 업적을 말하라. 또 너희 강과 시내와 개천이여 즐거움으로 흘러내리라. 숲이여, 들의 모든 나무여, 주를 찬양하라. 너희 굳은 바위여, 기쁨의 눈물을 흘려라…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회원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또 말일성도로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치자. 주의 거룩한 신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안

에서 주께서 모두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 있는 책을 주께 바치자”(교리와 성약 128 : 22-24)

저는 이 사업이 참된 것이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오늘날 이 지상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계셔서 이러한 위대한 책임을 성취하도록 현대의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주님은 살아 계시며 그는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이 일을 관심있게 지켜 보시고 계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말씀

나의 유산은 선택된 것

조지 피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과 예언자 앞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를 돋고 계시는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크나큰 영광이요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형제 자매 여러분께 제가 리하이와, 니파이와 그밖의 물론경의 모든 위대한 예언자들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물론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자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참된 유산 즉 나의 참된 정체를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물론경의 자손이고, 리하이의 자손입니다. 저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그 밖의 위대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풍부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한 이 나라의 위대한 인디안 추장의 후손임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레드 크라우드, 시팅 블, 치프 조셉, 치 덧지, 치프 크레이지 호스 및 그들 백성들의 지도자의 일을 잘 수행했던 모든 위대한 추장들의 후손



임을 자랑으로 여기며, 이들이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들이 모두 낙원에 있다 해도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인디안들 중 열마간은 개종하였다 해서 저는 놀라지 않을 것이며 지금 선교사와 네째 번 토론을 갖고 있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난 나의 풍요한 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디안 보호 지역이나, 다른 도시 혹은 바다의 섬에 살고 있는 저의 백성 레이맨인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된 유산을 받았습니다. 레이맨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와 이 지상의 모든 자들을 위해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살아 계시며 이 지상의 하나님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서로의 상이점을 치워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을 맞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된 영들을 더욱 많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 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요일 성도가

아니라 삼백 육십 오일 정도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말일성도들이 선교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그의 교회에 데리고 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해의 왕국에 들어 갈 어떤 보장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의 왕국에 들어 갈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야 하며 주님이 제림하실 때까지 성실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진리를 찾고 계시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온 세상의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저는 두 가지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십이사도가 있고, 예언자가 있으며 계시에 의해 다스리지고,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침수로 침례를 베푸는 다른 어떤 교회나 조직이나 생활 방법을 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이 교회와 같은 어떤 다른 교회나 생활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그리고 성지에서 조직하셨던 것과 똑같은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번째 목표입니다. 둘째 목표는 여러분 주위를 둘러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름다운 창조물, 즉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솜씨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토록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지를 지니고 있는 우리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여러분 눈 앞의 나무와 풀과 우주와 달과 해입니다.

죽어야 할 인간 중에서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야 할 우리 인간이 풀이나 우주나 달이나 비, 눈, 나무, 우리가 먹는 바로 이 음식들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 할 우리 인간이, 오늘 우리가 살면서 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요, 학자로서 우리가 바로 우리 눈 앞에 걸쳐 있고 정밀하며 정확한 이 아름다운 창조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안에 비치는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그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복음은 그 분의 계획이며 이것이 그의 생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 갈 낙원에도 미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곳에 가게 됩니다. 제가 인디안이라 해서 낙원에서 인디안 보호자를 찾지는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호피족이라 해서 호피 보호자를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낙원에는 일본이 따로 없으며, 중국이 따로 없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살게 됩니다. 의롭게 살며 끝까지 견딘다면 우리는 모두가 같은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엔 미국이나 나바호족 보호지가 따로 없으며 하나님의 방법 아닌 어떤 다른 생활 방법도 따로 없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말씀

선교사 정신

렉스 디 피네가 장로
칠십인 제일 평의회

주님께서는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관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더우기나 오늘 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의 부름에 응하는 교회 회원들의 열성은 실로 감격적인 것이었습니다. 1973년에는 매달 평균 761명의 새로운 선교사들이 부름에 응했습니다. 1974년에는 매달 847명으로 증가되었으며 1975년 첫 9

개월 동안은 매달 거의 120명 끌이 되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이 보였던 선교사 정신은 그들 중 누군가가 썼던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읍니다:

“그 부름을 받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워서나 슬퍼서나 당황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신뢰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니파이는 제가 갖고 싶어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위대한

신앙을 적용할 만한 큰 과업에 부딪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들이 주님의 부름에 응하기 위해 커다란 개인적 희생을 치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운동 선수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 직업 운동 선수가 될 기회를 잃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젊은 이들은 주를 위해 ‘무장하기’ 위해 학업이나 취직 준비를 연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땀은 고귀한 본보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음의 브라질 출신의 한 젊은이가 보여 준 것입니다:

페르난도 레끼노는 어느날 그의 조그만 지부 성찬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그는 선교부장으로부터 모든 젊은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킴볼 대관장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또는 필요한 일인가를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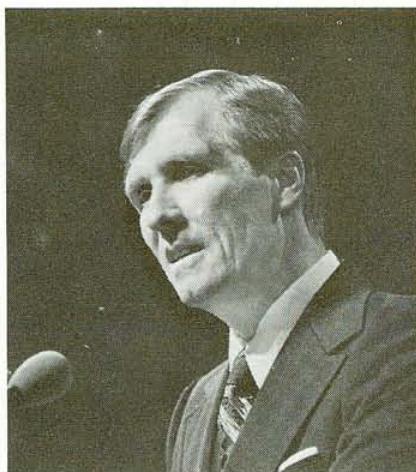
그는 그 당시 견습공의 일을 시작하였으므로, 겨우 학비만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고 그가 교회에 가입하는 데 별로 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관장님의 말씀이 그 젊은이의 마음을 끌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아침 그 청년은 조용히 그의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에 대한 그의 사랑과 존경을 말씀드린 후 있는 용기를 다하여 아버지의 눈을 곧바로 쳐다보면서 부드럽고 겸손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을 위해 교회의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는 완강히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는 페르난도에게 그를 선교사로 내 보낼 만한 돈이 없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두 땀으로 흘러 내리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상속으로 받을 땅을 모두 팔아서 선교사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페르난도는 그의 부친에게 하나님의 예언자께서는 모든 젊은이들이 주를 위해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도록 부탁하고 계시며 또한 자기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가 신령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 주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페르난도를 열싸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네가 상속으로 받은 땅 전부를 희생시켜서라도 그 일을 그토록 하고 싶다면 선교사



이와 같은 회원에 브라질 파라메이파 출신의 한 용감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잡자는 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이 사리바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그들에게 명함을 준 뒤 그들이 그 명함 속에 인쇄된 자기의 이름이 제이 사리바 시온 장로를 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명함을 읽고 나서 대개 그들은 이렇게 물습니다: “이 시온이란 무슨 뜻이지요?” 그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아 당신은 시온에 대해 모르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지요.” 사리바 형제는 그때 그에게 말일정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와 같은 용기있는 기교와 열성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리바 형제는 130명 이상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으로 인도했습니다.

고향에서 일하는 또 하나의 주님의 병사는 한 택시 운전사입니다. 그의 차속에는 “나는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렇게 물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이 훌륭한 형제는 그때서야 자기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에 속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승객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면 그는 운전석에 마련해 둔 물론경을 한 권 꺼내어줍니다.

이 충실한 회원은 200명 이상에게 개종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이 사업이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모두가 이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있고 충실한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포도밭에 심은 씨앗으로부터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며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께선 하나님의 유품되시는 종이시며 우리의 예언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영의 언어

조선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보조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이 영적인 대회에 참석하여 이 성스러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이곳에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으며 여러분 대부분도 그것을 느꼈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굽힐 줄 모르는 신앙과 기도는 주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예언자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께서는 리 형제가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 받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버지께선 나와 여러분들처럼 인디안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부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은 나의 전 생애에 있어 가장 풍요로웠고, 가장 큰 향상을 가져다 주었으며 또한 가장 도전적인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유럽 사람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갈구를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왜냐구요? 그들의 심령이 몹시 깊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령의 깊주림을 복음의 진리로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공허하고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현자라는 자들이 주창한 경제 철학의 혼합은 문제들을 거의 풀지 못했으며 참된 행복을 가져 오진 못했습니다. 그러한 무용한 해결책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적인 물질만을 추구하도록 이끌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따름으로써 확고히 설 수 있는 의로운 생활만이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진리를 외면케 했습니다. 복음 이외에



는 아무것도 이러한 간절한 심령의 깊주림을 채워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깊주림을 찾아내고 둘추어 내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유럽에서, "...기근을 땅에 보내나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gal"(아모스 8:11)이 있을 것이란 아모스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몇 가지 단순한 진리를 재설명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내가 겪은 경험들은 나로 하여금 그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첫째, 난 예전엔 미처 몰랐던, 말보다 더 강한 매개 수단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 실로 그것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단순한 말의 사용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명백한 언어라도 혼란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이제, 내가 관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는 언어의 장벽이 없습니다. 언어에 의한 의사 전달 수

단을 능가하는 보다 유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에 의해 우리의 마음에 전하여지는 전달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어느곳을 막론하고 언어나 방언에 관계없이 구세주의 성령은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복음을 쓰는 모든 심령에게 임하는 보편적 전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최근의 경험에서 세계의 어느곳에서나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사실을 느꼈으며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확실성을 간증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진리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고대 오순절날 전파하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있는 이러한 기적에 관한 묘사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 날이 이르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하여 저들에게 임하실 성신의 관리로써 성임되어 이권능을 받은 자를 통하여 제각기 자기가 쓰는 언어와 문자로 충만한 복음을 듣게 되리라"(교성 90:11)

성령의 힘이 말이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교회의 부동산 책임자 피터 모우릭 형제의 경험에서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제는 구시청 건물 구입을 교섭하기 위해 시장을 포함한 시청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만약 그 건물이 구입된다면 그것은 교회 예배당으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여기엔 인접한 시의 시장도 참석했는데 이는 최근에 시 경제가 바뀌어 이 거래엔 그 두 도시가 다 관련되어 있는 까닭이었습니다. 시장과 관리들에게 모우릭 형제를 소개한 사람은 좀 경솔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종파... 이 교파... 이 단체를 대



표하는 모우릭씨입니다.” 그는 결국 엔 “이 교회”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모우릭 형제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시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시장이 대답했습니다. “이 모임은 아직 시작도 안 되었는데 무슨 이의가 있단 얘기지요?”

모우릭 형제가 응수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누구를 대표하여 무엇을 대표하는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 지상에 있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시장은 모우릭 형제를 소개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대해 무슨 말이든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소.”

모우릭 형제는 이것으로 서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인접시의 시장은 큰 소리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 조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2년이 넘도록 그 교회에 학교 건물을 빌려주었는데 그들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지요. 난 자주 그 학교 마당의 수영장에 가곤 했는데 어느 날 밤에 그 수영장 곁에서, 교회 회원들의 특별한 모임을 갖는 걸 보았습니다. 그

들은 침례식을 행하고 있었지요. 나는 그들 뒤에 앉아 조용히 지켜 보았습니다. 그들은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것은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찬송이 있은 후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아멘’이라 할 때 그들도 함께 ‘아멘’이라 했는데 그것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후 10대의 한 소녀가 일어나 그리스도와 교회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를 얘기했습니다. 그 소녀는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렸는데나 역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난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진지함과 하나가 되는 그 영적인 단합을 볼 때 더욱 감동이 되었습니다. 난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지요. ‘이 교회에 대해 더 좀 알아 보도록 합시다. 더 많은 것을 알아 볼 필요가 있소.’”

시장의 얘기가 끝나자 모우릭 형제는 말했습니다, “시장님, 당신은 우리 교회의 훌륭한 감독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다시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여 그 곳에 자리한 자들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모우릭 형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장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왜 그 건물을 가능한 한 싸

게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를 여러분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이 훌륭한 건물을 매단한 염가로 사 들였습니다. 이것은 모우릭 형제가 용기있게 그의 간증을 나타낼 수 있었으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간증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이 성령은 시장에게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시 관리들에게 교회에 대해 호의적인 느낌을 전하는 말을 하도록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전하는 것은 말이 묘사하는 위력 그 이상의 것입니다:

둘째론 나의 선교사 시절에 재 강조되었던 사실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기적적인 방법으로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태리에 새로 부임한 선교사인 그레이디 쇼오 장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름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 임지에 부임한 지 두 주일 밖에 안된 쇼오 장로는 선임 동반자가 아팠으므로 온 종일 그의 아파트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누구에게나 복음을 얘기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백만이 넘는 이름들이 실려 있는 전화 번호를 접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는 세 명을 골라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첫 번째 번호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둘째 번호를 돌렸을 땐 여자가 받았는데, 그녀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우기 그녀는 그의 부족한 이태리 말과 흥한 말투를 알아 들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자가 나왔고 쇼오 장로가 자기를 소개하자, 부드럽게 응해 주었습니다. 그는 마릴리아라고 자기 이름을 알려 주며 장로들을 기꺼이 맞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약속은 너무나 기적적으로 이루어져 그것이 영적인 향상과 고무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째 토론을 마친 후 마릴리아는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선교사들께서 전도하시면 그 거리에 위치한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를 지나치며 여러 번 그들을 보았으나 수줍음으로 말을 걸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났군요” 그 후 우린 “선생님”이란 호칭을 “형제”로 바꾸어야 했읍니다. 그가 공부를 마치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릴리아 형제는 현재 나포리 지부의 지부장단에서 봉사하고 있읍니다.

워스린가에서의 이러한 일은 백년 전 나의 고조부이신 헤오플드 워스린으로부터 비롯되었읍니다. 그는 스위스에서 태어난 젊은 청년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부모가 반대했읍니다. 이 일로 그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이르는 길고도 힘든 여행을 하게 되었

던 것입니다. 그 몇 년 후, 그는 브리감 영 대관장님으로부터 스위스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 폐히 승낙하고는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 선교사로 떠났읍니다. 나의 고조 할머니께선 할아버지가 안 계시는 동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 개당 1페니씩을 주는 소금 부대를 기웠읍니다.

나는 내가 깊이 확신하는 고조 할아버지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또한 영원한 증거로써 그분의 말씀과 나의 말이 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헤오플드 워스린은 매우 겸손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의무를 충실히 완수했을 때 난

축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계율리 했을 때는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자신을 주의 깊게 지켜 보며 우리의 이 의무를 충실히 마쳤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말을 덧붙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아버지와 그 아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를 통하여 참되고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승영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말씀

계보 탐구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교회 촉복사

태 초에 하나님께선 아담을 지상에 두시고 그에게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높은 지위와도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이 땅의 만물을 다스릴 지배권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선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창 2:18)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를 위해 돋는 베يل이 되게 여성인 이브를 주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선 그들에게 변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큰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면 동산 밖으로 면져 죽음을 맞불 운명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곳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읍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최초의 가족 단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설립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인간의 발전 과정에 있어 변천되거나 폐기해 버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친근하고 소중한 모든 것은 우리의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의 중심은 사랑이며 사랑이 있는 곳에 또한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지혜로우신 주님께선 인간이 이 지상에서 행복하며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방안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가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이와 같을진대 내세에서라고 달라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족 단위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선 이 지상의 모든 가족이 함께 인봉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복천년이 끝나기 전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신권의 권능에 의해 한 가족으로 결봉되어야 합니다. 신권의 권능으로 땅에서 결봉하면 하늘에서도 결봉될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입니다. 지상에 온 모든 사람은 각자 복천년이 끝나기 전에 이를 인봉에 대한 축복을 받아들일 기회를 누구나 가지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이 인봉의 축복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 오는 침례 의식을 통하여 얻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아내는 현세와 영원을 통해 남편에게 인봉되는 것이고 혼외 출생한 자녀들도 현재의 부모에 마땅히 인봉되어야 하며 그래야

만 새롭고 영원한 언약 하에 태어난 것처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율법을 모르고 죽은 자들은 대리 축복을 받을 특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산 자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하고 그런 다음 우리 가족들 중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들의 기록을 모아 그들을 위해 이 위대하고 중요한 사업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128편에서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을 인용해 보도록 합시다.

“나는 단언하거니와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원리 원칙이니 우리의 구원에 관계가 있어 결코 가볍게 넘겨 버릴 수 없는 것이니라. 이는 죽은 자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임이라 바울이 선조에 관하여 말한 것 같이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하게 될 수 없고 우리의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연고니라” (교성 128 : 15, 히 11 : 40 참조)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부활의 원리를 가르치며 다음 말로써 결론을 맺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고전 15 : 29)

이는 바울의 시대에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가 실시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모로나이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준 첫 지시 중 하나는 말라기 4장 5-6절의 인용이었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떨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요셉 스미스 2서 38-39)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에서 가장 큰 책임은 우리의 죽은 조상을 찾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56페이지)

이것은 침례 및 인봉 사업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 즉—교회 회원으로서 지상에 살고 있는 자들만이 아닌 이미 지상에 살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우리의 조상에게까지도 행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선 첫째 부활의 열쇠와 신권의 권능을 회복하심으로써 이 위대한 사업을 해 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1836년 4월 커틀랜드 신전에서 엘리야가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인봉 열쇠를 회복했을 때 행해졌습니다. 그 후 주님께선 이 선택된 시기에 내 보내려고 보류해 두셨던, 복음을 받아들일 용기 있고 강한 특별한 영들을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지상의 모든 곳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들 선택된 영들은 복음이 주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엔 이들로부터 비롯되어 그들 가족과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신전에 나와 그들 자신의 인봉을 마친 다음 그들 조상을 위한 대리 인봉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선 더 한층 이 사업을 돋고 계십니다. 특별히 선택된 영들을 지상에 보내셔서 그들의 지혜를 축복하여 과학적인 수단과 시설을 개발해 낼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이름들을 수집, 분류, 보관, 점검하는 일을 중복없이 조직화하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선 우리가 더욱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울 만한 일은 모두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도움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많은 개종자들이 그들 부모를 인봉할 기회를 얻기 위해 기꺼이 많은 돈과 노력을 바치며 그 일을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린 가능한 한 우리 조상들의 모든 기록을 함께 수집할 필요



가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지런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시간이 날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간이란 결코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도 가족을 인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아주머니나 그밖의 다른 친척이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변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보 탐구를 하는 젊은 여성은 다음의 질문을 받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족보에서 해적이나 전파자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인물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책임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단지 그가 한때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만이 나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그가 있었던 덕분이며 그 빛을 짓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위해 침례와 인봉 사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이 사업이 없이는 아무도 완전히 될 순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교회 일에 바빠 이 제보 사업에 시간을 낼 수 없었다는 변명을 받아들일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이 일을 모두 행하지

못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은 꼭 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드립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부지런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선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록을 모으거나 특별한 선교 사업을 행할 위치에 있음을

니다. 여러분이 수락만 한다면 주님께선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것이며 그런 일을 행함에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훌륭한 회원들이 많은 기록들을 그저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록들을 모으긴 했으나 신전 사업을 위해 아직 보내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 기록들을 신전으로 보냅시다. 그곳에는 그 사업이 행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의 권고에 따릅시다. “실천하라” 이 말씀은 이 대회를 위한 훌륭한 표어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천하라”

주님의 재림을 위한 우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사업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있길 빌며 이 사업은 곧 주님의 사업임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말씀

사랑은 시간을 요한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최근 나의 친구가 유익한 경험 한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어린 아들에게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직장에서 돌아와 어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넌 이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이 말에 아들은 “아빠, 절 사랑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저랑 함께 놀아 주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그의 아버지가 알아야 할 것을 잘 말해 주었읍니다.

세상에는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개인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사랑은 현실적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편의, 매력, 자극, 충동 또는 정욕 등을 사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것을 표현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지속되지 못하는 단어의 나열에 지나지 않거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충동적인 감정 이상의 깊은 것이 아니라면, 이 얼마나 헛되며 공허한 것이겠습니까. 최근에 한 대학생 그룹은 늙은 세대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



에서 그들에게 가장 역겹게 들리는 말은 “제가 도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제게 알려 주십시오.”라는 말이라고 내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말보다는 행동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적당한 기간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고 재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동으로 증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진실된 사랑은 시간이 걸립니다. 위대하신 목자께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

라”(요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먹이라”(요 21:16)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랑은 선언이 아닙니다. 사랑은 발표가 아닙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기분도 아닙니다. 사랑은 방편이나 편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의 사랑을 “먹이는 것”과 “지키는 것”的 과정을 통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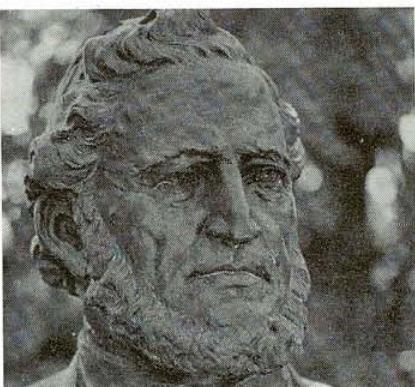
이곳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한 주립 교도소에 갑금될 만한 연령을 약간 넘은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사랑의 과정에 관해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받은 그의 감동적인 편지를 보면 그를 현재의 상태에 처하게 만들었던 원인과 그가 받고 있는 고민에 대해 분석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버릇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면서 온갖 사랑의 표시를 보이려고 하셨지요. 그러나 저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너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혀 성가신 일을 하도록 강요받은 일이 없었고, 도덕적인 교육과 영적인 훈련을 전혀 받아본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이 순간까지도, 저는 나의 부모가 저지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한 이 친구로부터 받은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너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를 친구라고 일컫는 것은 그가 나에게 이와 같은 도움이 되는 말을 주었기 때문이며 나는 이 말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대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먹이는 것과 지키는 것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는 가족들을 위해 식료품을 적당히 공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수년 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로부터 보호해 주는 지붕을 머리위에 가리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나는 이 청년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은 음식을 공급해 주는 이상의 것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뺨만으로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읍니다. 먹인다는 것은 사랑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육체적, 도덕적, 영적, 정신적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기강과 모범과 관심이 서로 잘 어울린 사랑과 사려 깊음과 친절의 과정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사방에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는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음의 명귀를 항상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집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삶과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랑



브리감 영, 교회 제2대 대관장이며, 교회를 복키 산맥에서 발전시킨 위대한 지도자

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읍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 21: 14-17)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먹여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하루의 일을 계획하면서 혹은 재미와 오락과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생각을 나누면서 발전과 의견과 계획의 영양을 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이러한 요소는 오직 사랑하고 염려해 주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시련의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 동정과 위안을 베풀려 갔다가 오히려 유가족의 신앙과 신뢰에 의해서 영향을 받

고 온 적이 있읍니까? 우리들이 지키고 먹이는 일에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확실히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사랑과 위안의 말은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읍니다. 만약 우리들이 끊임없는 도움과 희생으로써 돌본다면 우리의 이웃과 가족은 우리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생명 그 자체와 같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끊임없이 먹이고 지키고 돌보는 데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의 자녀들을 알고 있으니 선을 행함에 지칠 필요는 없읍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지 말로서만 사랑을 표시하는 일에 지쳐 있을 것이 틀림없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하셨읍니다. 그의 방법은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만 봉사하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며 양을 먹이는 정도에 따라 그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나타납니다.

시간 시간, 매일 매일, 매달 매달 서로를 사랑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의 드물지 않은 예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예를 드물지 않은 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매일 매일 끊임없이 행동화된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어느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미망인에게는 13, 14세 되는 아들부터 선교사 연령의 아들까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을 모범과 고된 노동으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계를 꾸려나갔으며, 가족들을 격려하고 단합하게 했습니다. 먹이는 과정과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녀는 세 자녀를 위대한 선교사로, 학생으로, 남편

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최근에 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시간을 들여서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들이 고등 교육을 추구하고 그들 자신의 가족을 갖기 위하여 계속 발전하는 동안 오늘날까지도 진정한 사랑의 과정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지방 건설업자의 기술과 태도에 놀랐던 적이 있었읍니다. 완전을 향한 그의 소망과 일에 대한 그의 궁지가 나로 하여금 그에게 말을 걸게 하였고, 그리하여 그와 친해지게 되었읍니다. 그는 젊은 청년이었을 때 여러 명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혼자의 힘으로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의 정규 교육은 8년 뿐이었읍니다. 그의 동생들이 그들 자신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자 곧 그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일년이 지나자 그의 아내는 어떤 심한 오랜 만성 질병으로 고생하기 시작하여 25년 동안을 앓는 사이에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갔읍니다. 그는 그녀와 그의 두 아들을 사랑했읍니다. 여러 번의 수술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으나 그는 열심히 일했으며, 무조건 돌보고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를 방문한 후 내가 정말 훌륭한 분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정말, 사랑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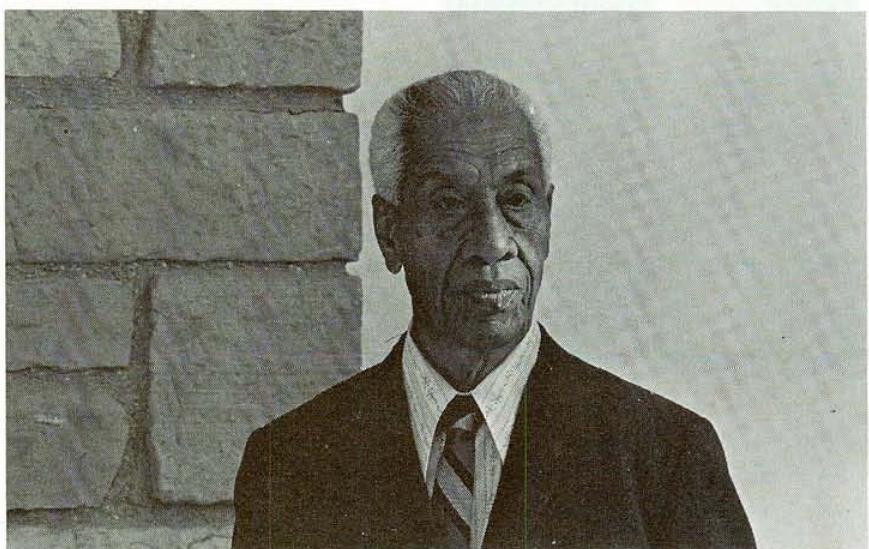
상황에서도 지키고, 먹이고, 나누는 사랑의 참된 과정을 그의 행동으로써 증명해 보인 “특별한” 사람이었읍니다.

비극이나 위기에 닥친 사람들이 그 것에 동요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의 기본 원리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얼마나 기쁩니다. 일상 생활에서 예의와 깊은 사고와 친절은 진정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아버지는 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고 자연의 비밀을 발견하기도 하며, 그의 아버지가 할 모든 일을 아들 자신에게 해 볼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딸들에게 빵을 굽고 요리하는 법을 재미있게 가르치는 어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그들과 함께 읽음으로써, 독서를 좋아하도록 가르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떤 형은 동생에게 우표 수집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어떤 누나는 남동생에게 말 씀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부가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들은 아마 “너무 하찮은 것이며, 너무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먹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이며 기쁨과 행복을 결과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선수

들에게서 승리 이상의 것을 원하는 야구 코치, 레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 또는 딸에게 그들이 찾아와서 의논할 마음이 생길 때 기꺼이 응해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부모, 학교 임원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계획을 세우는 동생을 돋고 있는 언니, 여행을 떠나기 위해 서로 돋고 있는 가족이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사람과 결혼하기 위하여 자신을 “특별한” 여인으로 지키면서 한 선교사에게 정규적으로 격려의 편지를 보낸 어느 여대생에게서 또 다른 사랑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매일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교훈을 가르치신 아버지의 모범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주 세속적인 일들 즉 접시닦는 일, 빙갈아 가며 아기를 침대에 세우는 일 등을 돋는 것은 불충분하지만 행동이 따르므로 헛 소리가 되어 버린 달콤한 표현보다는 더욱 진정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진실로 사랑을 이해하는 자들은 사랑이란 근본적으로 단순하고, 계속적이고, 성실한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이웃이나, 선교사의 일지나, 사회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일 기회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 몇몇 사람들은 가족 중 누군가가 실망하거나, 배반하거나 실패하게 될 때 사랑의 과정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거의 없을 때야말로 가장 사랑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사랑은 협박이나 정죄나, 실망의 표시나 보복에서 적절하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인내와 협조와 끊임없는 일의 수행을 요구합니다. 저는 35년 이상을 완전히 비 활동적이었다가 이제는 나의 가정 복음 교육 교사로서 나를 “먹이고 있는” 한 수련 장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존 어떻게 교회로 되돌아 왔지?”라고 내가 물었읍니다.

“내 아내가 나를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오늘 저녁 나와 함께 앉아 있는 복음 교육 동반자가 나를 올바





물론 대대를 놀린듯이 바라 보고 있는 인디안

른 걸로 가도록 끈덕지게 ‘졸라대는’ 통에 이렇게 됐네.” 존은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 두 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데에도, 친구를 사랑하는 데에도,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도 시간이 요구됩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 주기를 원하는 어린 아들이거나, 죄수이거나, 아버지이거나, 딸이거나, 낯선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란 선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며 또한 그 이상의 것을 받을 만합니다. 우리들은 사랑을 적당한 행동으로 실행할 것을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말 이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먹이고, 지키고, 계속함으로써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의미있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모든 자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계속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친구, 낯선 사람, 예

언자와 하나님께, 사랑의 선언을 일상 생활에서 실じ로 보여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사랑이란 하나님과 인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계속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이는 것, 지키는 것, 돌보는 것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었으며, 인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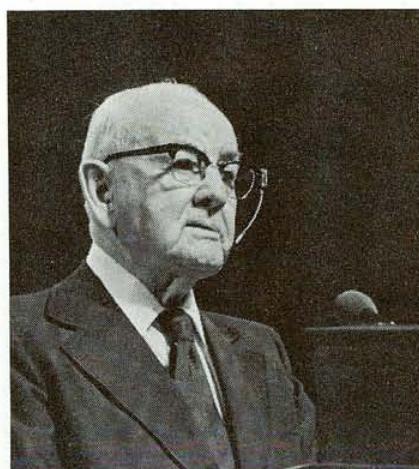
10월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말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형 제 자매 여러분, 8차례의 모임을 가진 이번 3일 동안의 대회는 참으로 영광스런 대회였습니다. 총판리 역원은 그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진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 열심히 키 기울여 주신 교회의 지도자 및 회원들이 많은 영감을 받고 영적으로 고양되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총판리 역원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말씀을 노트에 적어 두었으리라 믿습니다.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일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제언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활을 완전케 하고, 영원한 삶의 기본이 되는 원리의 말씀도 많았습니다.



여기애 앉아서 내 생활에서 내가 완전히 할 수 있는 여러 측면들을 맘 속으로 나열해 보면서 대회가 끝나는 즉시 오늘밤 이 대회를 마치고 집으

로 돌아가면 그 일에 착수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총판리 역원들이 복음의 원리에 대하여 힘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벤슨 형제님은 그의 감동적인 말씀에서 하나님의 변경될 수 없는 율법은 하늘 위에서도 확고히 남아 있으며 인간과 국가가 그 율법 따르기를 거부할 때는 마땅히 형벌이 뒤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엔 쇠잔하여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죄는 별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벤슨 사도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서,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그분의 지시와 영감을 구할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는 참으로 이치에 맞는 대담한 말씀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께서는 십이 사도 평의회 회장이 주님의 영감의 인도를 받아 원래의 계획을 변경시켜 그가 죽어 가는 어린이에게 축복을 줄 수 있도록 그곳에 가게 하였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는 대회의 모임을 다 마치지 못한 채 60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차를 몰아 겨우 운명 직전에 어린 소녀에게 축복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 장로는 인간이 자제력을 잃고 유흥적인 생활의 유혹에 빠져 들어갈 때, 아무리 강하고 권세가 강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힘을 잃게 된다는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천로역정에서 쓰레기를 긁어 모으며 살던 사람이 천국의 왕관을 거절했던 자의 이야기도 들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쟁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컬리모어 장로의 가정의 밤 프로그램에 관한 말씀도 들었으니다. 그것은 실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집으로 가셔서 가정을 이루는 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실패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부조회 대회에서 악마는 유혹할 장소를 알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악마는 가정을 유혹하며 가족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마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총관리 역원들이 말씀하신 사탄의 이러한 모든 일이 결국에는 가정과 가족과 부모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가족을 넘겨 보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강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터틀 장로와 그 밖의 총관리 역원들로부터 위대한 선교 사업에 관해 얘기들었습니다. 롬니 부대관장님은 이 대륙의 민족들의 경전상에 나타난 역사를 더듬었습니다. 그는 니파이인과 야벳인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약속 즉 이

약속된 땅을 어느 민족이 차지하게 되든지, 이 땅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진대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것이요 종된 것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자유롭게 되리라는 약속을 들려 주었습니다. (이데 2:12 참조) 몇 마디 말에 불과한 이 말에는 참으로 중요하고 폭넓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맥콩키 형제님의 수 천년에 한두 번의 축복이 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제님께선 그 문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형제님은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프로그램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으며 동시에 많은 다른 프로그램 즉 복음 회복의 위대한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헹스 장로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능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힝클리 장로는 우리를 거의 탐닉시켜 버리는 외설적인 음란의 홍수와 성과 폭력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힝클리 장로는 우리에게 지도자들 즉 입법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는 적당한 법을 만들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그 법을 제정하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일깨워 주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힝클리 형제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헤이트 장로는 위임 없이는 교회가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으며, 위임하기 위하여는 신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전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총관리 역원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결같이 훌륭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귀 기울이며 기도할 때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음을 난 확신합니다.

나는 헌터 형제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건물의 역사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난 여기서 태어나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살았읍



니다. 그러나 일찌기 그러한 역사에 관해 듣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최소한 이 거대한 태버나클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노고와 희생에 관한 아름다운 그 이야기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건물은 지은 지 백년이나 됨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이 백년이 되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는 이 건물에서 있었던 예언자와 사도와 그 밖의 지도자들의 수많은 위대한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또한 총관리 역원의 깊고도 진실한 수많은 기도를 상상해 봅니다. 수년 동안을 계속해 온 합창단과 지도자들을 상상해 봅니다. 실제로 이 건물은 얼마나 큰 봉사를 해 왔습니까. 나는 이 건물이 앞으로도 최소한 수백년 더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헌터 형제님은 선교 사업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만일 이 단상에서 선교사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다면 단지 그 이름들만을 부르는 데 온 종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선교사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의 수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수 만큼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을 모두 선교사의 부름을 주었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있다면 다른 몇몇 분들의 훌륭한 말씀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내가 들은 것, 기억해 두고 싶은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고자 했던 것들을 결정하고 요약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페리 형제님의 결혼에 관한 강력한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버 시 김불, 브리감 영, 윌포드 우드러프, 최초로 대솔트레이크 계곡을 바라보는 세 사람; 마흔리 영의 '바로 이곳이다' 기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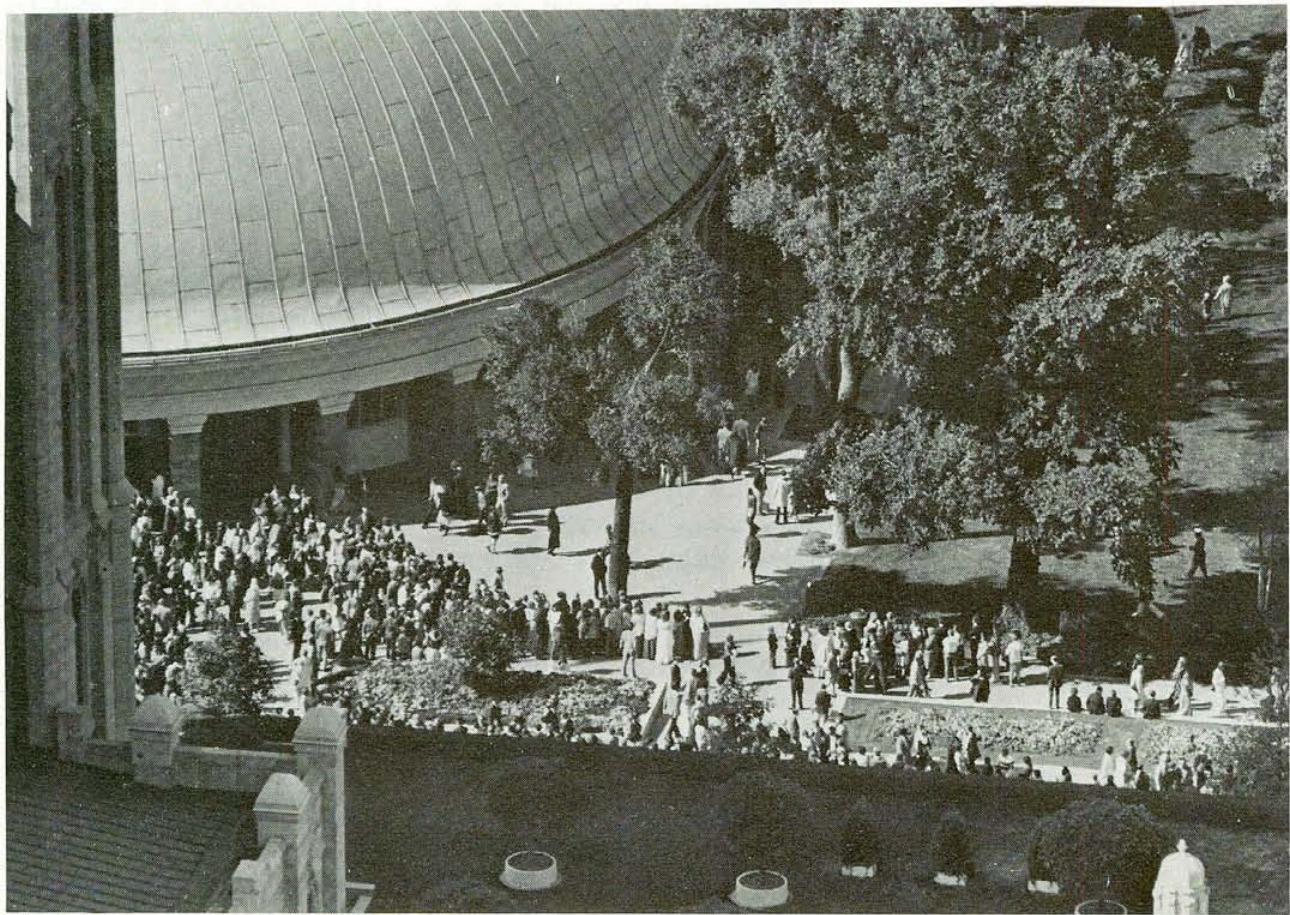
우리를 파괴시킬 일을 정확히 말하는 사탄에 관해 생각해 볼 때, 결혼은 하나님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결혼 생활을 그만 두고 가정 생활을 중단한다면 이는 사탄을 위한 행동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귀 기울이는 모든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린 귀 기울이는 자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회 기간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모두 진실합니다. 분명히 진실합니다. 또한 그것은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영혼의 구원과 승영에 대한 분명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를 따르며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를 찬양하며 영화롭게 합니다. 이제 우린 메사에 있어서 그를 따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회복되었으며, 그것은 완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복음이 충만하고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며, 귀 기울이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두 얻을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내버려 두거나 무시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이 훌륭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간구하며,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며 우리의 구세주시고 구속주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그가 계획하신 생활 방법은 메사에 있어서 옳으며 진실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 대한 큰 사랑과 감사로써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태버나를 문 앞에서 기다리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까 ? ”

부산 선교부장
한 인상

선교사 네 명을 순천으로 보냈읍니다. 그리고 나서 두 주일 쯤 후에 광주로 선교사 훈련 모임을 위해 가면서 순천을 지날 때 문득 순천시가 새로운 느낌으로 나의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천이 이미 나의 정다운 고향인 것처럼, 아니 그렇게 되어 있음을니다.

지금은 구미에 두 명, 전주에 네 명, 이리에 네 명, 영도에 네 명 각각 이렇게 선교사가 배치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는 포항에 선교사 네 명을 보내서 몰몬의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곳에서 가정의 밤을 가르치고 가정 복음 교육을 실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승영에 관하여 가르치게 할 계획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하여 나누어진 주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를 잠깐 들이켜 봅시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오십이 있을찌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 하시리이까” 이때에 주께서는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된 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의인의 수는 결국 열명으로까지 줄어 들었으나 그 열 명이 없어서 마침내는 룻과 두 딸을 제외한 모든 소돔

과 고모라의 사람과 마을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장 참조)

멸망을 막을 수 있었던 의인 열 사람, 그 열 사람에 관하여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선교사 한 명이 한 지역에서 봉사하는 기간은 대개 4~5개월 정도이며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한 지역에 선교사 4명이 배치된다고 하고 그 4명의 선교사가 각각 6개월 이내에 열 명씩의 개종자를 낸다고 가정한다면 새로 창설하는 지역의 회원 수는 1년에 80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현재 스테이크와 선교부를 망라하여 평균 성찬식 출석이 80을 넘는 와드와 지부는 몇이나 되겠습니까?

선교사가 한 지역에 배치되어 일하는 동안에 개종자 열 명을 얻게 하는데는 물론 선교사 개개인의 희생과 기도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새로운 깨어남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가족과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People Oriented program 약어로 P.O 프로그램이라 함) 따라서 가족과 개인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주인이 지금은 잘못 뒤바뀌어 있음을니다.

이 땅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

회의 감리자는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계보 사업도 가족과 개인이 합니다. 가정의 밤도 가족과 개인이 합니다. 가정 복음 교육도 가족과 개인이 합니다. 선교사는 옆에서 돕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계십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께서는 결음의 폭을 넓혀 달리라고 하셨고 대신권의 강화와 아론 신권 및 청녀의 활동 강화와 신권 선교 사업의 강화를 지시하셨습니다.

1976년에 우리는 이 땅에 몇 개의 스테이크를 세울 계획을 해야 할까요? 또 선교부는 몇 개를 더 세우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까?

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는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까?

순천으로 보낸 선교사들로부터의 연한 결심으로 무장된 저들의 보고서를 접하면서 그곳에 스테이크가 들어설 날을 설계도 위에 그려 보며 자꾸만 멸망을 예방할 수 있는 열 명의 의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1976년을 다 보내고 난 후에 우리가 소속된 와드와 지부에서 금년에 개종한 열 가정의 열 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한결같이 지켜 주시고 복주시옵소서.



Henry Ossawa Tanner 1895